향토문화자료 4

내고장의 얼

인물 편

홍 순석 엮음

용인군 문화원

포은(圃隱) 정 몽주(鄭夢周)

포은(圃隱) 정 몽주(鄭夢周)

문성공(文成公) 유 순정(柳順汀)

약천(藥泉) 남 구만(南九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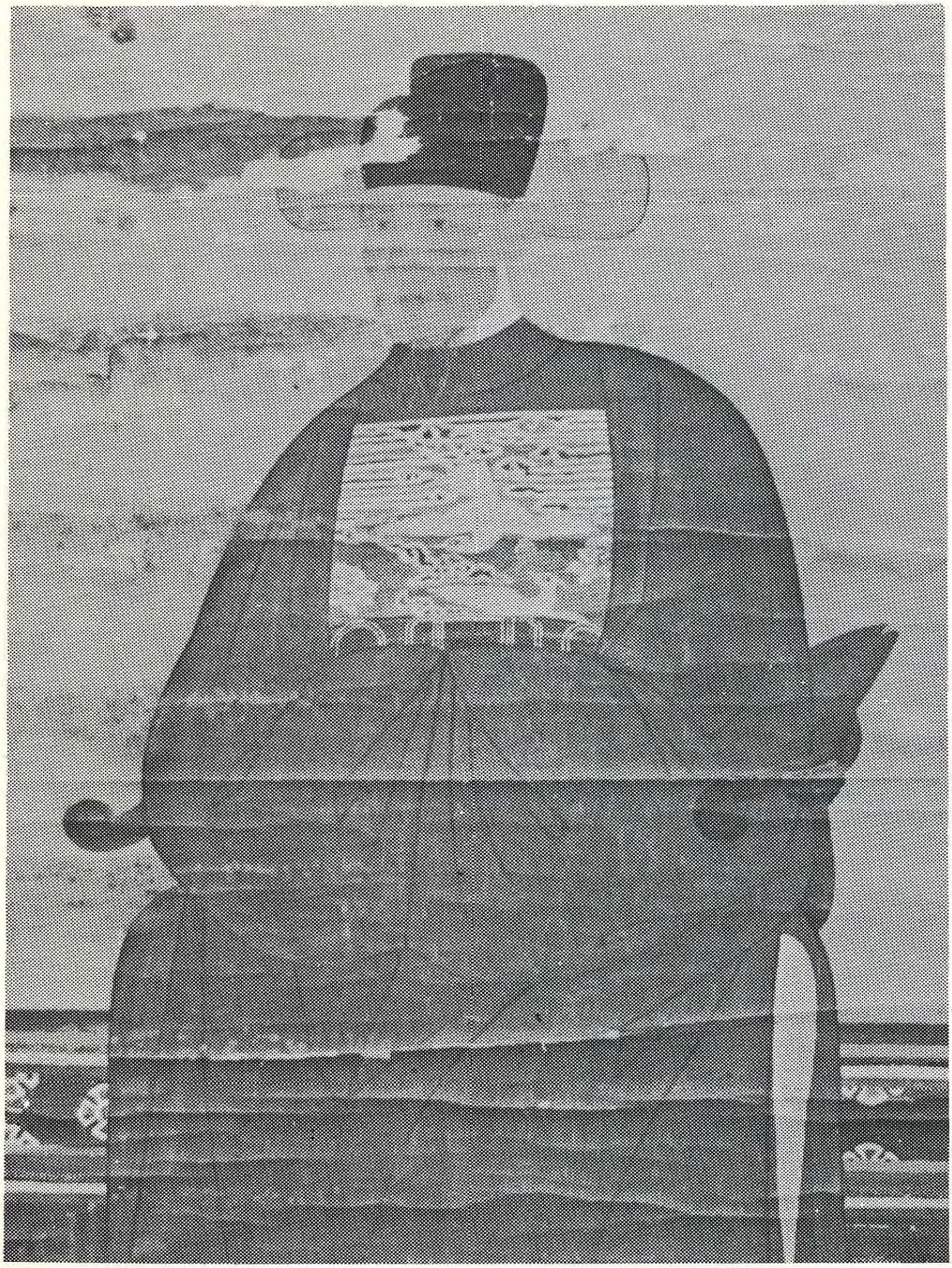
도암(陶庵) 이 재(李縡)

모암(慕庵) 오 명항(吳命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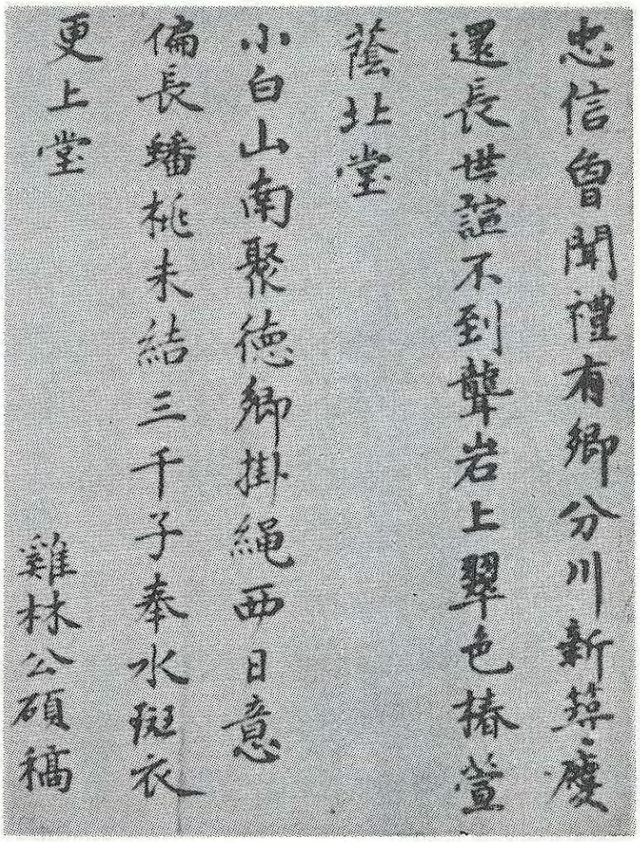
번암(樊巖) 채 제공(蔡濟恭)

오백당(梧栢堂) 이 주국(李柱國)

허 선(許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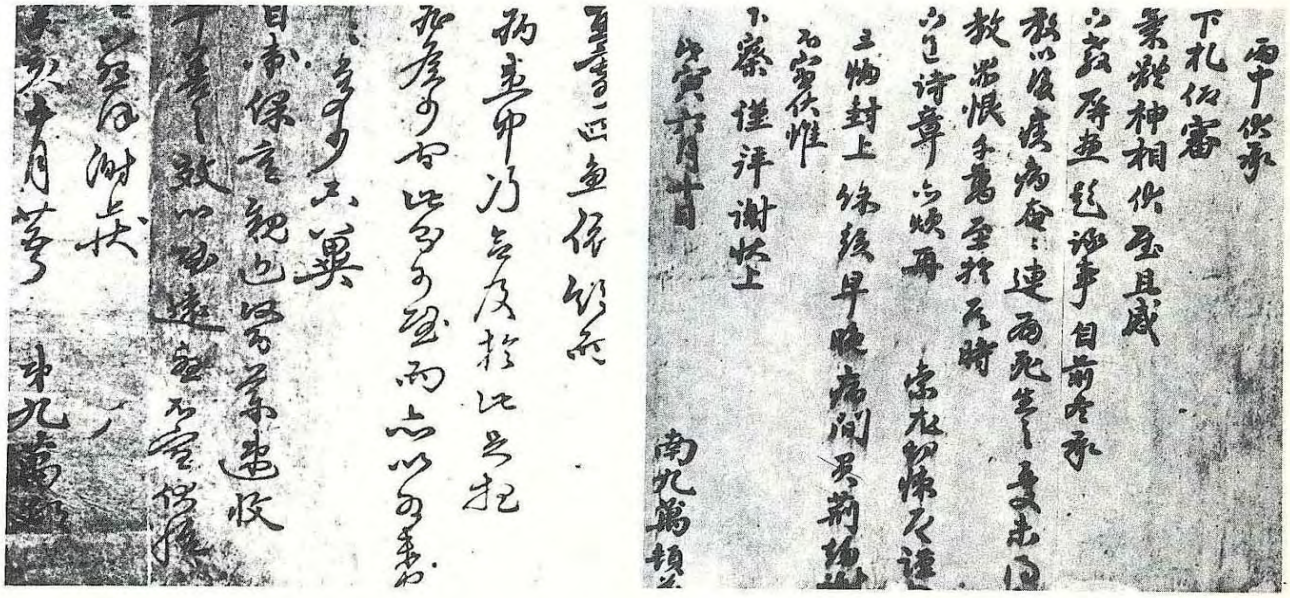
허 계(許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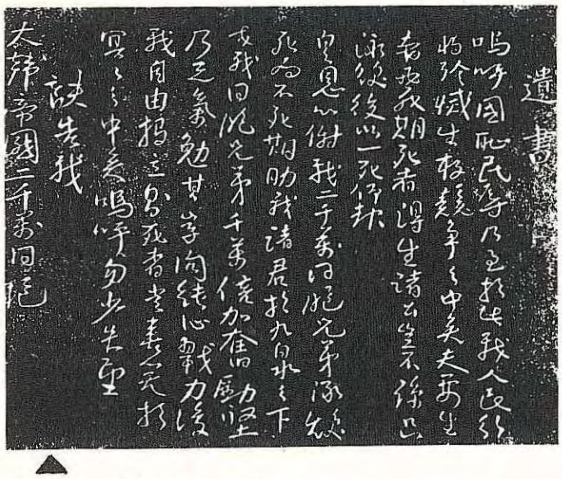
忠信曾聞禮有鄉分川新築慶
還長世誼不到聾岩上翠色椿萱
蔭壯堂
小白山南聚德鄉掛繩西日意
偏長蟠桃未結三千子奉水短衣
更上堂

雞林公碩稿

김 세필(金世弼)



남 구만(南九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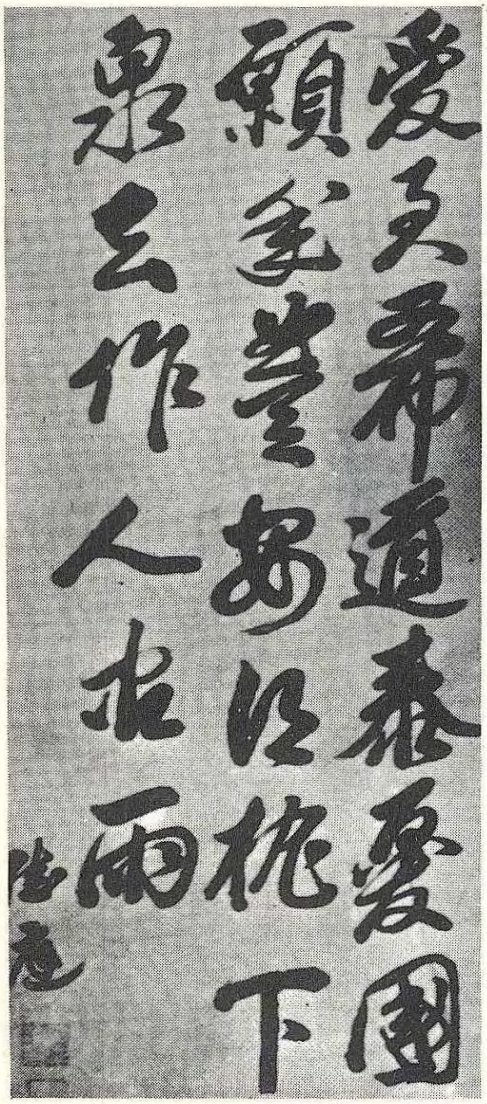


遺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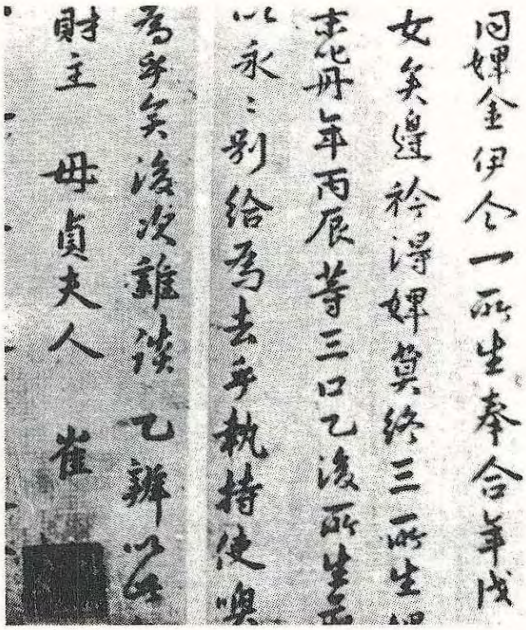
嗚呼國破民辱乃至於此我人民終
將爲滅亡奴隷之中矣夫安生
奪死我輩所期豈得生請自今日後
永訣從此一死僅快
皇恩必銜我二千萬同胞免爲永劫
沉淪不死如助我請君於九泉之下
共我同胞之爭千萬倍加奮勵力圖
恢復之義勉甘心陶統心戰力後
我自由招之魂者未嘗之冥冥
之中矣嗚呼勿少失望

訣告我
大韓帝國二千萬同胞

◀ 민 영환(閔泳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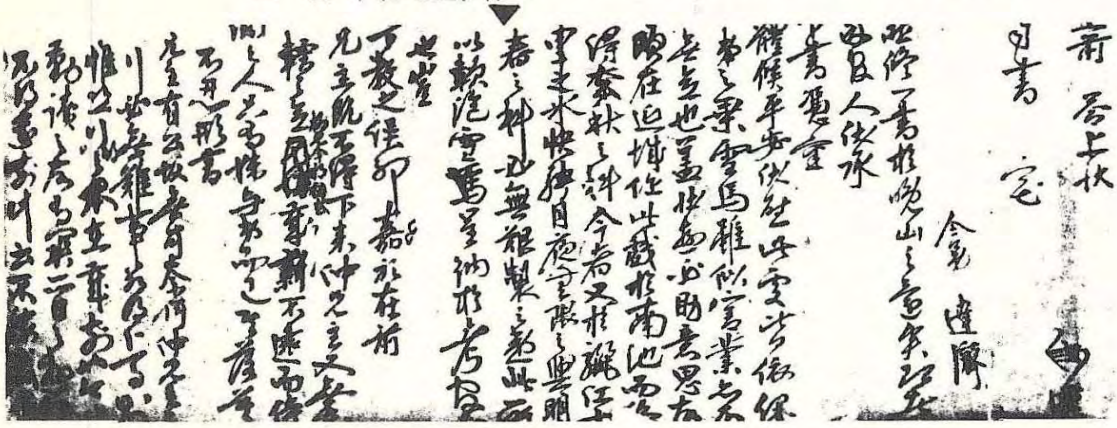


愛矣帝遺泰愛國
願全堂如此抱下
忠云作人本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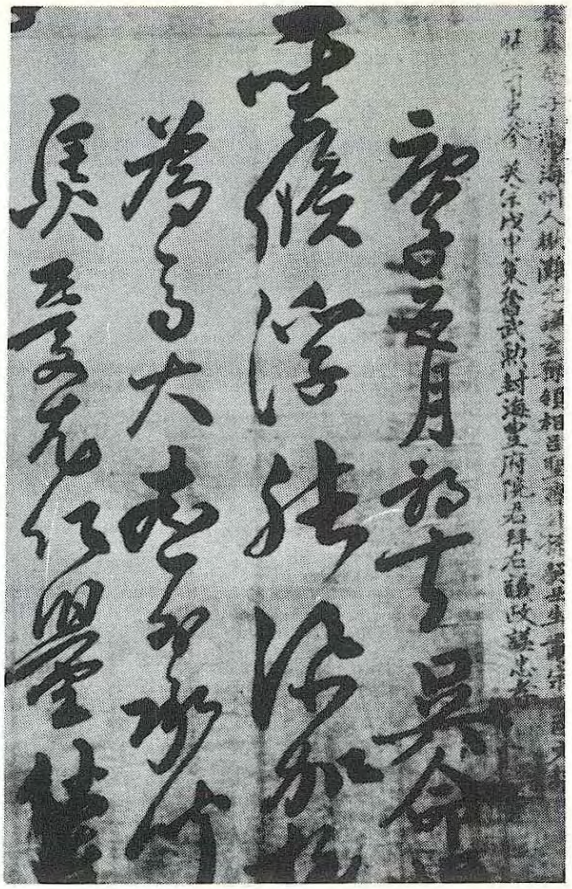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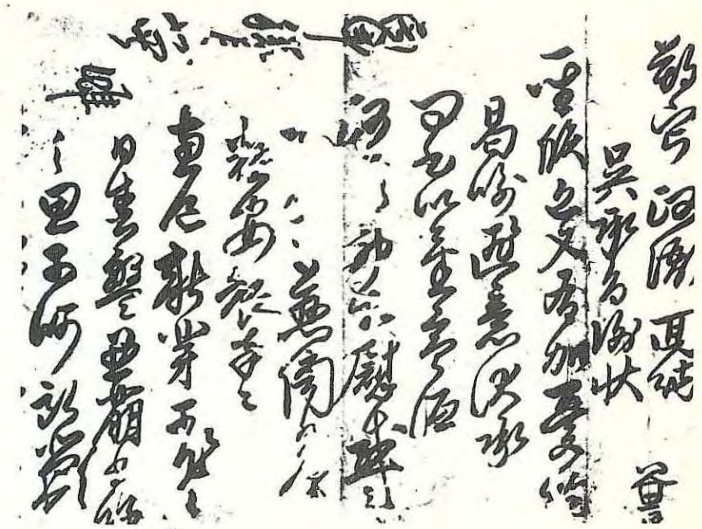
同婢金伊仑一所生奉合年伐
女矣邊衿淨婢奠終三所生
求卅年丙辰等三口乙後所生
以永之別給爲去乎執持使唤
爲矣後次雖淡乙辦
財主 母貞夫人 崔

오 달제(吳達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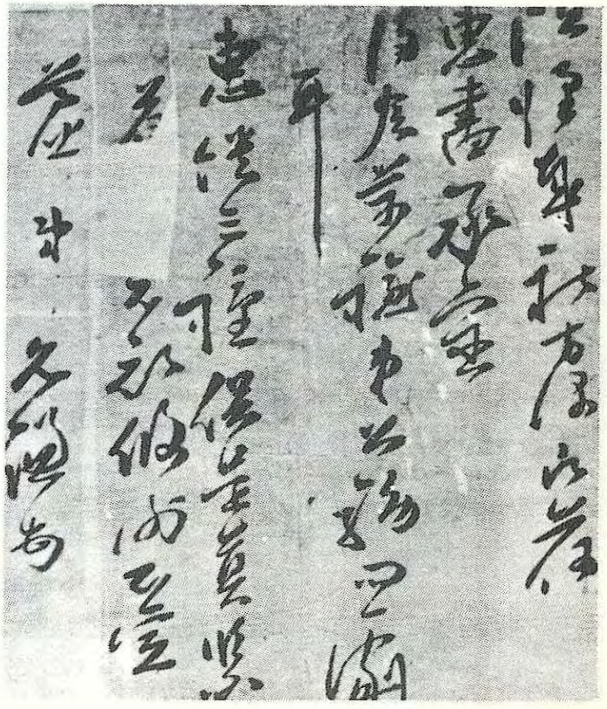


齋舍上梁
文書 宅
金 達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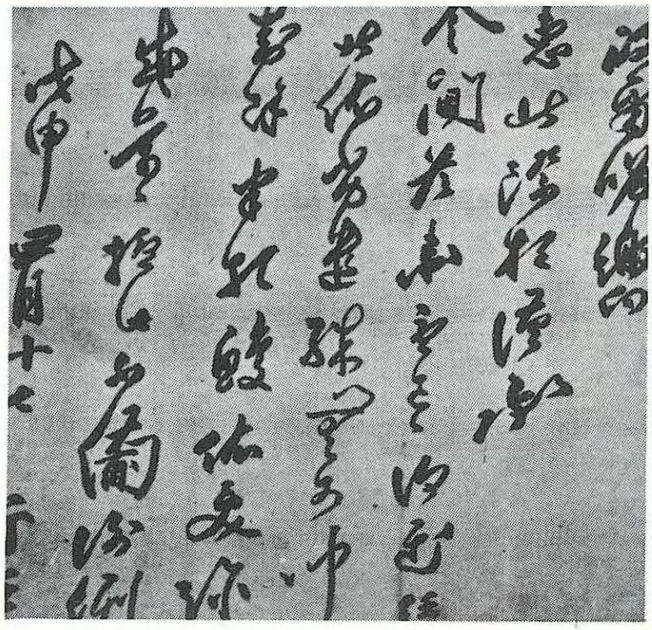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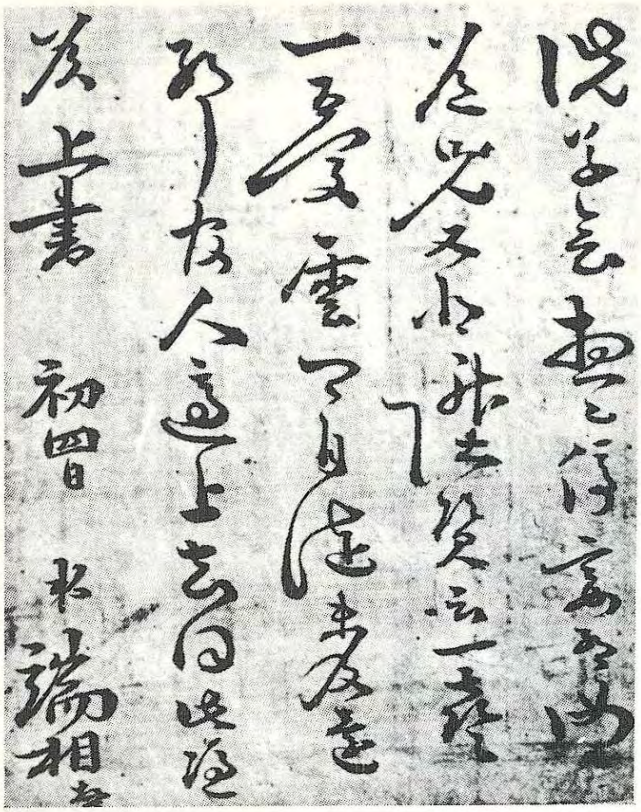
◀오 명항(吳命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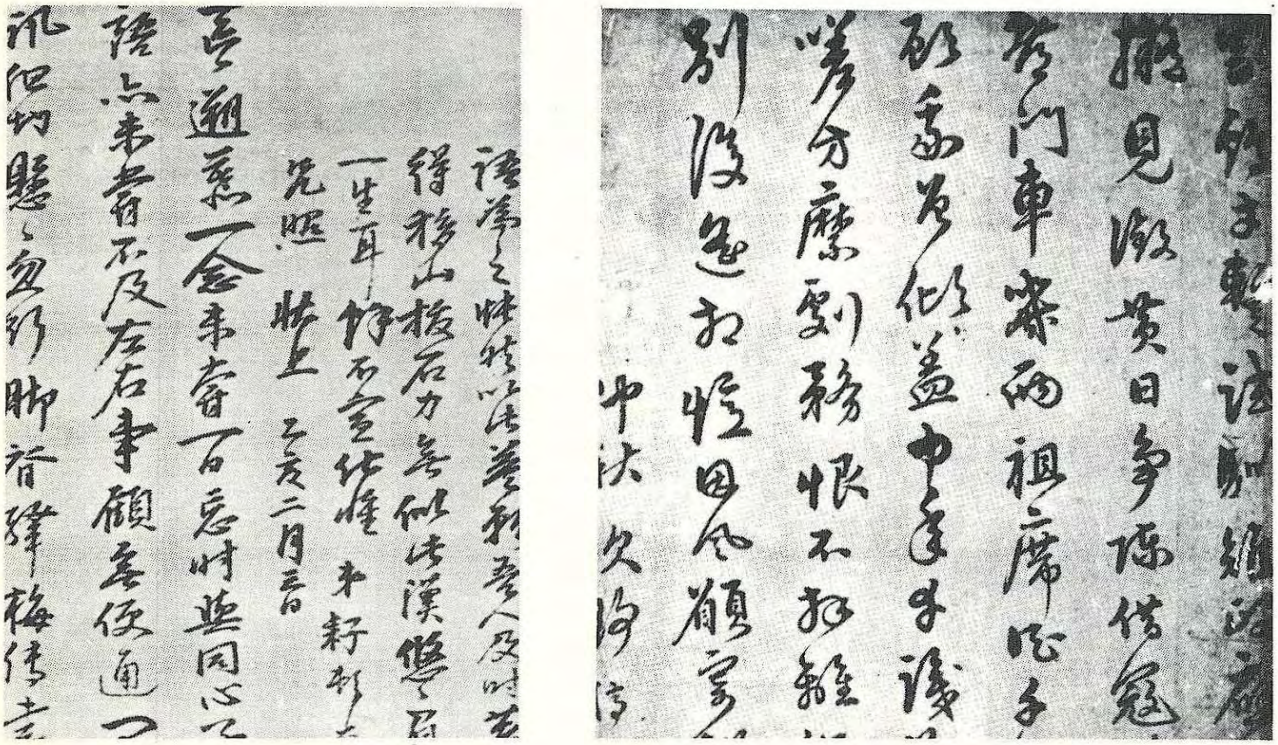
오 윤겸(吳允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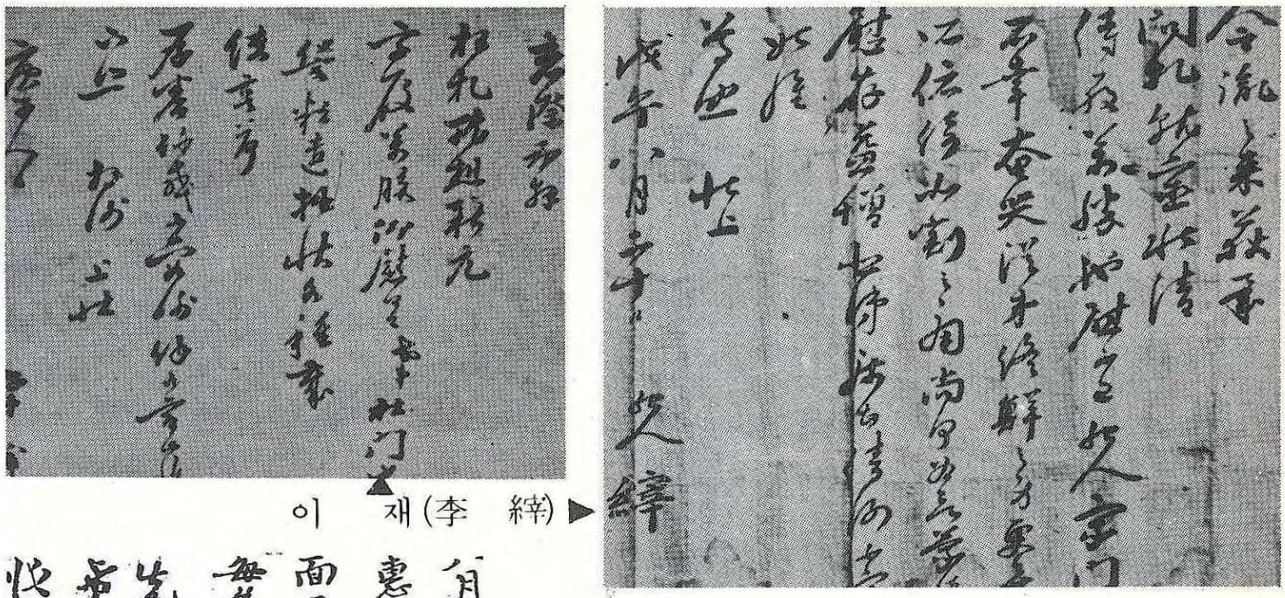
윤 행임(尹行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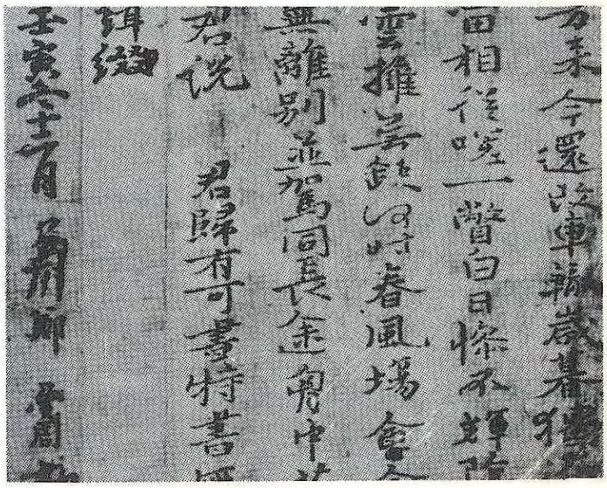
이 단상(李端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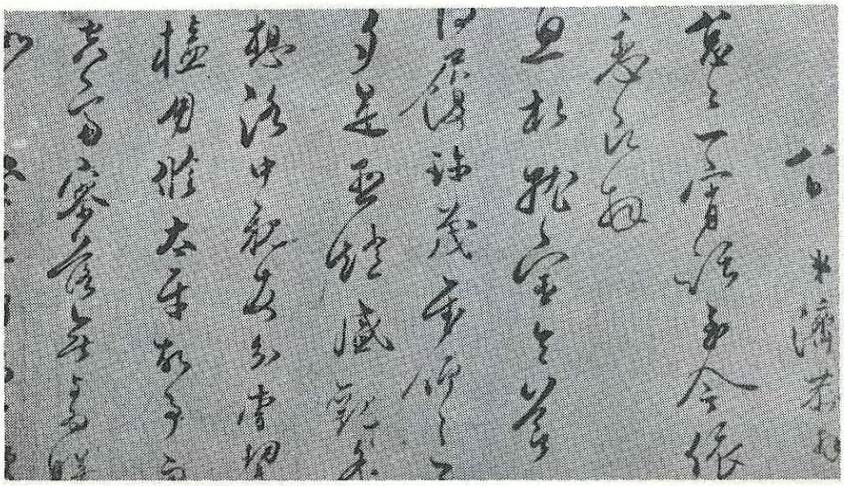
이 자(李 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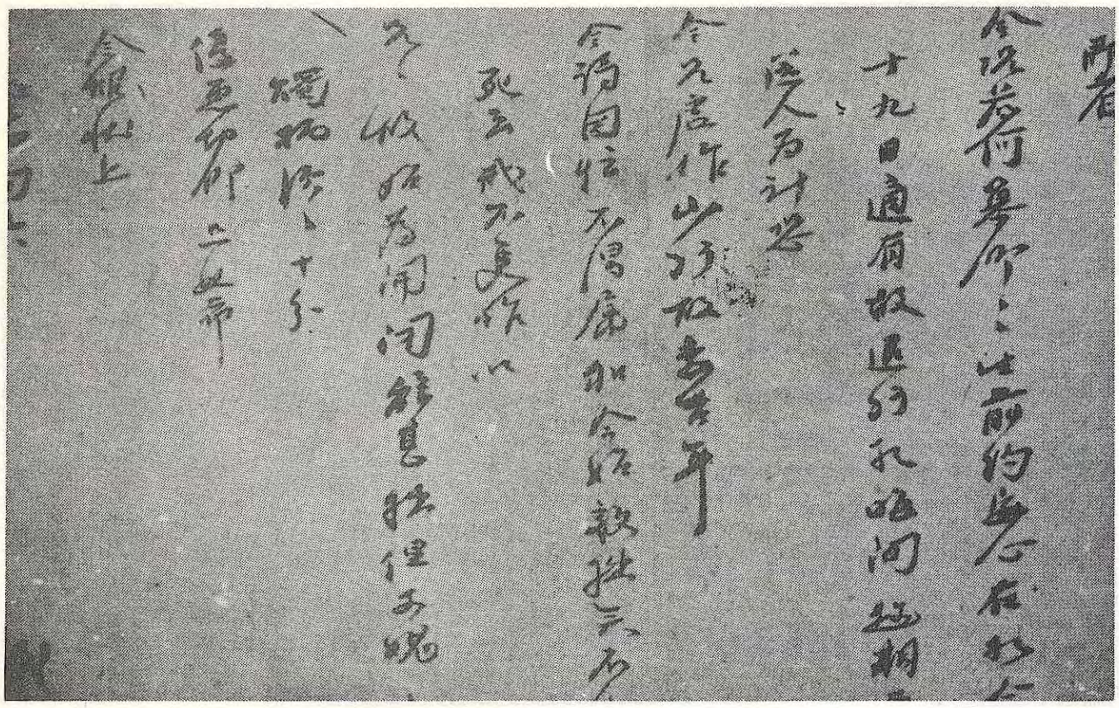
이 재(李 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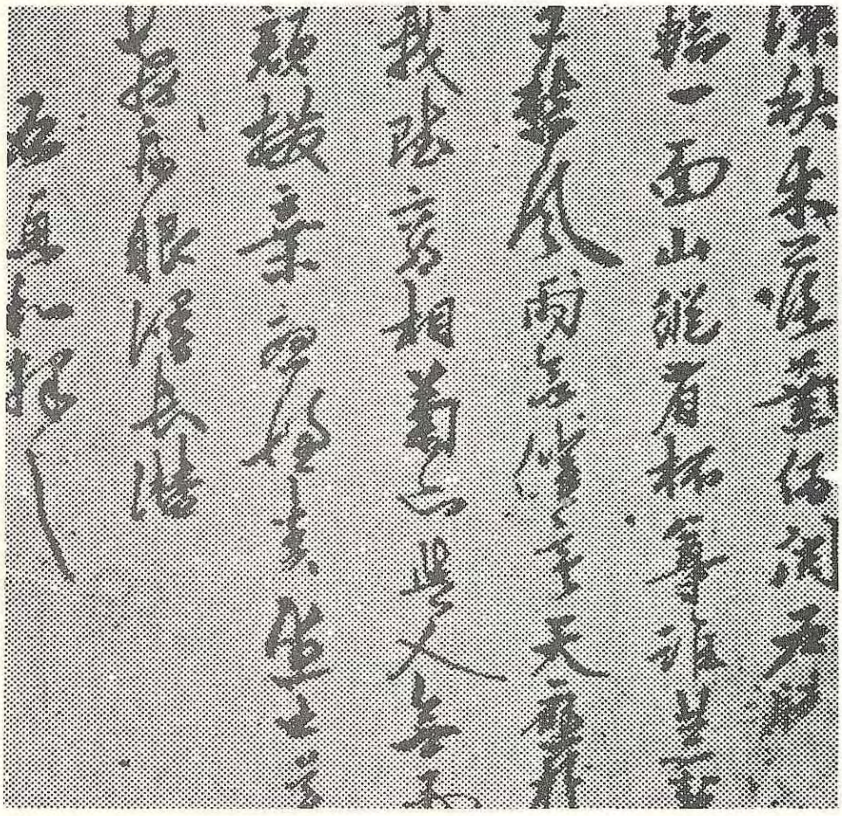
정 몽주(鄭夢周)



채 제공(蔡濟恭)



허　균(許　筠)



박　은(朴　誾)

축 간 사

용인군수 金 相 鎬

예로부터 우리 용인은 충의(忠義)와 효제(孝悌)의 표상(表象)이 되는 고장으로, 산자 수려(山紫水麗)하고 뿌리 깊은 문화 전통이 꽃피어온 고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용인은 천년의 긴 역사와 함께 수 많은 대가(大家)와 명인(名人)을 배출하여 그 역사와 얼을 가꾸고 발전시켜 왔읍니다.

최근에 들어와 수도권의 생활권 지역으로서 급속한 물질 문화의 발달과 영향으로 향토 문화와 전통이 다소 쇠퇴(衰退)한 감이 없지 않읍니다마는, 민족 문화의 창달(暢達)과 주체성 확립을 추구하는 정부 시책과 향토 문화 육성을 위한 향토 문예인(鄕土文藝人)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승(繼承)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발간되는《내 고장의 얼》은 향토에 심어진 우리 조상의 얼을 대중화(大衆化)시켜 나감으로써 향토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한 군민의 자부심 고취와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책의 발간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노고(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 분들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1984년 11월 21일

발 간 사

용인문화원장 金 正 根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는 한민족(韓民族)이 살아온 발자취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기에 한민족만이 가지는 민족 문화이다. 한 때 우리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말살당할 뻔 하였고, 해방 후엔 분별없이 받아들인 서구 문명에 의해 우리의 문화 유산을 소홀히 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등 잠시나마 고유 문화의 망각 시기를 맛보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나마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결코 부끄럽지 않은 유산이라는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 스스로가 자각하게 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이 방면에 많은 정력을 기울여 온 학자들과 연구가들의 애씀은 한국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중흥을 목표로 삼음이며, 현대 문화와의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문화 창조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리라.

역사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의 기록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인 〈누가〉라는 명제를 다루어 옛 조상의 얼을 찾아 전통 문화의 맥을 집어보는 것이야말로 향토 문화 연구의 필수적인 요인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화는 전술한대로 전통이 바탕이 되므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면 우선 그 전통과 바탕을 찾아야하며, 이 책자를 펴냄은 바로 그 바탕을 찾기 위해 애쓴 흔적을 보여주려함이다. 여러 문헌 자료와 구전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한 책으로 엮어 펴내는 것은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이 우리 용인의 전통 문화 연구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바쁜 중에도 이 책을 집

필하느라고 수고하신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의 홍 순석 선생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항상 문화원의 발전을 격려해주시는 김 상호 군수님과 옆에서 후원해주신 문화원의 여러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4. 11. 21.

책 머 리 에

내 고장 옛 선조들의 얼과 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연구, 소개함으로써 내 고장 용인의 전통적 맥락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향토애를 앙양하여 용인인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갖게한다.

이같은 취지하에 뜻을 같이하는 몇몇 동향인들이 모여 향토 문화 연구에 손을 댄지도 이제 4년 째에 이른다. 그동안 우리는《용인군읍지》를 1집으로 시작하여 해마다 한 권의 향토자료총서를 간행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그 4집으로 이 조그만 책자를 이루게 된 것이다.

본 책자는 오랜 기간 동안 용인군 전 지역에 걸쳐 전개해온〈내 고장 7위인의 얼 이어받기〉운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특별히 계획된 것이다. 따라서 본문 중의 대부분은 향토사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색채가 적지 않으리라 본다.

한 인물의 역사적 위치와 행적을 더듬어 한 책자로까지 엮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본래 이 책자를 공동 집필로 계획하였던 것도 그같은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부득이 이 방면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엮은이 혼자 그 부담을 걸머져야 했다. 혼자의 힘으로는 모험이 아닐 수 없음을 알고도 감히 여러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은 문화원의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에서이고, 미진한 곳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고장 용인을 아끼는 모든 이의 손에 의해 메꿔지고 다듬어져서 보다 나은 것으로 꾸며지리라는 기대에서이다.

이제껏 엮어온 자료 총서 간행 때에도 그랬듯이 이 조그만 책자를

내는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협조와 수고를 끼쳐야 했다. 우선 자료의 수집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 용익님을 비롯 여러 동료들, 각 문중의 어른들, 그리고 자료 정리에 큰 도움을 주신 한학자 이 두희님, 매년 편집을 맡아준 단국대학교 출판부의 남 석순 형 등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책자를 출간케 해주신 김 상호 군수님, 김 정근 원장님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작업에 내 고장 모든 이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용인향토문화대관》이 완성될 때까지 아낌없는 성원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엮은이의 애씀이 내 고장 향토문화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없는 기쁨이라 하겠다.

1984년 저문 해에

노고산 기슭에서 엮은이

일 러 두 기

본 책은 우리 나라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대한 공적을 남긴 내 고장 옛 선조들의 얼과 효·열의 귀감이 된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일러두면 다음과 같다.

1. 인물 선정

가. 《용인군읍지》《향토 문화와 전통》 등 기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출생 인물·우거(寓居) 인물·사거(死居) 인물 순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내 고장에 현존하는 유물·유적·기타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선정 기준으로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한국인명사전》 등을 참고하였다.)

나. 효·열 인물은 효행록(孝行錄)과 같은 유의 문헌과 《용인군읍지》에 전해지는 인물, 그리고 정려와 비석 등 유적이 현존하는 인물은 모두 실었다.

2. 내용 및 체제

가. 본문의 내용은 해당 인물의 행장(行狀)·묘지명(墓誌銘), 그리고 근대 인물의 경우는 해당 인물에 관계된 연구 논문 등을 참고로 그 인물의 행적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책이 향토 문화 자료임을 감안하여 내 고장과의 연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적었다.

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인물은 부록편에 약전(略傳)을 적어 참고하도록 하였다.

다. 본문의 인물 배열은 출생 연도순으로 하였으며, 부록편은 찾아

보기 쉽게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라. 해당 인물의 표제명 아래 1) 생몰 연대 2) 본관 3) 자(字) 4) 호(號) 5) 시호(諡號) 등을 순서대로 적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마) 부록편 뒤에 용인군내 선현 묘소 및 유적지 등을 일람으로 만들고, 비고란에 본 책에 실린 인물의 해당 지면수를 적어 본 책의 〈찾아보기〉를 대신하였다.

차 례

■ 축 간 사……용인군수 김 상호…… 1

■ 발 간 사……용인문화원장 김 정근…… 2

■ 책머리에 …… 4

■ 일러두기 …… 6

용인 이씨의 시조 이 길권(李吉卷)……11

두문동에서 절의를 지킨 선비 이 중인(李中仁)……13

우리 나라 성리학의 시조 정 몽주(鄭夢周)……15

남곡에 은거하며 절의를 지켰던 이 석지(李釋之)……21

야인과 대마도를 정벌한 명장 이 종무(李從茂)……24

대외 외교 활동으로 이름을 떨친 박 원형(朴元亨)……27

문장과 글씨로 이름난 세조 때의 명신 이 석형(李石亨)……32

27세에 병조판서가 된 기개의 대장부 남 이(南 怡)……37

야인 정벌과 삼포 왜란 평정의 명신 유 순정(柳順汀)……40

26세에 요절한 조선조의 천재 시인 박 은(朴 誾)……44

사은정에 개혁 의지를 남긴 이 자(李 耔)……49

사화 속에 진 철인 정객 조 광조(趙光祖)……53

학사들의 사기 진작에 힘쓴 재상 이 담(李 湛)……59

효행과 충정으로 이름난 의병장 김 충수(金忠守)……63

용인이 낳은 선조 때의 명장 이 일(李 鎰)……67

임진왜란 때 순절한 명장 심 대(沈 岱)……71

애마(愛馬)와 함께 용인에 묻힌
호국의 방패 안 홍국(安弘國)……75

역사 속에 숨겨진 청백리 재상 오 윤겸(吳允謙)……79

홍길동전에 개혁 의지를 남긴 허 균(許 筠)……83

병자호란 때 살신성인의 귀감이 된 이 시직(李時稷)……88
척화론의 기수 오 달제(吳達濟)……91
조선조 후기 실학의 선구자 유 형원(柳馨遠)……95
신흥 소장 세력의 교두보 남 구만(南九萬)… 100
효행과 충정의 귀감이 된 재상 오 명항(吳命恒)… 104
조선조 후기 성리학의 대가 이 재(李 縡)… 106
조선조 후기의 대정치가 채 제공(蔡濟恭)… 110
정조 대왕의 총애를 받은 명장 이 주국(李柱國)… 114
효제(孝悌)를 신조로 살다간 안 희중(安禧重)… 119
효우근검(孝友勤儉)의 표상 안 희묵(安羲默)… 122
우리 나라 국어학의 개척자 유 희(柳 僖)… 124
3대에 걸쳐 효자 정문을 받은 어 진혁(魚震赫)… 128
용인이 낳은 조선조 후기의 화가 이 재관(李在寬)… 130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시성인 김 대건(金大建)… 133
위국 충정(爲國忠貞)의 귀감 민 영환(閔泳煥)… 138
우리 나라 언론계의 선각자 유 근(柳 瑾)… 143
이국에서 순국한 열사 이 한응(李漢應)… 147
만주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한 김 혁(金 赫)… 151
교육 사업과 독립 운동에 일생을 받친 여 준(呂 準)… 154
용인이 낳은 향토적 서정 시인 홍 사용(洪思容)… 156

부 록

1. 공 서린(孔瑞麟) 외 69인 약전(略傳)…… 163

2. 용인군내 선현 묘소 및 유적지 일람…… 197

이 길권(李吉卷)

(904-1008)

시호 : 안곡공(安穀公)

이 길권에 대해선《삼국사기》나《고려사》와 같은 역사서에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용인 이씨의 세보(世譜)에 의하면 신라 효공왕 8년(904) 용인에서 태어났다 한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강직(强直)하고 도량이 넓고 깊었던 그는 남달리 재능과 학식이 뛰어났으며, 특히 천문 지리(天文地理)에 밝았다. 당시의 유명한 도승(道僧) 도선대사(道詵大師)가 우연히 그와 마주쳤을 때 그를 보고는 "이 분은 장차 왕을 도와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재량(才量)이 뛰어나건만 어찌 이같은 지방에서 묻혀 사는가"하며 매우 안타까와 하였으며, 이후로는 서로 긴밀히 왕래하는 사이가 되어 학문과 경륜을 닦았다고 한다.

이 길권이 살았던 시기는 신라 말엽으로 각지에서 군웅(群雄)이 할거하고 후백제의 견훤, 태봉의 궁예가 각축을 벌이던 때였다. 고려의 태조가 된 왕 건 역시도 이무렵 개성 지방의 신흥 귀족의 후예로서 그의 선조들이 형성해 놓은 사병(私兵) 세력에 힘입어 황해도 일부 및 강화도, 한강 하류 일대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였다. 왕 건은 궁예의 군사가 한강 하류에까지 와닿음에 그와 손잡고 형식상으로 그의 부하로 있으면서 서해안을 공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등 세력층을 넓혀나갔으며, 마침내는 궁예를 내쫓고 자신의 본거지인 개성

을 수도로 고려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당시 이 길권은 왕 건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도움을 준바 있는데, 왕 건은 자신이 태조의 자리에 오르자 그의 공로를 잊지 않고 "옛날 주(周) 나라의 대업을 도운 여 상(呂尙)이나 한(漢)나라를 개국할 때 공이 컸던 장 자방(張子房)보다도 그대의 공이 더 컸다" 격려하며 고려 건국의 공로로 식읍 5백호를 하사하고 산성군(山城君)에 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길권은 "신(臣)은 땔 나무를 하고 나물을 뜯으며 산골에서 편안히 살고 싶을 뿐이니 후한 녹(祿)은 마음의 짐이 되는 것으로 어찌 받을 수 있겠읍니까"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그후 태조 왕 건은 이 길권의 인품을 더욱 추앙(追仰)하여 구성백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 숭록대부 태사(駒城伯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崇祿大夫太師)의 품계를 내려 공신으로서의 대우를 극진히 하였다. 또한 이 길권은 태조 왕 건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 고려조의 부마(附馬)가 되었다고도 한다.

평소 부귀 영화를 탐하지 않고 오직 청렴한 생활만을 누려왔던 이 길권은 훗날 다시 고향인 용인으로 내려와 여생을 보내다 목종(穆宗) 18년(1008)에 105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안곡공(安穀公)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후손들도 그 뜻을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그를 시조로 모시며, 그가 살았던 용인을 본관으로 정하였다. 용인 이씨의 세보에는 그의 묘소가 기흥면 영덕리 마을 뒷산에 있다고 하나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후손들이 그 곳에 비석을 세워 그의 얼을 추모하고 있을 뿐이다.

용인 이씨는 《동국여지승람》이나 《용인군읍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혈족 중 대성(大姓)으로 고려조의 이 사위(李士渭), 이 백지(李伯侍), 이 중인(李中仁), 조선조의 이 일(李鎰), 이 담(李湛), 이 순악(李舜岳), 그리고 철종 때의 화가 이 재관(李在寬) 등이 모두 그의 후손이다.

이 중인(李中仁)

(1315-?)

용인(龍仁)／./진초(秦楚)／
구성군(駒城君)

이 중인은 고려 초의 태사 삼한벽상 공신(太師三韓壁上功臣) 이 길권의 후손으로, 고려 충숙왕 2년(1315) 판도판서(版圖判書) 이 광시(李光時)와 부부인 기씨(府夫人 奇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일찌기 큰 뜻을 품고 학문과 덕량(德量)을 닦은 그는 당시에 팔현(八賢)이라고 불리워졌던 이 조년(李兆年), 이 숭인(李崇仁), 김 주(金澍) 등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서로 스승이 되고 벗이 되는 등 덕망이 높은 학자로 추앙되었으며, 정 몽주(鄭夢周)와 이 색(李穡) 등이 그에게 경서(經書) 및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를 배웠다. 같은 시대의 학자 이 백겸(李伯謙)은 이 중인을 한 번 만나보곤 "그대의 흉중에는 진시황(秦始皇)과 초패왕(楚覇王)의 위엄스러움이 숨어있다"고 말하였는데, 그의 호가 진초(秦楚)로 불리워진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중인은 고려 말엽의 덕망 높은 학자로도 유명하지만 후세 사람들이 그의 인품을 더욱 흠모하는 것은 그가 두문동(杜門洞) 72현(七十二賢)과 함께 절의를 지킨 학자였다는 점이다. 이 중인은 관직이 통직랑 홍부도감 판관(通直郎弘副都監判官)에까지 이르렀으나 고려의 국정이 문란해짐을 개탄하며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와 오직 학문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14 내고장의 얼(인물편)

1392년 7월 이 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려조의 명신들을 등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중인에겐 삼한 벽상공신 삼중대광 구성부원군(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駒城府院君)의 품계를 내리고 자신을 도와 국정을 보필해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 중인은 "나는 고려조의 신하이다.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음이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 그대의 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하며 신 규(申珪)·조 의생(趙義生)·임 선미(林先味)·맹 호성(孟好誠)·서 중보(徐仲輔) 등 72명의 현신(賢臣) 들과 함께 개성의 광덕산(光德山) 서쪽 기슭에 위치한 두문동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태조 이 성계는 이들 72명의 고려 충신들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절의만을 고집하자 개국 공신인 조 준, 정 도전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문동을 불태워 위협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성계의 회유나 위협에 동요되지 않고 그대로 불 속에서 타죽었거나 전국 각지로 흩어져 은거하며 여생을 보냈다. 이 때 이 중인은 양주군 별내면에 있는 송산(松山)에 들어와 조 윤(趙胤), 김 주(金澍), 정 구(鄭矩), 원 선(元宣), 김 양남(金揚南)등과 함께 절의를 지키다 세상을 마쳤다. 당시 사람들은 이 중인의 이같은 충절에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시로써 칭송하였다.

적적하고 쓸쓸한 두문동 마을에　　寂寂杜門洞
외로운 충의 해와 별보다 밝게 빛나고　　孤忠煥日星
봉군(封君) 사양함 초개같이 여겼으니　　讓封猶草芥
세상에 떨친 명성 천추 만대 빛나리　　千載樹風聲

현재 양주의 송산사(松山祠)에서 이들 여섯 명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3월 20일에 배향하고 있으며, 용인군 기흥면 영덕리 잔다리에는 이 중인의 유품만을 안장한 묘소가 있다.

우리 나라 성리학의 시조

정 몽주(鄭夢周)

(1337-1392)

영일(迎日)／달가(達可)／포은(圃隱)／
문충공(文忠公)

정 몽주는 고려 충숙왕 6년(1327) 12월 경북 영천군 동우항리(東愚巷里)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운관(云瓘), 모친은 영천 이씨(永川李氏)로, 이씨가 임신중에 난분(蘭盆)을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려 깜짝 놀라면서 낳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름을 몽란(夢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 몽주가 9세가 되었을 때 이씨가 낮잠을 자다가 흑룡(黑龍)이 뜰 가운데 있는 배나무에 기어오르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서 밖에 나와 보니 정 몽주가 배나무를 기어오르며 놀고 있었다 해서 이름을 다시 몽룡(夢龍)이라 고쳤다. 몽주(夢周)는 뒤에 관례를 행하고 나서 지어진 이름이다.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고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정 몽주는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 19세 되던 해에 부친의 상을 당하였는데 이 당시는 상례(喪禮)의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문란하였었다. 그럼에도 정 몽주는 부친의 묘소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시묘(侍墓)를 하며 정성스럽게 보살폈으며, 이를 가상히 여긴 조정에서는 그 동리에 효자 정문의 은전을 내려주었다. 시묘 생활 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정 몽주는 공민왕 6년(1357) 감시(監試)에 3등으로 합격하고, 3년 뒤에는 24세의 나이로 문과(文科)에 응시하여 세 번이

나 잇달아 장원하는 등 명성을 크게 떨쳤다. 그 후 공민왕 11년(1362) 3월에 예문관 검열(檢閱)의 벼슬로서 관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 정 몽주는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 공민왕 16년(1367)에는 성균 박사(成均博士)로 임명되었다. 이 당시는 홍건족의 난을 겪은 후라서 학교가 황폐하여지고 인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공민왕은 성균관을 창건하고 김 구용(金九容)·박 의중(朴宜中)·박 상충(朴尙衷)·이 숭인(李崇仁), 그리고 정 몽주를 뽑아 학관(學官)을 겸직하게 하고 이색(李穡)으로 하여금 대사성(大司成)을 맡게 하였다. 성균관 박사로 강론(講論)을 맡았던 정 몽주는 자신이 연구한 독자적인 학설로 여러 학사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주자(朱子)가 집주(集注)한 경서(經書)만을 배웠던 당시의 유학자들은 정 몽주의 학설이 너무나 특이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많았다 한다. 그러나 훗날 중국의 학자 호 병문(胡炳文)이 지은 《사서통(四書通)》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난날 정 몽주가 강론한 학설과 비교하여 보니 들어맞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이에 여러 학자들은 더욱 탄복하였다. 특히 이 색은 "포은의 이(理)를 논함은 횡설수설한 것 같으나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고 격찬하며, 그를 동방 이학(東方理學)의 시조로까지 추대하였다.

공민왕 21년(1372) 3월 정 몽주는 홍 사범(洪師範)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의 하례사(賀禮使)로 다녀온 바 있는데, 돌아오던 길에 회오리바람을 만나 홍 사범은 익사하고 정 몽주만 구사일생으로 섬에 표착(漂着)하여 30일 동안 말안장을 뜯어먹고 지냈다. 이 때 명나라 태조는 이 소식을 듣고 곧 배를 보내어 구해준 다음, 후하게 대접하고 귀국길을 도왔다.

1375년 우왕이 즉위하면서 정 몽주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는데, 이 당시의 정세는 김 의(金義)란 자가 명나라에서 온 사신 채 빈(蔡斌)을 암살하고, 이 인임(李仁任)등의 일파가 친원 정책(親元政策)을 펼 것을 주장하였던 때였다. 정 몽주는 박 상충, 김 구용 등 10여명과 함

께 우왕에게 글을 올려 친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렬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세력을 잡고 있던 이 인임 일파는 반대 주장을 편 학자들을 모두 귀양보내게 하였으며, 정 몽주도 언양(彦陽)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 돌아왔다. 우왕 3년(1377) 3월 유배지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정 몽주는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일본과의 평화적인 교섭을 맡게 되었다. 나 흥유(羅興儒)가 일본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별다른 성과없이 돌아온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사행(使行)이라고 만류하였으나 정 몽주는 전혀 난색(難色)을 표하지 않았다. 곧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규우슈우 탐제를 만나 그간에 있었던 교린(交隣)의 이해(利害)를 들어 간곡히 말하니 규우슈우 탐제는 정 몽주의 당당한 태도와 인격에 경복(敬服)하여 후대하며 왜구의 노략질을 금하게 할 것을 다짐하였다. 정 몽주가 일본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시 일본의 지식층 계급이던 승려(僧侶)들은 그의 시를 구하기 위하여 쉴새없이 몰려들었는데 선 자리에서 그들의 주문을 척척 받아 넘기므로 그들은 더욱 탄복하였으며, 날마다 견여(肩輿)에 정 몽주를 태우고 명승지에 안내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듬해 7월 고려로 돌아올 때 정 몽주는 규우슈우 탐제에게 그 동안 왜구에 의해 붙잡혀 왔던 윤 명(尹明), 안 우세(安遇世) 등 수백 명을 데리고 함께 귀국하도록 간청하였는데, 탐제는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고국에 돌아온 정 몽주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억류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여러 대신들에게 각각 얼마씩의 사재(私財)를 내게 하고, 그것으로써 억류된 사람들의 귀환을 교섭하도록 윤 명을 규우슈우에 보냈다. 탐제인 이마가와는 정 몽주의 간곡한 글에 크게 감동하여 다시 백여명을 돌려 보내 주었으며, 그 뒤에도 윤 명이 다녀올 때 마다 반드시 여러 사람들을 딸려 보내었다.

한편, 우왕이 즉위하면서 사신 채 빈이 살해되고, 이 인임 일파가 친원 정책을 들고 나서자 명나라는 고려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

왔다. 사신을 죽인 데 대해서는 집정 대신(執政大臣)이 친히 내조(來朝)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세공(歲貢)의 액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등 고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를 이행치 않으면 전함(戰艦) 수천과 정병(精兵) 수십만을 보내어 정벌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였다.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진 고려는 점차 친원의 방향으로 국정을 돌리고자 하였으나, 명나라의 위협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사신을 파견하면 명나라에서는 이들을 붙잡아 구금하거나 유배보내기가 일쑤였다. 따라서 고려의 조신(朝臣)들은 누구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기를 회피하였다. 마침 우왕 10년(1384) 조정에서는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앞두고 하성절사(賀聖節使)로서 진 평중(陳平仲)을 보내려 하였는데, 그는 권신(權臣) 임 견미(林堅味)에게 뇌물을 주어 회피하였다. 결국 정 몽주가 그를 대신하게 되었다. 우왕이 정 몽주를 불러 의향을 묻자 정 몽주는 "군부(君父)의 명이라면 물불이라도 피치 못할 일이온데 하물며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일임에야 어찌 받들지 않겠읍니까."하며 기꺼이 수락하였다. 정 몽주는 그날로 길을 떠나 밤낮으로 항해(航海)를 계속한 끝에 생일 전에 도착하여 축하의 글을 올릴 수 있었다. 명나라 황제는 지난번 그가 사절로 온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정 몽주는 돌아가는 길에 난파(難破) 당하여 고생한 일을 이야기하며 고려의 정세를 일일이 설명하였다. 황제는 정 몽주의 성실한 태도에 크게 감동하고는 각별히 우대하여 보냈다. 이 뒤로 두 나라 사이에는 다시 국교(國交)가 열리게 되었다. 정 몽주는 2년 뒤에 또다시 명나라에 건너가 고려 군신(君臣)의 조복(朝服)과 편복(便服)을 청하고 아울러 세공(歲貢)도 감해 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정 몽주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5년 동안의 미납분(未納分)을 면제하고 이미 결정한 세공도 삭감하여 주었다. 그가 외교에 성공하고 돌아오자 우왕은 매우 기뻐하며 의대(衣帶)와 안마(鞍馬)를 하사하고 문하 평리(門下評理)의 벼슬을 주었다.

우왕 3년(1387)에서부터 공양왕 4년(1392)에 걸쳐 예문관·집현관의 대제학,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등 여러 관직을 지내고, 영원군(永原君)·충의군(忠義君) 등의 품계까지 제수받았던 정 몽주는 이 기간 동안 고려 말엽의 문란한 정치 풍토와 제도, 관습 등을 바로잡고자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사업을 단행하였다. 우왕 3년에는 그 당시까지도 몽고풍의 제도와 풍습, 관료들의 의복 등을 명나라의 제도에 맞추어 입도록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권세있는 관료들이 백성들의 전답을 강제로 차지하는 등 토지 제도의 병폐가 심하자 사전(私田)의 개혁을 주청(奏請)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케 하였다. 또한 수도인 개성의 5부(五部)에는 각각 학당(學堂)을, 지방에는 향교(鄕校)를 세워서 유학 진흥을 촉진하고 사회 윤리와 도덕의 확립을 꾀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국시로 숭상하면서 신봉해 왔던 불교가 고려 말엽에 이르러 적지 않은 문제점을 일게 하자 불교 문화에 집착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교 문화를 이룩함으로써 혼돈된 사회를 개선 하고자 한 사람도 바로 정 몽주였다. 그는 불교 의식에 따르던 관혼 상제의 제도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실시하도록 힘썼다. 공양왕 4년(1392) 2월에는 그 동안의 법령에 《대명률(大明律)》, 《지정조격(至正條格)》을 참작해서 《신율(新律)》을 새로 만들어 문란해진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신율》은 6일간에 걸쳐 공양왕에게 진강(進講)되는 정도로 그쳤으나 그 내용을 살펴본 공양왕은 치밀하고 정확함에 감탄하였다 한다.

공양왕 4년(1392) 우왕·창왕·공양왕을 추대 하는데까지 뜻을 같이하였던 이 성계 일파가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말엽의 어지러운 정세를 바로잡고자 했던 의도와는 달리 고려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정 몽주는 이 숭인(李崇仁)·이 종학(李鍾學) 등 여러 충신과 함께 그들을 제거할 것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문신들로만 구성된 정 몽주 일파는 이 성계의 무력과 그들에게 이미 기울어진 민심에 맞서 계획하던 일을 성사시킬수 없었다. 기울어

져가는 고려 왕조를 다시 부흥하고자 기회를 엿보던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은 이 성계 일파에 의해 유배되었거나 참살당하였으며, 정 몽주는 이 성계의 아들 방원(芳遠)이 보낸 자객에 의해 선죽교 부근에서 타살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56세였다.

이와 같이 기울어져가는 고려 왕조 속에서 정치, 외교면에서 뛰어난 공을 세웠던 정 몽주는 실제 군사 방면에서도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즉 우왕 6년(1380)에는 조전 원수(助戰元帥)로서 이 성계를 도와 전라도 운봉(雲峯)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으며, 우왕 9년(1383)에는 길주(吉州)에서 여진족을 격퇴시킨 일이 있다. 또한 정 몽주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 추앙되었던 만큼 학문적 업적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학통(學統)은 길 재(吉再)를 거쳐 조선조에 들어와서 김 숙자(金叔滋)·김 종직(金宗直)·김 굉필(金宏弼)·조 광조등에게 계승되었다.

정 몽주의 충절과 위대한 업적은 그가 죽은 지 9년 후에야 비로소 인정 되었는데, 조선조 태종이 즉위하던 해(1401)에는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와 함께 익양 부원군(益陽府院君)의 훈작이 내려졌으며, 태종 6년(1406) 3월에는 개성의 풍덕(豊德)에 초장(初葬)하였던 묘소를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기슭으로 옮겨 부인 경주 이씨와 합장하였다.

현재 용인에 전해지고 있는 유물 유적으로는 영모당(永慕堂)과 충렬 서원, 영정 2점, 친필 등이 있고, 숙종의 어제 어필(御製御筆)로 된 현액(懸額)등이 있다.

남곡에 은거하며 절의를 지켰던

이 석지(李釋之)

(고려 충숙왕—조선조 태조)

영천(永川)／./남곡(南谷)

이 석지는 영천 이씨(永川 李氏) 남곡공파(南谷公派)의 시조로, 고려 충숙왕 때 판도판서(版圖判書) 흡(洽)과 영천 윤씨(尹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애에 대해선 행장과 같은 구체적인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그와 절친한 친구였던 목은(牧隱) 이 색(李穡)의 〈남곡기(南谷記)〉를 통하여 대강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일찌기 목은의 부친인 가정(稼亭) 이 곡(李穀)의 문하에서 수학한 이 석지는 목은과 함께 고려 충혜왕 3년(1347)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충목왕 3년(1347)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경상도 안렴사(按廉使) 등을 지냈다. 정언으로 있을 때 이 석지는 목은을 비롯하여 여러 학사들과 함께 조정에서의 옳지 못한 일을 간하다가 재상들의 거슬림을 받아 외직으로 좌천된 바 있는데, 자신이 외직으로 좌천되어 있음에도 그곳 백성들에게 베푼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을 정도였다 한다. 그 후에도 직언(直言)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에 걸쳐 외직으로 부임되어 적지않은 고난을 겪었으며, 매번 다시 기용되어서도 자신의 뜻을 소신껏 펴며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벼슬은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에 지나지 않았다.

1392년 이 성계의 일파에 의해 새로운 국가로서 조선이 개국되자

이 석지는 고려말의 여러 충신들과 뜻을 같이하여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을 고집하였다. 그러다가 두문동에까지 화가 미치자 지금의 용인군 내사면 남곡(南谷)으로 옮겨와 은거하였다. "산에 가면 나물을 할 수 있고, 물에 가면 낚시질 할 수 있어 세상에서 다른 것을 구할 것 없는" 신선의 경지와 같은 남곡에 은거하면서 오직 시와 자연만을 벗하며 살던 이 석지의 모습을 목은은 〈남곡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금 선생은 남곡에 살면서 토지와 가옥이 있어 관혼빈제(冠婚賓祭)에 쓸 비용이 충분하니 세상의 명리에 무심한지 오래였다. 그러나 은자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서울로 올라와 친지를 방문하고 마음껏 술을 마시며 담소한다. 서울을 오가는 도중에는 초라한 동복(童僕)과 여윈 말에 채찍을 들고서 시를 읊는데 수염은 백설처럼 희며, 붉은 뺨에는 광채가 있으니 만약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습을 그리게 한다면 삼봉연엽도(三峯蓮葉圖)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남곡에서의 은거 생활에 만족하며 벼슬과는 일체 무관하였던 이 석지는 겨우 3품에 이르는 정도의 지위에 머물고 말았으나, 당시의 문장가로 이름난 청성군(淸城君) 한 수(韓修)와 독곡(獨谷) 성 석린(成石璘) 등과 교유하며 시를 화답하던 인재이기도 하였다.

훗날 이 석지가 남곡에 은거하며 절의를 지키다 세상을 마치자 그의 후손들은 고려 말의 충신으로서 절의의 표상인 두문동 72현(杜門洞七十二賢)의 이름 속에 전해지는 그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정조 10년(1786) 광주 대치(大峙)에 사당을 지어 배향하였으며, 영천 이씨의 문중에서는 그를 남곡공파의 시조로 추앙하였다. 시문에도 능하였던 이 석지였으나 현재전하는 것은 자손을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싯구 하나, "사관 대각으로 가세를 이었으니, 만석궁을 쏘지 마라 너희에게 경계한다(史官臺閣連家世 戒爾彎萬石弓)"만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뿐이다.

이 석지가 내사면 남곡에 은거한 이후로 영천 이씨 문중에서는 뒤를 이어 이곳에서 머물렀는데, 그의 손자인 이 종검(李宗儉), 이 종겸(李宗謙)은 단종(端宗)이 폐위됨을 보고 벼슬에서 물러나 남곡에 효우당(孝友堂)을 짓고 은거하다 세상을 마쳤다. 이들의 묘소 역시도 이 석지와 함께 용인읍 고림리에 있으며, 내사면 주북리에는 남곡재(南谷齋)가 있다.

이 종무(李從茂)

(1360-1425)

장수(長水)／양후공(襄厚公)

이 종무는 우리 나라 역사상 왜구의 침범이 가장 잦고 그 피해가 컸던 시기라 할 수 있는 고려 말엽에서 조선조 초기에 걸쳐 한 평생을 왜구와 싸우다 간 장수라 할 수 있다.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운 속에서 공양왕 9년(1360)에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예(武藝)에 뛰어났으며, 고려 우왕 7년(1381)에는 14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친을 따라 강원도에 침범한 왜구를 소탕하는 싸움에 참여하였다. 이 싸움에서 이 종무는 부친을 도와 큰 공을 세웠으므로 14세의 나이에 벌써 정용호군(精勇護軍)이 되었다. 태조 6년(1397) 옹진 만호(甕津萬戶)로 재직하고 있던중 성 가까이 쳐들어와 포위하고 있는 왜구들을 격퇴하여 첨절제사(僉節制使)로 승진한 이 종무는 정종 2년(1400) 상장군(上將軍)으로 있으면서 박포(朴泡)가 태조의 네째 아들인 방 간(芳幹)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자 일으켰던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이듬해 익대공신(翊戴功臣)으로 책록되고 통원군(通原君)의 훈작을 받았다. 그후 남양, 수원 등지에서 발생한 싸움을 진압하는데 참여하였으며,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우군 총제(右軍摠制) 등 주로 외직을 맡아 일하였다.

태종 8년(1408) 봉호(奉號)를 장천군(長川君)으로 고쳐 불렀으며, 이듬해에는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태종 17년(1417) 좌참찬을 거쳐 판우군 도총제(判右軍都摠制), 의용위 절제사(義勇衛節制使) 등을 역임하였던 이 종무는 세종 즉위년에 삼군 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로 숭록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해에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고자 출정하였다.

고려 말엽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를 빈번히 침범해 왔던 왜구들은 세종조에 들어와 그 횟수가 더욱 많아지고 피해가 늘어만 갔다. 1418년에 대마도주 종 정무(宗貞茂)가 죽고 그의 아들 종 정성(宗貞盛)이 뒤를 계승하면서부터 대마도에 흉년이들어 식량이 부족하자 왜구들은 우리 나라 뿐만아니라 명나라 해안까지 침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인(庇仁)과 해주(海州) 해안에서 특히 심하였다. 세종 즉위년(1419) 5월 대마도의 새로운 도주로 종 정성이 계승한 이후로 침범이 자짐을 염려하여 세종은 유 정현(柳廷顯), 박 은(朴訔), 조 말생(趙末生) 등을 불러 의논한 다음 이 종무로 하여금 삼도 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로 임명하고 전라·충청·경상도의 전함 2백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삼도 도통사(三道都統使) 유 정현과 더불어 대마도를 정벌케 하였다. 이들이 대마도 정벌을 나설 때 세종은 한강에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한다. 대마도 정벌의 임무를 맡은 이 종무는 3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를 거느리고 전함 227척, 군사 1만 7천여명과 함께 거제도의 마산포(馬山浦)를 떠나 대마도로 진격하였다. 이 당시 일본은 구주(九洲)의 제후들을 동원하여 대마도를 방어하게 하였으나 이 종무의 원정군은 대마도에 상륙하여 적선 1백여척을 빼앗는 등 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부터 왜구의 침입은 뜸하게 되었다.

대마도을 정벌하고 7월에 이 종무 등이 수군을 끌고 거제로 개선하여 돌아오자 세종은 오 익생(吳益生)에게 명하여 법주(法酒 : 임금이 하사하는 술)를 가지고 가서 위로케 하였다. 8월에 서울에 도착하자 세종은 다시 이 종무 등을 낙천정(樂天亭)으로 영접하여 위로하고 친히 여러 장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대마도를 정벌한 공로로 이 종무는 찬성사(贊成事)를 제수받았으나, 얼마 안있어 대마도

정벌시 김 훈(金訓)·노 이(盧異) 등과 같은 불충한 자를 정벌군에 편입시켰다는 대간들의 탄핵으로 삭직되고, 상원(祥原)에 유배되는 변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그를 미워하는 무리들의 무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듬해에 복직되었으며, 세종 3년(1421)에는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으로 봉하여졌다.

세종 7년(1425) 이 종무가 66세로 일생을 마치자 조정에서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양후공(襄厚公)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그의 시신은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산 79번지 광교산(光敎山) 기슭에 안치되었다.

대외 외교 활동으로 이름을 떨친

박 원형(朴 元亨)

(1411—1469)

죽산(竹山)／지구(之衢)／
만절당(晩節堂)／문헌공(文憲公)

박 원형은 병조 참의를 지낸 고(翱)의 아들로, 태종 11년(1411) 지금의 용인군 외사면 옥산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였던 그는 4세 때 유모가 이웃 집에서 글읽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도 자라서 저렇게 글을 잘 읽었으면 좋으련만"하고 말하였더니, 이에 "남들도 다하는 것을 나라고 못할까. 걱정마세요"라고 대답하여 유모를 놀라게 하였다 한다.

세종 14년(1432)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2년 후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한 박 원형은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지제교(知製敎) 등을 역임하였으며, 세종 21년(1439)에는 사헌부 감찰(監察)에 있으면서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때 같이 수행하였던 사신들은 그가 평소 일을 처리함에 있어 너무나 청직(淸直)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곤 하였다. 또한 매사에 빈틈이 없어 조정 대신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그는 병조 좌랑으로 있을 때, 마침 국가에서 성을 쌓는 일에 몰두하였으므로 그의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조 판서인 정 연(鄭淵)의 상소로 다시 머물러 있게 되었다. 판서인 정 연은 자신이 상관임에도 박 원형에게 각별히 대우하여 손님으로서의 예우를 해줄 정도였다. 세종 대왕도 그의 청직을 신임하여 다른 대신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 일의 진상을 파악해서 듣곤 하였다. 한 때 박 원형이 세종을 호종하여 이천(伊川)에서 돌아올 때 행궁(行宮)이 있는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나므로 세종은 매우 놀라면서 그 사실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이때 박 원형은 "화전민들이 불을 잘못 놓아 불타고 있는 것"이라고 아뢰었다. 이날 밤 세종은 박 원형을 침전에까지 불러들여 "나는 내가 빈번히 행차함을 백성들이 싫어하여 불을 지른 것으로 알고 매우 걱정하였는데, 그대의 말을 듣고서야 믿어지게 되고 안심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박 원형이었기에 문종 역시도 세자로 있을 때부터 그를 극진히 예우하여 주었다. 일찌기 문종이 세자로 있었을 때 여러 신하들과 함께 달밤에 경회루 연못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문종은 이날 밤 숙직하고 있는 사복관(司僕官)을 불러 함께 즐기고자 소환케 하였다. 이때 마침 박 원형이 숙직으로 있다가 문종에게 소환되었는데 문종은 좌우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본시 함께 즐기고자 사복관을 불렀는데 지금의 경우는 다르니 어찌하면 좋은가" 물었다. 이에 "밤에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이니 함께 즐긴다 해도 혐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문종은 "이 사람은 임금께서도 예우하는 신하이니 내 어찌 자리를 같이하여 놀겠는가" 하며 물러가게 하였다 한다.

1455년 6월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양위(讓位) 받을 때 좌승지로서 공을 세웠던 박 원형은 도승지로 승진되고 추충 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의 훈작을 받았다. 그럼에도 평소 청빈(淸貧)한 생활을 고집하였던 그의 집안 형편은 도둑이 들어와서 갖고 갈 물건이 없어 그냥 되돌아올 정도였다. 그의 이같은 생활을 들은 세조는 민망하게 여기며 "집안이 본래 청한(淸寒)하더라도 이후로는 그럴 수가 있겠는가"하며 채단과 집 한 채를 내려 주었다. 이 해 10월에는 가정 대부(嘉靖大夫)로 제수하고 이조 참판으로 임명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하였으며 연성군(延城君)으로 봉했다. 세조 3년(1459) 자헌 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로 승진한 박 원형은 이 해에 원접사(遠接使)로 임명되어 명나라

영종(英宗)이 다시 즉위하고 연호를 천순(天順)으로 쓰게됨을 알리기 위하여 온 중국의 사신 진 감(陳鑑)·고 윤(高潤) 등을 맞이하였다. 이때 능숙한 외교 수완으로 그들을 접대하였던 박 원형은 진감으로부터 "그대 같은 재주는 춘추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마땅히 숙향(叔向)과 자산(子產)에 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극찬을 받았으며,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국경까지 배웅나온 박 원형의 손을 잡고는 "옛 사람은 천리 밖에서도 서로 정신적으로 교우를 하였는데, 하물며 그대와 나는 몇 달을 두고 함께 사귀었음에랴"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다. 헤어지며 시를 지어 서로 선물하였는데 진 감은 박 원형의 시를 보고는 또 다시 감탄하여 "동방의 문사(文士)는 중국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후로는 중국에까지 박 원형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세조 5년(1459) 조정에서는 야인(野人)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관작을 주었는데, 이 일이 중국에 알려져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힐책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일이 매우 난처하게 되자 세조는 다시 박 원형을 원접사로 임명하여 접대하게 하고, 7월에는 주문(奏聞) 겸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가 중국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진 감과 고 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하며 매사에 힘써 도와주었다. 이듬해 야인의 일로 중국에서 다시 사신을 보내어 힐책하자 이때에도 조정에서는 박 원형을 원접사로 임명하여 중국 사신을 접대하게 하였으며, 일이 무사히 끝마쳐지자 그의 공을 높이 치하하며 숭록 대부(崇祿大夫)의 품계를 내려 주었다.

세조 7년(1461) 박 원형은 신병(身病)으로 해직시켜 줄 것을 상소하였으나, 세조는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조·예조판서 등을 제수하고 홍문관을 처음 설치한 이후로는 대제학까지 겸직케 하였다.

세조 10년(1464) 김 식(金湜)·장 성(張城) 등 중국의 사신이 오자 다시 원접사로 채택된 박 원형은 이들을 흡족하게 접대하여 돌려

보냈는데, 이에 감격한 김 식이 선물로 〈만절당(晩節堂)〉이라는 글씨로 써주고 장 성은 기(記)를 적어주자 박 원형은 이를 자신의 호로 삼았다.

세조 13년(1467) 여름, 함길도에서 이 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세조는 여러 장수로 하여금 나아가 진압케 하였으며, 진압 후에도 유언 비어가 나돌아 조정을 비난하는 자가 많으므로 박 원형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구휼(救恤)하고,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정비하는 등 모든 뒷 수습의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이같은 공으로 이듬해 3월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같은 해 4월 중국으로부터 강 옥(姜沃), 김 포(金浦) 등 사신이 내조(來朝)하자 이 때에도 박 원형은 원접사로 채택되어 그들을 맞이하였다. 중국의 사신들을 맞이하여 태평관(太平館)에서 연회를 베푼 다음 급히 보고할 사항이 있어 임금을 찾았는데 세조가 경의실(更衣室)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있음을 본 박 원형은 그 앞에서 머뭇거리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본 세조는 좌우의 신하에게 다시 관대(冠帶)를 입히게 한 다음 "나의 급암(汲黯)이 왔군"하며 맞아들여 사실을 들었다. 이렇듯 예법을 중시하였던 박 원형이었기에 주변 사람들 모두 그의 앞에서는 매우 신중하였다.

예종 즉위 후 강 순(康純)과 남 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룬 공으로 정난 익대공신(定難翼載功臣)에 책록된 박 원형은 신병으로 인하여 다시 해직하고자 하였으나, 세조의 장례에 따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허락되지 않았다. 이 해 정월 8일 찬성(贊成)으로 있던 그의 아들 안성(安性)이 생일을 맞아 술상을 차려 올리니, 박 원형은 즐거이 받아 마시며 시 한수를 불러 적게 하였는데,

오늘밤 등불앞에 한 순배 술을 들며	今度燈前酒一巡
네 나이 헤어보니 서른 여섯 청춘	汝年三十六靑春
우리집 보물은 오직 청백 뿐이니	吾家寶物惟淸白
이를 잘지켜 오래도록 전하여 주거라	好把相傳無限人

라는 내용으로 자손들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박 원형이 같은 달 22 일에 세상을 마쳤음을 보면 이 시는 그의 마지막 글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 원형의 부음을 들은 예종은 매우 애통해하며 3 일간이나 조회를 멈추게 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모든 장례의 절차를 돌보게 하였다. 그의 시신은 그가 태어난 외사면 옥산리에 안장되고, 뒤에 문헌공(文憲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문장과 글씨로 이름난 세조 때의 명신

이 석형(李石亨)

(1415-1477)

연안(延安)／백옥(伯玉)／
저헌(樗軒)／문강공(文康公)

이 석형은 태종 15년(1415) 좌의정으로 추증된 회림(懷林)과 춘천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인 회림이 늦게까지 자식이 없자 삼각산의 신령에게 빌어서 잉태하였다 하는데, 부친이 금성(禁省)에서 숙직하다가 꿈에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을 때 흰 용이 그 바위를 쪼개고 나오므로 놀라서 꿈을 깬즉 마침 시종으로부터 박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기별이 왔으므로 그의 이름을 석형(石亨)이라 하였다 한다. 태어날때부터 용모가 수려하며 기골이 장대하였던 그는 두뇌 역시 명석하고 총명하여 이미 14세부터 문장이 뛰어나 성균관 학사들에게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다.

세종 22년(1140) 이 석형은 26세의 나이로 생원·진사과 두 시험에 모두 장원하였으며, 이듬해 식년문과(式年文科)에서도 연달아 장원을 하였다. 예로부터 한 해에 세 번씩이나 장원한 예가 없었으므로 세종 대왕은 친히 정언(正言), 지제교(知製敎)에 임명하고 홍문관·예문관·성균관 등 삼관에 명하여 대궐문 밖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도록 하였으며, 궁녀로 하여금 삼장원사(三壯元詞)를 지어 노래부르며 술을 권하게 하였다. 이 때 중전은 손수 이 석형의 어의(御衣) 한 벌을 지어 내려 주었다.

급제하고 얼마 안 있어 사가독서자(賜暇讀書者) 선발 시험에도 뽑

힌 이 석형은 진관사(津寬寺)에서 사가독서한 후 집현전 부교리(副校理)로 임명되었다. 이때 정 인지 등과 함께 《치평요람(治平要覽)》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응교(應敎)로 승진되었으며, 세종 29년(1447)에 중시 대책(重試對策)에도 선발되었다. 여덟 명의 선발된 사람중에서 장원을 가리기 위하여 세종이 친히 팔준도(八駿圖)라는 제목 아래 문체는 임의대로 짓도록 고시하였는데 이 시험에서는 성 삼문이 장원하였다. 이 석형이 이 시험에서 장원하지 못하자 측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석형은 고시한 제목대로 전(箋)을 지을 적에 『하늘이 도와서 임금을 내셨으니 성인은 천년의 운수에 응했고, 땅 위에서 쓰이는 것은 말 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신물(神物)이 일시의 재능을 바치도다.』(天佑作之君 聖人應千齡之運 地用莫如馬 神物效一時之能)로서 첫 연(頭聯)을 삼았는데, 성 삼문은 "이번 과장에서는 두려울 것이 이 석형 뿐이라"하더니 그의 글을 보고는 "그대가 늙은 학구처럼 대구로서 재주를 부리려는가. 또 말(馬)을 임금과의 대구로 삼았으니 불가하지않은가"하니 이 석형은 그 말을 믿고서 전(箋)을 버리고 시를 지었다. 성 삼문이 이를 알고서 그 첫구를 훔쳐서 전(箋)을 만들어 첫 장원을 차지하였다. 이에 이 석형은 "이 무릎을 남에게 굽히지 않음이 오래되었는데……" 하니 성 삼문이 말하기를 "남에게 굽히지 않던 그대의 무릎을 내가 굽히게 하였지" 하였다 한다.

이 시험에 급제한 후 이 석형은 집현전 수직제학(守直提學)에 보직되었으며, 문종 1년(1451)에 직제학으로 승진되어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직하였다. 이때 정 인지등과 《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가 즉위하던 해, 즉 1445년에 14년간 재직하였던 집현전을 떠나 처음으로 외직인 전라 감사로 부임하였는 데, 이는 이 석형 자신이 자청한 것이었다. 평소 몸가짐이 단정하였으며 천성이 너그러웠던 이 석형은 공사(公私)에 엄정하여 사사로운 일로써 청탁하는 일이 없었

고 또한 다른 사람의 청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에게도 항상 검소하고 결백함을 가르쳤던 그였다. 그런데 세조가 즉위하게 되자 단종조의 충신이라는 점을 들어 그를 몰아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를 짐작한 이 석형은 그들의 세력이 커지기전에 아예 먼 시골로 내려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석형이 전라감사로 부임한 이듬해에 바로 사육신(死六臣)의 참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외직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옥사(獄事)에 연루되지 않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사육신의 죽음을 전해들은 이 석형은 그들의 절의를 가상히 여기고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순(舜) 임금이 창호산에 놀러갔다가 죽자 아황(娥皇)과 여영(女英) 두 왕비가 소상강에서 피눈물을 뿌리고 죽어 대나무가 났다는 고사와 진시황(秦始皇)이 태산에 놀러갔다가 도중에서 비를 만나 소나무 밑에서 비를 피한 후 그 소나무에 이품(二品)인 대부(大夫)의 벼슬을 주었다는 고사를 빌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우나라 때의 이녀죽이요	虞時二女竹
진시황의 대부송이로다	秦日大夫松
영욕의 차이 있을망정	縱是哀榮異
대와 솔 절개 어이 다르랴	寧爲冷熱容

이 석형을 꺼리는 어느 대간은 이 시를 트집잡아 불순하다고 고변하고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이 시는 시인으로서 영물(詠物) 한데 지나지 않거늘 굳이 국문할 필요가 있겠느냐"하고 불문에 붙혔다.

세조 2년(1456) 에조 참의가 되었던 이 석형은 이듬해 판공주목사(判公州牧使)로 나갔다가 세조의 총애를 받아 다시 한성부 부윤(副尹)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세조가 장차 서도로 순행할 때 황해도에 감사가 결원이 되었으므로 그 자리를 중하게 생각하여 특별히 이 석

형에게 명하여 가게하였다. 이 석형은 이튿날 곧바로 부임하여 세조의 행차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흠절이 없었으므로 세조는 이를 가상하게 여겨 계급을 뛰어 대사헌에 제수하였다. 이에 앞서 대관(臺官)이 조정에서의 잘못을 간하다가 죄를 입은 이가 많았는데 이 석형은 일을 의논하는 사체(事體)를 잃지 않고 소(疏)를 올려서 한 대신의 탐종(貪縱)을 탄핵하되 말이 매우 준절하였으므로 세조도 감탄하여 곧 불러들여 어탑에서 내려와 술잔을 주며, "대간(臺諫)들이 모두 그대와 같았더라면 내 어찌 좇지 않았으리요"하고는 그의 소(疏)를 좌우에게 보이면서 "이젠 아무도 탄핵 받은 대신을 덮어 주지 못하리라"하며 이 석형의 말을 허락하였다 한다.

그후 대사헌·중추원 부사·경기도 관찰사·호조 참판등을 지낸 이 석형은 7년간이나 한성부사를 지냈으며, 세조 12년(1466)에는 숭록대부(崇祿大夫)의 품계를 받았다. 세조가 죽던 1468년에는 고부 겸 청승습사(告訃兼請承襲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예종 1년(1469)에 보국 숭록대부(報國崇祿大夫)에 올랐고, 성종 1년(1470)에는 판중추 부사로, 그리고 이듬해에는 좌리 공신(左理功臣)의 훈작과 함께 연성부원군(延成府院君)에 봉하여졌으나 얼마 안있다가 벼슬에서 물러나 오직 시와 술을 벗하며 여생을 즐겼다.

성종 8년(1477) 이 석형이 63세의 나이로 세상을마치자 그의 부음을 들은 성종은 너무도 애통해한 나머지 조회(朝會)를 거두고 수라상의 반찬도 감했다 하며, 제사와 장례에 드는 비용을 의례에 맞게 치르도록 은전(恩典)을 베푸는 한편, 문강공(文康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한 해에 세 번 씩이나 장원하였던 이 석형은 뛰어난 문장력으로 《고려사》《치평요람》《역대병요(歷代兵要)》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저헌집(樗軒集)》 등 많은 책을 썼으나 현존하는 것은 그의 문집인 《저헌집》 2권 뿐이다. 또한 글씨에도 능하였던 그는 홍 경손(洪敬孫)이 성균관의 발원시(發願詩)에

서 "이 석형의 글씨와 조 계의 활쏘기, 이 인견의 젊음, 신 숙주의 눈, 이 문형의 얼굴, 손 차면의 양기를 한 몸에 지니고 등과하기를 항시 정 인지와 같게 하리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널리 인정받았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선 항상 청렴하고 검소한 것을 신조로 하여 가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뒷뜰에 조그만 띠집을 지어 〈계일(戒溢)〉이라 이름붙이고 스스로 〈넘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현재 이 석형의 묘소는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포은 정 몽주의 묘소 왼쪽에 부인 정씨와 함께 자리잡고 있으며, 인조 2년(1624)에 김 상용(金尙容)이 지은 신도비가 남아 있다.

27 세에 병조판서가 된 기개의 대장부

남 이(南怡)

(1441-1468)

의령(宜寧)／././충무공(忠武公)

기개(氣慨)와 호기(豪氣)의 대장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남 이는 의산위(宜山尉) 휘(暉)의 아들로 세종 23 년(1441)에 태어났으며, 태종의 외손이기도 하다. 그에 대해서는 출생·결혼·죽음에 이르기까지 남달리 특이한 점이 많으며, 이에 따른 이야기도 적지 않다. 우선 출생 에대해서도 그가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 조차 잘 알려져 있지않다. 그의 출생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규장각 소장의 《경기지(京畿誌)》나 《용인군읍지》의 용인현(龍仁縣)에 관한 기록 중 충효열 인물을 열거한 조항 중에,

〔신증 본조(本朝) 남 이〕 용기가 매우 뛰어났으며 이 시애를 토벌, 건주위를 정복하는 등 큰 공을 세웠다.(騎勇絕倫 討李施愛 征建洲衛 皆有大功)

라는 기록이 전부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 남 이가 용인 출신이었음을 가늠할 뿐이다. 또한 남 이는 당시 좌의정이던 권 람(權擥)의 네째 딸과 결혼하였는데, 이 결혼에 얽힌 일화가 《국조기사(國朝記事)》나 전설로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그가 27 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연소의 병조 판서가 되었다는 점과 이듬 해에 유자광(柳子光)의 모함으로 주살(誅殺)된 점 등은 그야말로 전설상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사람됨이 호협하고 기상이 출중했던 남 이는 17세 때 무(武科)과에 장원하여 세조(世祖)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으며, 세조 13년(1467) 이 시애(李施愛)가 북관(北關)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는 우대장(右大將)으로 임명받고 나아가 난을 진압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의산군(宜山君)으로 봉해졌다. 또 서쪽 변방으로 나아가 건주위(建洲衛)를 정벌할 때에도 선봉에 서서 싸워 큰 공을 세웠으므로 세조는 직위의 등급을 뛰어 병조 판서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건주위를 정벌하고 돌아올 때 지은 다음의 시는 현재까지도 널리 불려지는 작품이다.

백두산 높은 봉 칼갈아 다없애고	白頭山石磨刀盡
두만강 깊은물 말먹여 다 없애니	豆滿江水飮馬無
남아 이십세에 나라를 평정 못하면	男兒二十未平國
훗날 그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리	後世誰稱大丈夫

남 이 장군이 27세의 젊은 나이로 병조 판서에 오르자 그를 시기하는 자가 자연 많을 수 밖에 없었다. 한 계희(韓繼禧) 같은 이는 세조에게 비밀히 아뢰기를 "남이는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니 병권(兵權)을 줄 수 없읍니다"고 무고(誣告) 하였으며, 그 당시 세자이던 예종(睿宗) 역시도 남 이를 몹시 꺼려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고 얼마 안되어 남 이는 대궐 안에서 숙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하늘에 혜성(彗星)이 나타났다. 이를 보고 남 이가 동료와 더불어 말하기를, "혜성은 묵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펴려는 형성이다"하였다. 평소 남 이의 재능과 명성 그리고 벼슬까지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을 시기해온 유 자광 또한 이 날 대궐에 들어와 숙직하다가 벽을 사이에 둔 가까운 곳에서 그 말을 엿들었다. 곧 그 말에 거짓을 꾸미고 보태어 남 이가 비밀히 반역을 꾀한다고 예종

에게 알리니 이른바 〈남 이의 옥사(獄事)〉가 일어나고 마침내는 처형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남 이의 나이 겨우 28세였다. 이 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건주위를 정벌하고 돌아오면서 지은 〈기개가(氣槪歌)〉 역시도 이 때 화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순조 18년(1818) 남 이의 억울한 죽음이 신원(伸寃)되고 병조 판서의 관작이 다시 복구되었으며,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까지 내려졌다.

이렇듯 불과 28세의 짧은 생애를 살다간 남 이는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설적인 이야기와 몇 편의 한시, 그리고 북벌(北伐) 때 지은 다음의 시조 작품만을 남겼을 뿐 일생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

장검(長劍)을 빼어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일엽시잠(一葉鬐岑)이 월호(越湖)에 잠겼세라
언제나 남북 풍진을 헤쳐볼까 하노라.

야인 정벌과 삼포 왜란 평정의 명신

유 순정(柳順汀)

(1459-1512)

진주(晋州)／지옹(智翁)／./

무안공(武安公)·문성공(文成公)

유 순정은 세조 5년(1459) 광주 목사(牧使)인 양(壤)과 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후(溫厚)하고 마음이 너그러웠던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읽기를 좋아하여 늘 책을 가까이 하였으며, 성장하여서는 문장력이 뛰어나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글로써 발휘하였다. 일찌기 김 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같이 공부하던 여러 동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 늘 칭찬을 받았다. 또한 힘도 장사여서 백근이나 되는 만궁(彎弓)을 쏘아보이곤 하였는데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감히 그와 견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유 순정은 그같은 힘을 자랑하지 않고 감추며 더욱 남에게 공손하였다.

일찌기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서 일하였을 때에는 그의 재주와 명성이 여러 대신들 사이에서도 자자하였는데, 대신들은 성종(成宗)에게 주청(奏請)하여 그에게 선전관(宣傳官)을 제수하도록 하였으나 유 순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성종 18년(1487) 알성문과(謁聖文科)에서 장원으로 뽑힌 유 순정은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보직받고 일하던 중 함경도 북평사로 부임하였다. 이때 야인들은 그가 활 쏘는 것을 보고는 탄복하여 유 순정의 이름자를 따서 자식들의 이름을 짓기까지 하였으며, 그 자손들도 유 순정의 재주와 같게 되기를 빌곤 하였다 한다. 그 후 사복시주부(司

僕寺主薄)·홍문관 부수찬(副修撰)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차관(敬差官)으로 임명되어 전라도에 부임하였다. 이 때 유 순정은 침범이 잦은 왜적을 물리쳐 몰아내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공로로 다시 서울로 돌아와 수찬으로 승진되었다.

성종 22년(1491) 북방의 야인들이 빈번히 국경을 침범하자 조정에서는 야인들을 정벌하기 위하여 우의정 허 종(許琮)을 북정 도원수(北征都元帥)로 삼아 출정케 하였는데, 이때에도 유 순정은 허 종의 보좌관으로 활약하여 큰 공을 세웠다. 여기서의 공로로 유 순정은 의영고(義盈庫) 주부가 되었는데 대신들은 서로 다투어 그를 추천하며 말하기를 "유 순정은 문무(文武)를 고루 갖춘 동량재로 장차 재상이 될 인재인데 지금 나라에서 재주있는 사람을 고르면서도 이같은 이를 비천한 말단직에 있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고 하며 유 순정을 등용하기를 권하였다. 얼마후 유 순정은 평안도 북평사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모두들 "유 순정이 결국 발탁되지 않았구나"하며 말하자 유 순정은 화를 내며 "임금의 신하로서 어찌 관직을 택할 수 있겠는가"하며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실제 노모를 두고 멀리 떠날 수 없게되자 대궐에 나아가 상소를 올려 거둬주기를 세 번이나 청하였다. 이에 성종은 유 순정에게 "지금 평안도의 온 백성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터라서 그대를 보내려 함이요, 장차 그대를 크게 쓰고자 보내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하며 직접 어필(御筆)로 벼루집에다 유 순정의 이름자를 써서 하사하였다.

성종의 죽음과 때를 맞추어 부친상을 당한 유 순정은 연산군이 즉위하던 해에 상례를 마치고 종묘령(宗廟令)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곧 사간원 헌납(獻納)·훈련원 첨정(訓練院僉正)으로 임명되었는 데 이 당시 관서 변방에서는 한 백성이 야인들에게 내통하며 우리 나라의 지형과 병사가 주둔한 위치 등을 그려주고 기회를 보아 쳐들어 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조정의 여러 대신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모두들 "유 순정으로 하여금 처리케 하면 어떻겠는가"하며 망설이고

격정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이에 유 순정이 자청하여 나서서 그를 사로잡아 처벌하였다. 그러나 그가 공을 세우고 채 돌아오지 못한 사이에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다. 임 사홍 등 간신들은 김 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한 사람들을 모두 유배하거나 처형하였다. 유 순정도 김 종직의 문하로 이에 연루되었는데 마침 변방에 와 있는 터라서 병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해 화를 면하였다.

그후 홍문관 교리로 임명되었을 때 연산군이 전교(箭郊)로 행차한 바 있는데 여러 문신들 속에서 자신의 뛰어난 활 솜씨를 보였던 유 순종은 연산군의 마음에 들어 지난날 관서 지방에서 이룬 공로까지 포상받아 두 계급이 뛰어넘은 부응교(副應敎)에 제수되기도 하였으며, 평안도 병마사와 의주 목사, 형조·공조 참판 등을 지내고 이조 참판에까지 이르렀다. 유 순정이 이조 참판에 이르렀을 때 마침 임 사홍은 그의 상관인 판서에 있었다. 임 사홍은 지난 날 유 순정이 자신의 비행을 들추어 상소한 것을 유감으로 품고 그에게 보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책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유 순정의 도량이 넓고 인품이 뛰어난지라 임 사홍은 끝내 보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 순정에게 자신의 자리인 이조 판서직을 물려주었다.

연산군 10년(1504) 갑자 사화 이후로 연산군의 폐정과 유 자광·성 준·이 극균 등의 횡포가 심해지자 유 순정은 박 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 등과 함께 연산군을 몰아내고자 반정(反正)을 꾀하였다. 연산군 12년(1506) 9월 2일 중종 반정에서 공을 세운 유 순정은 정국 공신(靖國功臣) 1등으로 책록되고 청천 부원군(菁川府院君)의 훈작을 받았으며, 우의정 겸 병조 판서에 봉하여졌다. 그 후 이 과(李顆)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정난공신(定難功臣)으로 봉하여지고 좌의정이 되었다.

유 순정이 좌의정에 오른 이듬해인 중종 5년(1509) 삼포(三浦)에서는 왜란이 일어나 변방의 장수들이 살해되고 제포성(薺浦城)이 함락되었다. 이에 중종은 유 순종으로 하여금 도체찰사(都遞察使)로 군

무(軍務)를 지휘하게 하였으며, 난이 진압되지 않자 경상도 도원수(都元帥)로 다시 임명하여 직접 내려가 난을 평정케 하였다. 이 난을 진압한 공으로 유 순정은 영의정을 제수받았다. 중종 8년(1512) 54세의 나이로 영의정이 된 유 순정은 한 달 뒤에 병을 얻어 눕게되었다. 중종은 내의(內醫)를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으며, 여러 대신들도 줄을 이어 문안하였다. 그러나 병세는 거둬지지 않아 같은 해 12월 20일 세상을 마치기에 이르렀다. 유 순정의 부음을 들은 중종은 애통해 한 나머지 조회도 3일간이나 철폐하였으며, 내전(內殿)으로 하여금 그의 식구들을 위로하게 하고 장례에 드는 비용을 돕게 하였다.

평소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여 다른 사람들로터 미움을 받은 바 없는 유 순정은 힘이 장사일 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뛰어나 4.6 변려문체의 시문(詩文)은 당시 여러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정도였다. 그가 병사한 직후 중종이 내려준 무안공(武安公)이라는 시호를 훗날 문성공(文成公)으로 바꾼 것은 그가 문신으로서도 명성이 높았음을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현재 유 순정의 묘소는 모현면 일산리에 있으며, 그의 18대 후손인 유 주현(柳周鉉)씨 집에 영정(影幀)이 전해지고 있다.

박 은(朴誾)

(1479-1504)

고령(高靈)／중렬(仲說)／읍취헌(挹翠軒)

읍취헌은 박 은은 성종 10년(1479) 기해생(己亥生)으로 태어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 사화 때 불과 26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친 천재적인 시인이요 지사(志士)이다. 고령(高靈) 용담촌(龍潭村)에서 한성부 판관 담손(聃孫)과 경주 이씨 사이에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나 범상치 않았다고 한다. 그의 묘지명에 의하면 신골(神骨)이 투철하며 눈썹이 그림같아 바라보면 속세에 사는 사람 같지 않았으며, 이미 4세 때 책을 읽을 줄 알았다고 한다. 8세 때에는 대의(大義)를 통했으며, 15세에 이르러서는 문장으로 널리 명성을 얻어 당시 대제학으로 있던 신 용개의 사위가 되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최 부(崔溥)와 김 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한 그는 총명하고 기억을 잘 하여 고금 인물들의 기절(氣節)의 높고 낮음부터 사업의 순박(醇駁)함, 문장의 정변(正變), 예문(禮文)의 손익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 박학하였다.

17세가 되던 을묘년(1495, 연산군 1년)에 진사가 되었고, 이듬해인 병오년에는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이때 어린 나이에 쉽게 급제하였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늘 자신의 실력을 부족한 듯 여기어 교만하지 않았다 한다. 이해 12월 조정에서는 우수한 학사들을 선발하여 용산(龍山)에 있는 독서당(讀書堂)에서 사가독

서(賜暇讀書)케 하였는데 이 시험에도 선발되어 장인인 신 용개를 비롯 김 일손(金馹孫) 남 곤(南袞) 등 14명과 함께 사가독서하였다. 마침 이 때에 천변(天變)이 있어 여럿이 봉사(奉事)를 올려 시정 10여조(時政十餘條)를 논하였는데 박 은이 올린 글이 가장 절실하여 비록 그것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학사들이 모두 흡족해 하면서 칭찬 하였다. 또한 천추사(千秋使)를 따라 중국에 갔을 때는 그가 중국의 음운(音韻)을 물음에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므로 가볍게 여기다가 그의 글을 보고서야 놀라며 기재(奇才)라 감탄하였다한다.

박 은은 급제한 직후 승문원 권지(承文院權知)를 보직 받았는데 얼마 안가서 홍문관에 선발되어 정자(正字)가 되었다. 그 후 다시 네차례나 자리를 옮겨 수찬(修撰)에 있으면서 경연관(經筵官)을 지냈다. 경연관으로 있을 때 늘 마음과 행동을 옛 사람들의 행적과 같이 하기를 다짐하고 반드시 치란(治亂)과 득실(得失)을 지적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적절하여 경계되는 바가 많았다 한다. 그리고 일에 임해선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솔선하여 잘못됨을 말하고 다른 일을 구실로 피하는 일이 없었다.

일찌기 홍문관의 관원들이 서쪽 변방에 성을 쌓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고 간하다가 권신의 뜻을 거슬러 신문을 당한 적이 있었다. 마침 박 은은 부친을 뵈려고 지방에 갔다가 뒤늦게 조정에 돌아와 이 사실을 들었다. 곧 그날로부터 관원들을 신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진술하여 날마다 서너 번이나 상소를 올렸는데 그 말이 모두 격렬하였다. 열흘이 지나도 상소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같은 동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만류하였다. 이에 박 은은 분연히 말하기를 "화와 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어늘 내 어찌 그것을 염의하리오.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할 것은 충성이니 나의 도리를 다하다가 화를 입을 지언정 두려울 것이 없다"하고 더욱 힘써 간하였다. 마침내 연산군이 들어주었다. 이로 인하여 직언(直言)을 잘한다는 명성이 조정에 자자했으나 한편에서는 그를 시기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20세가 되던 해(1498, 연산군 4년)에는 무오 사화로 김 종직을 비롯한 사림들이 옥사(獄死)를 면치 못하였으며, 사화의 단서가 된 이극돈도 수사관(修史官)으로서 문제의 사초(史草)를 보고도 알리지 않았던 이유로 파직되자 유 자광(柳子光)의 위세는 더욱 떨쳤다. 따라서 사림은 모두 사기를 잃어 그의 뜻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박 은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들과 맞서 줄곧 연산군에게 상소하였다. 그가 23세 되던 연산군 7년에는 유 자광의 간사함을 낱낱이 상소하고, 또 성 준이 유 자광에게 아첨한다고 탄원하였다. 이에 성 준 등이 크게 노하여 조정에 나아가 논하기를 청하고 홍문관원이 하관(下官)에 있으면서 장관(長官)인 자신을 부질없는 말로 비난하는 것이라고 연산군에게 고했다. 평소 박 은이 직언을 잘 함을 꺼려오던 연산군은 다른 일을 연관시켜 박 은은 물론 그의 동료들까지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였다. 성 준, 유 자광 등 지시를 받은 옥관(獄官)들이 박 은을 더욱 가혹하게 대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고 바른말을 하자 다시 연산군에게 고하여 이해 12월 13일 〈사사불실(詐似不實)〉이라는 죄목으로 파직시켰다.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박 은은 죄가 없는데 교묘하게 죄를 얽어서 파면시키는 데 이르렀다고 애석하게 여겼다. 이 사건은 박 은이 경연관으로 있은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을 때의 일로 그의 생애에 있어 일대 전환기가 되었다. 파직된 이후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고 오직 자연속에 묻혀 시와 술로써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가 25세 되던 해, 즉 계해년(1503, 연산군 9년)에 이르러서는 이같은 불우함에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해야했다. 이해 3월 16일에 아내 신씨가 겨우 백일도 안되는 막내 아들 동숙(同叔)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신씨의 나이 25세였다.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남편의 뜻을 어길까 두려워하며 극력으로 내조를 하던 고령 신씨의 죽음은 더없는 불행이었다.

다음 해인 갑자년(1504, 연산군 10년) 봄에 박 은은 다시 지제교

(知製敎)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가 벼슬에 나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박 은은 다시 관록을 받게 됨을 꺼리며 자신의 뜻과 세상일이 서로 맞지 않음을 탄식할 뿐이었다.

갑자년에 이르러 유 자광을 비롯한 간신들과 연산군의 횡포가 더욱 심하여졌고, 사림들은 그들의 비행을 맹렬히 상소하였다. 사태가 악화되자 연산군은 언로(言路)를 막으려고 일부러 예전에 있었던 일을 들추어 그 주동자를 고문하고 처형하였으며, 이미 죽은 자에겐 부관참수(部棺斬首)까지 단행하였다. 이 같은 화가 박 은에게도 미쳤는데 유 자광은 그가 홍문관 수찬으로 있을 때 연산군이 날마다 사냥을 하다가 밤늦게 들어옴을 개탄하며 연명(聯名)으로 상소한 바 있음을 거론하여 논죄하고, 그 주동자가 박 은이었다고 연산군에게 고했다. 이에 연산군은 거론된 인물 중 장 순손(張順孫)이 가장 상관으로 그 주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박 은이 직언을 잘 했음을 미루어 그에게만 책임을 두고, 4월 2일 동래로 귀양보냈다. 유배당한지 백일도 채 못되어 다시 서울로 압송하여 논죄하였으나, 박 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끝내 굴복하지 않자 연산군은 분노하여 박 은을 군기시(軍器寺) 앞 거리에서 모든 관료가 보는 가운데 효수(梟首)하고 〈거짓 충성으로 스스로 안락하고자 하였으며 신진이 감히 장관을 업신여겼다(詐忠自安 新進侮長官)〉는 죄명을 써서 목에 걸게 하였다. 이 때 박 은은 죽음에 임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다만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두번 웃을 뿐이었다.

연산군이 박 은을 미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죽은지 4일 후인 6월 19일에 의금부로 하여금 그의 친구들을 찾아내어 곤장을 쳐서 유배토록 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전교를 내려 박 은의 시체를 들판에 내버려 폭쇄케 한 다음 평지와 같게 묻도록 하였다. 또한 연산군 11년(1505)에는 추질(追疾)하여 〈음사해인(陰邪害人)〉이라는 죄목을 추가시켰다.

박 은의 시체를 거두어 내사면 식금리에 있는 묘소에 고령 신씨와 합

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종 즉위 후 그의 죄가 신원되고 도승지로 추증된다음 해, 즉 화를 당한지 3년만이었다.

읍취헌 박 은은 16세기 중엽 한시 문단에서 용재(容齋) 이 행(李荇)과 함께 거벽으로 추숭된 천재적인 시인이었다. 불과 26세를 일기로 갑자사화의 희생자가 된 그는 시운(時運)을 타지 못한 불우한 시인이었으나 술과 시를 일상의 낙으로 삼고 비교적 많은 작품을 남겼다. 갑자사화때 가산과 함께 많은 시작품이 불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의 문집인 읍취헌유고에 전해지는 작품만도 240여 수에 달한다. 그 중 《속동문선(續東文選)》에 수록된 작품도 63편에 이르고 있어 그의 시재(詩才)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시재를 일러 서포(西浦) 김 만중(金萬重)은 "읍취헌의 재주는 실로 사백년에 한 사람 날 정도였다."고 격찬하였으며, 중국인들도 그를 기재(奇才)라고 감탄하였다.

현재 그의 묘소가 있는 식금리 마을 입구에는 전국시가비 건립동호회에서 1984년 6월 10일, 그가 화를 당한지 여덟 번 째의 갑자년을 맞이하여 세운 읍취헌 시비(挹翠軒詩碑)가 세워져 있다.

사은정(四隱亭)에 개혁의 뜻을 남긴

이 자(李耔)

(1480-1533)

한산(韓山)／차야(次野)／음애(陰涯)·몽옹(夢翁)·계옹(溪翁)／문의공(文懿公)

이 자는 조선조 중종 때의 명신으로 조 광조와 함께 개혁 정치를 주창(主唱)하였던 기묘 명현(己卯名賢)중의 한 사람이다. 성종 11년(1480) 대사간 예견(禮堅)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의 임소(任所)를 따라 영남(嶺南), 관동(關東) 등 각지에서 성장하였다. 일찌기 주 계군(朱溪君) 이 심원(李深源)의 문하에서 수학한 이 자는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매사에 신중하였다. 그가 14세 되던 해에는 삼척의 중대사(中臺寺)에서 경사(經史)를 공부하였는데, 송사(宋史)를 탐독하다가 돌연 당시의 국정이 연산군의 폐정과 간신들의 전횡으로 어지럽혀짐을 개탄하며, 만언소(萬言疏)를 지어 올리고자 하였으나 대사간으로 있던 부친의 만류로 억제하였다 한다.

연산군 7년(1501) 22세의 나이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연산군 10년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던 이 자는 감찰(監察)을 지내던 중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이조 정랑(吏曹正郞)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자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연산군의 폐정 하에서 마지못해 봉직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곤 하였다. 대사간의 관직에 있던 부친이 연산군의 미움을 사 성주 목사로 좌천되었을 때에는 부친을 봉양한다는 구실로 자청하여 외직인 의성 원(義城院)에 부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506년 중종

반정과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와 홍문관 교리(校理)가 되었다. 그리고 중종 9년(1514)에는 사간(司諫)등 여러 관직을 거쳐 부제학에까지 이르렀다. 이때부터 이 자는 조 광조와 함께 그동안 부패되었던 정치적 풍토를 쇄신하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이상주의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 하나 개혁을 단행하였다.

중종 13년(1518)에는 종계변무 주청부사(宗系辨誣奏請副使)로 임명되어 한 충(韓忠), 남 곤(南袞)등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 당시 남 곤은 명나라 땅에서 매우 심한 병에 걸렸는데, 한 충은 그의 간사함을 미워하여 이 자에게 말하기를 "저 놈이 죽지 않으면 반드시 선비들의 씨를 없애고 말 것이다"하며 죽도록 내버려 두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자는 "이 간사스러운 인간이 죽는 것은 애석하지 않으나, 다만 만리 타국에 함께 와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어찌 구원하지 않겠는가"하며 정성스럽게 간호하여 낫게 하였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 이 자는 우참찬(右參贊)에 올랐으나 이 해에 조 광조의 과격한 개혁 정치에 불만을 품었던 훈구 대신들이 일으킨 이른바 기묘 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이 때 이 자가 조 광조와 함께 개혁 정치의 주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같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되지 않고 파직되기만 한 것은 명나라에서 남 곤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기묘 사화로 파직된 이 자는 음성(陰城)·용인·충주 등 지에 은거하며 일체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오직 시와 술을 벗하며 여생을 보냈다. 이 당시의 생활을 이 자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묘년에 쫓겨난 이후로 음애(陰涯)에서 살며 일체 인사를 끊고 시를 읊어 회포를 풀며, 때때로 술이 생기면 마음껏 마시고 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토계(兎溪)로 옮기니 인적이 멀고, 마을 집이 적으며 산은 높고 깊었다. 종일 산책하면서 물새와 산 짐승으로 벗을 삼아 오락 가락 하였다. 탄수(灘叟) 이 연경(李延慶)과 가까이 살고 있었

으므로 청풍 명월을 따라 일엽 편주로 서로 찾곤 하였다. 〈음애집 자서(陰涯集自序)〉

이처럼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여생을 보냈던 이 자는 중종 28년(1553)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치었다.

그의 제자인 노 수신(盧守愼)이 지은 행장(行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자는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하여 불의를 보고는 종일토록 분개하며 반드시 시정하고자 하였던 인물로, 비록 자신의 뜻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타고난 성품과 도량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학자였다. 그리고 이 자 자신은 "나의 성질은 사람을 널리 사랑하였으나 남들이 친해주지 않고, 후하게 베풀되 남들이 잘 따르지 않으며, 선을 좋아하되 두텁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되 용기가 없어 한 세상을 그럭 저럭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가 남에게 끼친 덕은 매우 두터운 것이었다. 남 곤에게 베푼 어진마음 이외에도 자신과는 동서(同婿)간이요, 같이 주계군의 문하에서 수학한 김 안로(金安老)가 자신이 중종의 총애를 받음을 시기하여 해칠 마음까지 갖고 있었음에도 그를 너그러이 용서하며 오히려 더욱 후하게 대접하였던 이 자였다. 따라서 김 안로도 겉으로는 감히 멸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한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처럼 너그러웠던 이 자였지만 공적인 일에 있어선 매우 엄격하였다. 또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선 반드시 중용의 도를 잃지 않았던 그였다. 조 광조가 훈구 대신들의 위훈(偉勳)을 삭제하는 등 과격적인 개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급기야는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 조 광조에게 중용을 택할 것을 권고한 사람도 바로 이 자였다.

이 자가 죽은 지 6년 뒤에야 중종은 기묘 사화의 진상을 알게 되고, 뒤늦게나마 그 당시 화를 입었던 학자들에게 각각 벼슬을 추증하였는데 이 자에게는 예전의 관직대로 복귀시키도록 명하고, 문의공(文懿公)이라는 시호와 함께 그의 묘소가 있는 용인군 기흥면 지곡리

부아산(負兒山)일대의 땅을 사패지로 하사하였다.

현재 그의 묘소가 있는 지곡리 하동 마을에는 아직도 그가 조 광조·조 광좌(趙光佐)·조 광보(趙光輔)와 함께 은거하며 학문을 강론하던 사은정(四隱亭)이 자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중수되어 남아있으며, 용인의 명유(名儒) 도암(陶菴) 이 재(李縡)가 이곳에 들려 그들의 자취를 회고하며 지은 다음의 시가 전하여지고 있다.

정암사 밖엔 들꽃 한가로이 피어있고	靜菴祠外野花悠
가는 길 바위를 감돌아 산 더욱 깊은데	細逕縈回岩更幽
흐르는 물에 문득 그림자 드리워지니	流水忽驚成自影
청산도 저절로 전날 놀던 일 아는 듯하네	靑山應自識前遊

사화(士禍) 속에 진 철인 정객(哲人政客)

조 광조(趙光祖)

(1482-1519)

한양(漢陽)／효직(孝直)／
정암(靜庵)／문정공(文正公)

조 광조는 성종 13년(1482) 서울에서 사헌부 감찰을 지낸 원강(元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뛰어나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던 그는 이미 다섯 살 때부터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른스러웠으며, 특히 예법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였고, 비록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를 지적해 바로잡고자 하던 곧은 사람이었다 한다.

어릴 때부터 글을 읽기 좋아하였던 조 광조였지만 실제 그가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가 되어서 부터이다. 부친이 어천 찰방(魚川察防)으로 부임하게 되어 따라갔던 조광조는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희천(熙川)에 김 굉필(金宏弼)이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귀양와 있음을 알고 곧 찾아가 수학하였다. 김 굉필은 김 종직의 문하인으로서 당시 성리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덕망있는 학자로 조 광조 자신도 흠모하고 있던 터였다.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조 광조는 학문과 인격 형성에 있어 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연산군 5년(1499) 18세의 나이로 첨사(僉使) 한 윤형(韓允洞)의 딸과 결혼한 이듬해 조 광조는 부친상을 당하였다. 부친의 시신을 선영(先塋)이 있는 용인군 수지면 상하리에 모시고 난 조 광조는 상례(喪禮)의 모든 절차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하여 하나의 착오도 없

게 치렀으며, 효자들이 하던 옛 귀범을 좇아 한시라도 부친의 묘소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고 상례에서의 삼가함과 애통해 함을 늘 지켰다. 그리고 21세 때 3년 상을 다마쳤음에도 부친의 정을 잊지 못한 조 광조는 묘소 밑에다 초당(草堂)을 짓고 머물면서 홀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였다.

중종 5년(1510) 29세의 나이로 진사 회시(進士會試)에 장원으로 급제한 조 광조는 개성의 천마산(天磨山), 성거산(聖居山) 등지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34세가 되던 중종 10년에는 지평의 용문사(龍門寺)에서 글을 읽은 바 있다. 이때 이조 판서인 안 당(安瑭)의 추천으로 조지서(造紙署)의 사지(司紙)에 임명되었는데 조 광조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같은 해 가을에 알성시(謁聖試)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사헌부 감찰을 지내고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 입시(入侍)할 때마다 유교의 이념으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던 조 광조는 이해 정언의 직위에 있으면서 폐비 신씨(愼氏)의 복위 사건을 계기로 중종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 당시 장경 왕후(章敬王后)가 죽고 중종의 계비책봉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박 상(朴祥), 김 정(金淨) 등이 앞서 폐위된 신씨를 복위시키고자 상소하다가 대사간 이 행(李荇)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 이를 지켜본 조 광조는 상소한 사람을 처벌함은 언로(言路)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다고 주장하여 오히려 이행을 파직하게 하였다. 그후 수찬(修撰)·호조, 예조의 정랑을 거쳐, 중종 12년(1517)에는 교리(校理)로 있으면서 경연 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임하였으며, 자신의 이상 정치(理想政治) 계획 중 하나인 여씨 향약(呂氏鄕約)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도에 보급하여 실시케 하였다. 이같은 계획은 향촌(鄕村)의 상호 부조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하므로써 국가의 이념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듬해 부제학(副提學)이 되어서는 미신 타파를 내세워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奏請)하였다. 국시

(國是)를 유교에 둔 조정에서 소격서를 두어 제사를 한다는 것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낭비이며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폐단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조선 건국 초부터 제사지내왔던 소격서를 한 때에 철폐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관료들의 반대가 심하였다. 그러나 조 광조는 여러 차례에 걸친 논쟁 끝에 결국 중종의 허락을 얻어 이를 폐지시키고 말았다.

한편, 이 무렵 회령(會寧)에서는 여진(女眞)의 속고내(速古乃)가 그 무리를 이끌고 들어와 약탈 행위를 한 일이 있었다. 조정의 의견은 군사를 보내어 여진을 공격하자는 데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조 광조는 "오랑캐들에 대한 정책은 변방 경비를 튼튼히 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요, 혹시 야인들이 먼저 쳐들어 오면 부득이 응전한다고 하더라도 정세와 병력을 잘 헤아려서 할 것이며, 결코 가볍게 군사를 동원할 것이 못 됩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이에 중종은 그 문제에 대하여 다시 의논케 하였으나, 병조판서 유담년(柳聃年)을 비롯 여러 대신들 모두가 여진을 공격하는데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도 결국은 조 광조의 주장에 따르게 되었다.

중종의 신임이 한층 더 두터워지자 조 광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상대로 혁신 정치를 단행하고자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할 것을 간청하였다. 부패한 구세력을 물리치고 청신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참신한 신진 관리를 발탁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종래의 과거 제도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 광조가 현량과의 설치를 서두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한(漢)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받아 제정한 현량과 제도는 중종 13년(1518)에 확정되고, 이듬해에 실시되었다. 최초로 실시된 현량과에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추천된 120명 가운데서 김 식(金湜) 등 28명이 뽑혔으며, 이들 모두 조 광조와 생각을 같이 하던 사람들로, 곧 조정의 각 부문에 배치되었다. 이들의 진출은 기성 관리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조 광조가 이 젊은 관리들을 통하여 실시하려는 혁신정치는 곧 기성 관료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일이었기에 자연 훈구 세력의 반격 음모가 싹트게 되었다.

중종 14년(1519) 조 광조는 대사헌(大司憲)으로 발탁되고 세자 부빈객(世子副賓客)까지 겸하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승직(陞職)은 실로 예에 없을 만큼 빠른 것으로, 이 때문에 더욱 기성 관리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훈구 세력의 질시에도 불구하고 조 광조는 신진 세력에 힘입어 점점 국정(國政)을 거의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으며, 왕도 정치의 표방 아래 기성 관리들을 소인(小人)으로 지목하여 배척하였다. 당시의 보수적인 훈구 재상(勳舊宰相)들과 그의 혁신적인 시책에 반대하던 기성 관리들은 거의 모두 이때 탄핵되어 파직되었거나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성 관리들의 반발을 더욱 고조하여 노골화하게 한 것은 이른바 위훈 삭제 사건(僞勳削除事件)이었다. 조 광조는 이성동(李成童)과 함께 중종 반정시 공신으로 추대된 인물 중에 부당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하여 그들의 공적을 삭훈(削勳)하여야 한다고 간청하였다. 처음엔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중종이었지만 대사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주장해 오자 마침내는 조 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류들의 청을 들어 11월 9일, 103명의 공신 가운데 반 이상이 훨씬 넘는 78명을 삭훈하였다. 여기에 홍 경주(洪景舟), 남 곤(南袞) 등도 포함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던 훈구파의 대신들은 홍 경주·남 곤·심 정(沈貞)을 중심으로 하여 경빈(敬嬪) 박씨 등 후궁을 움직여 중종에게 신진 사류를 무고하게 하는 한편, 대궐안의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글자를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한 다음에 이를 따다 중종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켰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밤에 신무문(神武門)을 통해 비밀리에 중종을 만나서 위협에 가까운 논조로 조 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하여 조정을 문란케 한다고 무고하였

다. 이에 조 광조의 지나친 도학적(道學的)인 언행에 염증을 느껴온 중종은 그들을 투옥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기묘 사화(己卯士禍)로 중종 14년(1519) 12월 16일의 일이었다. 홍 경주·남 곤·심 정 등은 조 광조 일파를 체포한 뒤 빠른 시일내에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 장곤(李長坤), 정 광필(鄭光弼)의 반대로 일단 사형이 면제되고 대신 각지로 귀양보내졌다. 이 때 조 광조는 전라도 화순(和順)의 능주(陵洲)로 유배되었다. 조 광조가 훈구 대신들의 무고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약빙(李若氷), 양 팽손(梁彭孫) 등이 그의 무죄를 변명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으며, 지방 향약의 학사들도 다투어 상소를 하였다고 한다.

조 광조가 능주에 귀양가서 한 달 뒤쯤 유 엄(柳淹)이 왕명을 받들고 내려왔다. 죽음의 시기가 다가옴을 인식한 조 광조는 그것이 중종의 본심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홍 경주 등의 강경책에 어쩔 수 없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몸을 씻고 새옷으로 갈아 입은 다음 집에 보내는 편지를 한 자도 틀림이 없어 써 놓고 시중들던 사람에게 일렀다.

"내가 죽거든 관을 두껍게 쓰지 말고 얇은 송판으로 만들어라. 선산이 있는 용인에 묻히고자 하는데 그 곳까지는 길이 멀고 험난하여 운구(運柩)가 힘들 것이니, 이는 너희들의 힘을 덜고자 함이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어,

임금을 어버이 같이 사랑하고	愛君如愛父
나랏일 내일같이 걱정하였노라	憂國如憂家
밝고 밝은 햇빛 세상을 비추니	白日臨下土
거짓없는 이 마음 환히 비추이리	昭昭照丹衷

라고 시를 한 수 지어 남긴 다음 극약을 마셨다. 그러나 아직 절명치 않자 병졸이 달려들어 목을 조이려 하였다. 이에 조 광조는 "임금도 이 신하의 목을 보존하게 하고자 사약을 내렸거늘 너희가 어찌 감히

목을 조이려 하는가" 꾸짖으며 다시 독주를 마시고 드러누워 피를 토하고 세상을 마쳤다. 이 때 조 광조의 나이 38세였다. 그의 시신은 양 팽손에 의해 거두어져 달구지에 실려 선영이 있는 용인군 수지면 상하리에 옮겨졌다가 이듬해 봄에 안장되었다.

조 광조는 38세라는 짧은 생애를 오로지 정치 생활에 몸받친 때문으로 학문적 업적은 이루어 놓은 바 거의 없다. 그러나 그가 연산군 시대의 두 차례에 걸친 사화(士禍) 이후 침체된 사풍(士風)을 진작하고 유교적 이념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미신 타파, 향약 보급 등으로 풍속을 바로 잡은 공로는 정 몽주 이후 단지 한 사람 뿐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대하다고 하겠다.

선조 때에서야 그의 억울한 죄목이 신원되고 영의정으로 추증되어져 문묘(文廟)에 배향되고 문정공(文正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현재 능주의 죽수 서원(竹樹書院), 회천의 양현사(兩賢祠) 그리고 용인의 심곡 서원(深谷書院)에서 배향하고 있으며, 용인군 기흥면 지곡리에는 그가 용인에 머물러 있을 때 조 광보·조 광좌·이 자 등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던 사은정(四隱亭)이 전해지고 있다.

학사들의 사기 진작에 힘쓴 재상

이 담(李湛)

(1510—1575)

용인(龍仁)／중구(仲久)／후봉(後峯)·정존재(靜存齋)

이 담은 용인 사람으로, 중종 5년(1510) 도승지로 추증된 종빈(宗嬪)과 영월 엄씨(寧越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모든 행동이 어른스러워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던 그는 학문적인 자질도 천성으로 타고나 이미 10세 때 문장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신동이었다. 일찌기 12세 때 부친을 여읜 이 담은 엄한 어머니 밑에서 아비없는 자식의 흠을 듣지 않기 위하여 학문에 더욱 분발하였으며, 동리 가까이에 김 굉필(金宏弼)의 문하인으로 학덕이 높은 유 우(柳藕)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그의 문하가 되었다. 유 우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체득한 이 담은 결혼 후 그의 장인이기도 한 경 세인(慶世仁)에게 사사(師事)하며 더욱 식견을 넓혀 나갔다. 또한 이 담은 "대장부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천문·산술·의약·복서(卜筮)·활쏘기·말타기, 그리고 그림과 글씨까지도 익혀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발휘하였다.

중종 33년(1538)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수찬(修撰)·지평(持平) 등을 역임한 이 담은 명종 즉위년(1545) 가을에 서장관으로 중국의 연경에 다녀온 바 있는데, 이때 중국의 학자들은 그가 지은 표(表)를 보고 매우 칭찬하였으며, 그의 위엄스럽

고 품위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는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한다. 또한 자신의 직분을 그대로 지켜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비록 대신 들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비행을 낱낱이 상소하여 논박하곤 하였던 이 담은 정언으로 있으면서 재상으로 있던 이 기(李芑)의 비행을 일일이 들추어 논박하여 조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그가 중국에 다녀온 직후 일어난 을사 사화(乙巳士禍)때 관직을 삭탈당 하였던 것은 바로 지난 날 자신의 비행을 논박한 것에 대한 이 기의 보복 조치였던 것이다. 이 기는 그가 을사 사화 때 관직만 삭탈당하고 유배되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명종 2년(1547)에 일어난 이른바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그를 연루하여 무고한 다음 끝내는 양산(梁山)으로 귀양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이 담은 이 기의 그같은 행동에 아무런 불만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오히려 홀로 계신 노모의 걱정을 끼쳐드릴 것만을 염려하여 평상시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귀양길에 올랐다. 출발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자 그를 이끌고 가던 의금부 병졸들도 그의 도량에 탄복하였다 한다. 귀양지 양산에 이르러서도 이 담은 외부의 일에 대해선 일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학문만을 연구하였으며, 그의 학덕을 익히 알고 찾아드는 제자들을 지성으로 가르쳤다. 5년 후에야 이 기의 일파가 조정에서 축출되고, 곧 신원(伸寃)되어 풀려나온 후에도 이 담은 저술과 제자 양성에 힘쓸 뿐이었다.

명종 20년(1565) 18년만에 비로소 옛 관직을 되찾은 이 담은 이듬해 사복시(司僕寺)의 첨정(僉正)을 거쳐 사성(司成)을 지냈으며, 선조 즉위와 함께 홍문관 부응교(副應敎)로 천거되었다. 홍문관원으로 있으면서 선조의 총애를 받은 이 담은 수시로 임금에게 나아가 유학(儒學)으로써 선정을 베풀 것을 아뢰며, 연산군과 중종 그리고 명종조에 걸쳐 일어난 사화로 말미암아 침체된 학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같은 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암 조 광조의 시호를 내려 학사들로 하여금 임금을 스스로 신봉할 수 있

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담의 말을 듣고난 선조는 얼마 후 조 광조에게 문정공(文正公)이라는 시호를 내려주고, 학사들을 이전보다 더욱 예우하여 주었다. 그 후 이 담은 제술관(製述官)으로 임명되어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편찬 사업이 끝난 해에 전한(典翰)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이 황(李滉)은 조정에 들어와 일하고 있으면서도 선조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이를 눈치 챈 이 담은 평소 이 황의 학덕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이 황의 어짐과 학문이야말로 훗날 한 세대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곡진히 아뢰어 그를 조정의 중요 관직에 써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처럼 학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사기 진작에 힘썼던 이 담은 그가 승지를 거쳐 대사성·대사간·병조 참의 등 주요 관직을 지내면서도 여러 학사들이 일부 대신들에 의해 화를 당하게 될 때마다 직접 나서서 구하여 주곤 하였다. 그가 대사성으로 있었을 때 오 건(吳健)이란 사인(舍人)이 사소한 실수로 대신들의 노여움을 사 탄핵의 대상에까지 올랐다. 이때 이 담은 앞에 나서서 "어찌 작은 일로서 그같이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하며 극구 반대하여 그를 구제하여 주었다.

선조 7년(1575) 병조 참의로 있으면서도 학문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담은 이 해 12월에 신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있다가 이듬해 65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그의 부음을 들은 선조는 재상 노수신(盧守愼), 유 희춘(柳布春) 등을 보내어 그의 가족들을 위로케 하였으며 장례의 모든 절차에 따른 비용을 돕도록 명하였다. 그의 시신은 2월에 경기도 파주 백운산 남쪽 기슭에 안장되었다.

어려서부터 부친을 여의고 엄한 어머니 밑에서 학문에 분발하였던 이 담은 여러 방면에 걸쳐 다재다능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산술로, 그의 산법은 훗날 서 경덕이 이루어 놓은 것과도 거의 흡사한 것이라 한다. 또한 18년간의 오랜 세월을 초야에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던 그는 이 황이 편지를 보내어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할 정도로 저술에 몰두하였었다. 이 황 자신도 "이 책

의 정밀하고 심오한 내용은 나 역시도 미치지 못할 바"라고 칭찬한 《독서연주(讀書鉛朱)》가 그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이며, 《정존수필(靜存隨筆)》《정존재집(靜存齊集)》 등이 모두 그의 저서이다.

효행과 충정으로 이름난 의병장

김 충수(金忠守)

(1525-1592)

／창죽헌(蒼竹軒)

김 충수는 중종 20년(1525) 양지현(陽智縣) 월로동(月老洞)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 때 서당(書堂)에 들어가 한문을 공부하였으며, 아홉 살 때에는 아버지를 잃고 매양 슬퍼하였다.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거나 아이들을 손잡고 가는 것을 보면 옆으로 돌아서서 울며 다음과 같이 만사(輓詞)를 지어 부르곤 하였다.

덕과 어짐을 갖추셨으니 천년 사셔야 하련만	德仁兼備宜千年
저 흰구름 타고 푸른 하늘에 올라가 따져볼까나	乘彼白雲訴碧天
다시는 아버지 부르며 찾아올 곳도 없으려니	以後更無啼父處
공연히 눈물 뿌리며 북망산 노을만 바라보네	空望揮淚北邙湮

이처럼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읜 슬픔을 통감하였던 김 충수는 아버지에게 못 해드린 효성을 어머니에게 남김없이 다 해드렸다. 그러나 어머니 한씨(韓氏)는 성품이 준엄하여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어 꾸짖곤 하였다. 그럴때마다 김충수는 송구스러워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스스로 잘못을 아뢰고 회초리를 갖다 드렸다. 그래도 한씨의 화가 풀리지 않으면 이웃 노인들에게 부탁하여 한씨의 마음을 풀어드렸

다. 항상 어머니 한씨의 안색을 살피며 그 뜻을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성스럽게 모셨던 김 충수는 효자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 어머니가 마루 위에 앉아 있을 때 호랑이가 달려들어 어깨를 물려 하였는데 이때 김 충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대들어 호랑이를 껴안고 손으로 치며 꾸짖으니, 호랑이가 감히 범행치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며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양을 하였다 한다. 그후 어머니가 괴질(怪疾)에 걸려 밤새도록 정신을 잃고 사경(死境)을 헤매게 되자 김 충수는 각가지 약을 갖추어 드리고 하늘에 기도하며 마음을 조이고 가슴태웠으나 아무런 약도 그 효험이 없었다. 이에 김 충수는 더욱 정성스럽게 하늘과 신령님께 빌었다. 그랬더니 밤에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창문 밖에서 그를 부르며 약처방을 가르쳐주고 사라졌다. 그 소리를 듣고난 김 충수는 곧바로 그 노인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약을 구해다 어머니에게 드리고 그 약의 효험으로 어머니 한씨를 소생하게 하였다.

또한 김 충수는 어머니 한씨가 연로하여 돌아가시자 양지 월로동의 부친 묘소에 합장한 이후로는 매일 같이 찾아가 울부짖으며 통곡하였기 때문에 뼈만 남을 정도로 몹시 수척하였으며, 길을 가는 사람들도 눈물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해 하였다 한다.

김 충수는 이처럼 효자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진 왜란때 의병을 모아 왜군들과 싸우다 전사한 충정(忠貞)의 인물로도 유명하다.

1592년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김 충수는 왜군이 문경의 조령(鳥嶺)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나아가 싸우고자 하였으나, 한 시골의 선비에 지나지 않는 입장이라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모으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왜군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도 뿔뿔이 헤어져 피난하기가 일수였다. 이에 비분(悲憤)함을 참지 못한 김 충수는 홀로 방황하다 지쳐 하늘을 쳐다보고 통곡

하며 "하늘이시여, 나에게 한 부대의 병력만이라도 빌려주소서. 왜병 단 열 명 이라도 죽이고 내가 죽는다면 한이 없겠읍니다" 외쳤다. 겨우 정신을 차린 김 충수는 허탈한 심정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에 들어와서 우연히 한 숲 속에서 떼를 지어 숨어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였다. 달려가 보니 백여명 정도가 되었다. 이 역시도 하늘이 내려준 것이리라 마음먹은 김 충수는 그들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성스러운 때에 이 땅에 태어나 국가의 은혜을 입은 것이 수없이 많거늘 이 중요한 시기를 당하여 그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해 숨어 있다니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만일 나를 따라 왜병과 싸우지 않겠다면 모두들 내손에 죽게 되리라" 경계(警戒)하였다. 이 말을 듣고난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의 뒤를 따를 것을 다짐하였다. 김 충수는 이들과 함께 여러 부락을 살펴서 무기가 될 만한 칼과 창, 그리고 낫, 곡괭이 등을 모아 훈련하고 작전을 짜며 왜군이 근처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군이 죽산에까지 쳐들어 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말을 들은 김 충수는 자신이 국가를 위해 몸 바쳐야 할 때가 왔음을 각오하고 그를 따르는 여러 의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왜군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것은 약한 몸으로 호랑이 동굴 속에 뛰어 드는 것과 같다.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 신(韓信)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죽을 곳에 빠져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였으니,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해 죽기로 싸운다면 공을 세울 수도 있다."

백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죽산 땅에 돌입한 김 충수는 자신이 먼저 적진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 싸웠다. 빗발 같은 화살과 조총의 총탄 속에서 정신 없이 싸우던 김 충수는 왜군을 수 없이 죽이고 자신도 그 싸움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장렬한 죽음으로 일생을 마쳤다. 이때 김 충수의 아들도 함께 나아가 싸웠는데 김 충수의 위급함을 보고는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 싸우다 힘이 지쳐 부친의 시신을 껴안은 채 왜군

에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한다. 김 충수 부자(父子)의 이같은 충정은 선조(宣祖)에게 알려져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이 내려졌다. 다음 시는 김 충수가 죽산으로 싸우러 가면서 지은 작품이라고 전한다.

때마침 큰난을 당하여 죽산에 올라	時當大亂登竹山
서서 융의를 떨치니 어찌 한가하랴	立拂戎衣豈是閒
몸을 던져 의를 도움은 본시 내 일로	殺身扶義由吾事
펄럭이는 깃발만 눈과 달빛에 차네	凜凜飄旗雪月寒

용인이 낳은 선조 때의 명장

이　일(李鎰)

(1538-1601)

용인(龍仁)／중경(重卿)／·／장양공(壯襄公)

이 일 장군은 관찰사 이 백지(李伯持)의 7대손으로, 중종 33년(1538)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성품이 뛰어나고 영특했으며,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던 이 일은 명종 13년(1559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전라도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되었다. 이 당시 함경도는 북쪽으로 오랑캐와 인접하고 있어 번호(藩胡)의 침범이 그칠 날이 없었다. 선조 16년(1583)에는 니탕개(尼湯介)가 북변을 침범하여 들어와 경원부(慶源府)를 함락시키고, 종성(鍾城)까지도 포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전라도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일 장군으로 하여금 경원 부사(慶源府使)의 특명을 내리어 격퇴케 하였다. 이듬해에도 니탕개가 2만 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회령(會寧)을 침공해왔는데 조정에서는 이 일 장군을 다시 회령 부사로 임명하여 저지케 하였다. 이 싸움에서도 이 일 장군은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니탕개의 군사를 모두 쳐부수고 그들의 부락 및 소굴까지 모두 불질러 완전히 섬멸하는 큰 공을 세웠다. 선조는 이 일 장군에게 함경도 병마절 도사를 제수하였다. 이 때 항상 북방 오랑캐의 침범을 근심해왔던 이 일 장군은 김 종직이 편찬한 《제승방략(制勝方略)》을 증보하여 적과 싸울 때 필요한 모든 방책과 병사들을 통솔하는 분군법(分軍法), 군무금령(軍務禁令) 수 십여조 등의 내용을 담은 《승전방략(勝戰方略)》

을 지어 모든 장수들로 하여금 시강(試講)의 표본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 후 또 추도(秋島)의 번호와 시전(時錢)의 번호가 함께 쳐들어왔는데 조정에선 이 일 장군으로 하여금 경흥(慶興)으로 가서 시전 번호를 막게하고, 김 우추(金遇秋)로 하여금 추도 번호를 막게 하였다. 추도 번호는 쉽게 소탕할 수 있었으나 이 일 장군이 맡은 시전 번호는 매우 강한 군사력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조정에 원군을 요청하니 조정에서는 회령 부사(會寧府使) 변 언수(邊彦琇), 온성 부사(穩城府使) 양 대수(楊大樹)를 좌우위장을 삼고 고령 첨사(高嶺僉事) 유 극량(劉克良), 조방장(助防將) 이 천(李薦)을 좌우 선봉으로 임명하여 일시에 공격하게 하였다. 이 싸움에서의 모든 전략을 계획하였던 이 일 장군은 지원군의 힘과 합치어 시전 번호를 포위하고 공격하여 그들의 근거지 4개 부락과 소굴 3백 여개소를 불지르고, 적 8천명을 목베는 등 이전에 보기드문 큰 공을 세웠다. 이후로는 번호들의 침범이 거의 근절되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 왜란이 일어나고 왜군들이 부산·동래 등 여러 지역을 침범하여 백성들의 자산을 약탈해 가자 조정에서는 여러 공론 끝에 신 립(申砬) 장군을 도순변사(都巡邊使)로, 이 일 장군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방어케 하였다. 이 당시 조정에서는 평화론만을 운운하고 국토 방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시에 쳐들어온 왜군을 저지할 훈련된 군사는 물론,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명을 받은 이 일 장군은 종사관(從事官)인 좌우 방어사(左右防禦使), 조방장(助防將) 약간 명을 인솔하고 전지로 내려가면서 병사들을 모으며 문경·상주를 지나 조령(鳥嶺)에서 왜군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왜군은 수만 명에다 조총까지 보유하고 있어 오합지졸의 병사와 활만으로는 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패한 이 일 장군은 나머지 병사들을 이끌고 신 립 장군이 이끄는 군사와 합류하여 충주 싸움에 나섰다.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해 크게

패하고 말았다. 신 립 장군은 탄금대에서 전사하고 이 일 장군은 겨우 목숨만을 건질 수 있었다. 서애(西涯) 유 성룡(柳成龍)은 이 싸움에서 이 일 장군이 패전한 것을 개탄하면서, 《징비록(懲備錄)》에 "이일(李鎰)은 객장(客將)으로 수병(手兵)도 없고 창졸간에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후 이 일 장군은 서울로 올라와 선조의 근위 대장(近衛大將)으로 있으면서도 임진강 등지에서 왜군 6백여명의 목을 베어 그들의 기세를 꺾은 바 있으며, 선조를 평양까지 호종한 바 있다. 이 때 적의 세력이 평양에까지 미쳐 민심이 어지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수들은 좀처럼 이들의 마음을 수습할 수 없었으나 이 일 장군이 평양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안심하여 자중하였다 한다. 그러나 왜적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평양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자 선조는 다시 의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 민심도 다시 어지럽혀지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왜적에게 투항하여 그들을 돕는 자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이 일 장군은 다시 동변 방어사(東邊防禦使)로 임명되어 평양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 일 장군은 적군의 우세로 불안해 하고 있는 백성들을 일일이 글로써 회유하고 설득하여 민심을 돌이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때마침 명나라 장수 이 여송(李如松)이 수만 병력을 이끌고 원정해오자 이 일 장군은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이들과 합세하여 맹렬히 왜적을 공격한 결과 그들을 소탕하고 평양을 수복하였다. 선조는 이 싸움에서의 공을 극찬하며 백금 20냥을 내려 주었다. 그후 서울이 탈환 되고 훈련도감이 설치되자 그 좌지사(左知事)로 군대를 훈련시켰으며, 뒤에 함경북도 순변사, 충청·전라·경상도 삼도 순변사를 거쳐 무용대장(武勇大將)을 지냈다.

선조 34년(1601)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재직중 병을 얻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정평(定平)에서 병사(病死)하니, 이 때 나이 64세였다. 선조는 이 일 장군의 공로를 생각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며

관직을 좌참찬으로 추증하고 장양공(壯襄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의 묘소는 현재 모현면 매산리 고시능에 자리잡고 있으며,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지은 《승전방략》 2권과 〈장양공 시전호 정벌도(壯襄公時錢胡征伐圖)〉가 전해지고 있다.

심 대(沈岱)

(1546-1592)

청송(靑松)／공망(公望)／서돈(西墩)
／충장공(忠壯公)

심 대는 세종 대왕의 장인인 안효공(安孝公) 심 온(沈溫)의 5대손으로, 명종 1년(1546) 의검(義儉)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용모와 행동이 단정하고 의를 중요시하여 불의(不義)와 부정(不正)을 보면 참지 못하였다 하며, 문장력도 뛰어나 남들의 선망이 되었다. 약관의 나이에 지은 〈설죽가(雪竹歌)〉는 그의 지절(志節)을 노래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널리 불려지고 있는 시작품이다.

선조 5년(1572) 친시 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여 사인(舍人)·검상(檢詳)을 역임하고, 오세자궁(五世子宮) 보덕(輔德)으로 재임 당시 임진 왜란이 돌발하였다. 이해 4월 27일에 왜적들이 도성에까지 육박하자 선조 대왕은 창졸간에 송도(松都)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심 대는 선조를 송도까지 호종한 후, 중전 역시도 가마로 모시고 호종하였는데 가던 도중 벽제(碧蹄)에 이르러서는 뒤를 따르던 신하 여러 명이 도망하여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고자 하자 이들을 꾸짖어 깨우친 다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봉행(奉行)케 하였다. 송도에 이르러서는 곧 임금에게 계(啓)를 올려 아뢰기를 "적의 세력을 보건대, 질풍과 같이 영남을 거쳐 왕도(王都)를 침법한 듯하므로 호남·호서에는 적의 세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며, 두 지방에서 근왕(勤王)

의 군사가 흥기(興起)하였다 할지라도 적이 원로(援路)를 차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이 가시는 바를 듣지 못하면 근왕의 군사가 해산하게 되어 수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급히 사신을 파견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병사들을 모아 돌아와서 호위하게 하여 훗날 다시 회복되기를 도모하셔야 될 것이며, 원병(援兵)이 후방에서 진을 치고 있음을 적이 알면 감히 북상(北上)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에 파견되기를 자청하여 윤허를 받은 다음, 밤낮을 쉬지 않고 고생하며 호남·호서 두 지방에 이르렀다. 도착하자마자 심대는 방백(方伯)과 수령에게 교지(敎旨)를 전달하고나서 직접 병사들의 앞에 나서서 울며 호소하여 수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을 그의 휘하에서 따르게 하였다. 훗날 해로(海路)로 구원차 온 이 병사들은 매우 믿음직하고 용맹스러워서 최종 소탕 작전에 뛰어난 공을 세웠다 한다. 심 대가 평양에 다시 도착하여 호남·호서지방의 소식을 복명(復命)하기까지는 거의 24일이 걸렸다. 선조 대왕이 두 지방의 사정을 묻고 그의 처사와 성과를 듣고는 매우 칭찬하며 승지 겸 오위장 첨지 판결사(承旨兼五衛將僉知判決事)를 제수하였다.

또한, 선조 대왕을 호종하여 용만(龍灣)에 이르렀을 때 도성이 함락되고 왜적이 점거하게 되자 경기 감사 권 징(權徵)이 도망하였는데, 이 때 심 대는 왕에게 아뢰기를 "경기는 각도의 요충 지역이니 꼭 탈환을 도모하여야하며, 적의 수중에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선조는 조정에서 경기 감사를 차출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그 일을 감당할 인재를 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심 대가 다시 가선대부 경기감사(嘉善大夫 京畿監司)로 제수되었으며, 부임(赴任) 도중 안주(安州)에서 유 성룡을 만나 그의 휘하에 있던 장수 2명을 지원받았다. 또 의병 수 천명을 규합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연천(漣川)의 증파진(澄波津)에서는 왜적과 맞서 격전 끝에 대파시켰다. 그러나 철원 방면의 왜적들이 몰래 강물을 건너 기습하여 오므로 삭령(削寧)으로 진을 옮긴 후 병사를 모집하여 증강시키고, 관할 지역에서 충의

(忠義)의 귀감이되고 있는 윤 경원(尹敬元)·강 수남(姜壽男)·양 지(梁誌) 세 사람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이 때 의병장(義兵將) 우 성전(禹性傳)이 강화에 주둔하면서 수차 함께 방어하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심 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전략상 삭령을 고수하면서 강화의 군사들과 손잡고 도성을 수복하고자 여러 고을을 순회하며 충의(忠義)를 역설하고 근왕의 병사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그의 뜻을 따르는 자가 속출하여 군사들의 세력이 크게 진작되었으며, 왜적들도 두려워하였다. 도성에 있던 주민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왜적들의 정보를 제공해 오는 자가 매일 수백여명에 이르렀다. 심 대는 장차 날짜를 정하여 협공할 것을 계획하여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진영(陣營)에서 매일같이 고생하며 피로를 겪은 병사 성 여해(成汝諧)가 견디지 못하고 왜적들과 내통하고 말았다. 적의 첩자가 된 성 여해는 척후병을 살해하고 왜적으로 하여금 잠자는 틈을 타 기습해오도록 하였다. 적의 기습을 받은 심 대는 뜻밖의 일이라 작전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대패하기에 이르렀다. 진영의 군사들은 죽거나 도망하여 얼마 안되는 병사들만이 심 대와 더불어 분투하였다. 그러나 화살이 다 떨어지고 힘이 지친 심 대는 이 싸움에서 한을 품은 채 47세의 나이로 장렬한 죽음을 걷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10월 18일의 일이었다.

그가 전사하자 심 대의 조카인 심 대관(沈大觀)이 그의 시신(屍身)을 삭령군 뒷산에 평장(平葬)하여 왜적으로 하여금 도굴을 막으려 하였으나 결국은 발각되고 말았다. 왜적들은 도성 안의 백성들을 위협하고자 심 대의 목을 잘라 종루(鍾樓) 거리에 60여일간이나 매달아 놓았다. 그런데 심 대의 노한 눈동자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으므로 도성에 있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의 충절을 애도하며 뒤를 따르고자 하여 왜적들도 탄복하였다 한다. 심 대의 목은 양주 목사(揚州牧使) 고 언백(高彦伯)의 비상 수단으로 함에 넣어져 강화로 보내어졌다가 왜란이 평정된 후 시신과 함께 남양으로 옮

겨져 안장되었다. 선조 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애통 해 하며 이조 판서를 추증하고 예(禮)를 갖추어 장례지내도록 명하였다. 그 후에도 심 대의 순국(殉國)을 잊지못한 선조는 여러차례 은전을 베풀었는데 갑진년(1604)에는 호성 공신(扈聖功臣) 1 등으로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고 청원군(靑原君)으로 봉하였다. 그 후 경술년(1610)에는 선무 원종(宣武原從) 1 등공신으로 영의정을 추증, 청원 부원군(靑原府院君)의 작호(爵號)와 '국난에 처해서 나라를 잊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장렬히 죽었다(臨患不忘國 死于原野)'는 뜻에서 충장공(忠壯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묘소를 현재의 위치인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로 옮긴 후에는 정려의 은전을 내리어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자손들 역시도 그의 충의를 긍지로 여겨 정려 밑에 사당을 모시고 매년 제사를 받들고 있다.

안 홍국(安弘國)

(1555-1597)

순흥(順興)／신경(蓋卿)／·／충현공(忠顯公)

열화와 같은 구국의 집념으로 임진 왜란중 충무공을 도와 큰 공을 세우고 38세의 나이로 순국한 명장, 충현공 안 홍국.

그는 용인 출신으로 명종 10년(1555) 호조 참판으로 추증된 언필(彦弼)의 둘 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조 16년(1583) 24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여 구국의 길에 나섰으며, 33세 되던 해인 1592년 임진 왜란 때는 선전관(宣傳官)으로서 선조를 호종(扈從)하여 의주로 가던 중 영흥 지방에 머물러 있던 임해군(臨海君)에게 어명을 전하고 행재소(行在所)로 돌아온 공으로 호종 1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이 당시 충남·호남·영남 지방은 교통이 단절되고 고립되어 조정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터라 행재소에서는 그간의 전황(戰況)과 백성들의 안위(安危)를 알 수 없었다. 안 홍국은 이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갖가지 위험을 무릎쓰고 적진을 돌파하여 삼남 지방의 수령과 방백 등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임금의 밀지를 전달하고, 근왕병을 위문, 격려하는 한편, 전황과 왜군의 동정을 낱낱이 파악하여 선조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다.

그후 보성 군수에 임명되어 그곳을 방어하다가 전라 좌수사 이 순신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군기에 엄하고 군사의 조련과 대적에 치밀하여 크게 신임을 받았던 안 홍국은 이 순신의 직무를 대리하기

도 하고, 때로는 선봉장이 되어 공을 세우는 등 이 순신의 참모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임진 왜란 초에 경상 우수사 원 균(元均)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휘하 군졸 만여명을 해산시킨 다음 육지로 상륙하여 피란하고자 하였다. 이 때 영등포 만호 유 치적(柳致積)은 원 균을 만류하면서 호남 수군의 지원을 받아 양호(兩湖)를 지키자고 하였다. 때마침 이 순신은 관할 구역 내의 함장들을 여수 앞 바다에 집결시키고 만반의 임전 태세를 갖추면서 왜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 균이 보낸 급사(給事) 이 영남(李英男)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막료들의 의견은 분분하였다. 그러나 이 순신이 원 균을 도와 공격하기로 결정하자 안 홍국은 그의 휘하에서 참모로 참전하였다. 1592년 5월 7일 옥포 앞 바다의 해전에서 왜선 30여척을 모조리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니 이는 안 홍국이 이 순신을 도와 싸운 해전중 첫 승리였다. 이어 6월 1일에는 당포에 이르러 왜선단과 맞닥뜨려 닥치는대로 왜선을 격파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밖에도 율포 등지의 해전에 참전하여 이 순신의 빛나는 해전사(海戰史)에 공헌한 바 적지 않았다.

이 순신의 연전 연승으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자 왜군들은 열세를 만회하고자 육지의 병력을 뽑아서 수군에 보충시킨 다음 해전에 참가시켰다. 이 때 용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왜장 와끼자까 야스하루〔脇坂安治〕를 비롯한 수많은 군사가 해전에 보강되었는데 이들 역시 해전에서는 상대도 되지않아 참패를 하였다. 바로 이 싸움은 용인 출신인 안 홍국에게는 고향 사람들의 치욕을 깨끗이 씻어준 통쾌한 보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순신이 모함에 의해 투옥되고 원 균이 통제사가 되자 안 홍국은 원 균 휘하에서 중군장(中軍將)으로 있던 중 정유 재란을 맞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19일, 권 율 장군이 보낸 종사관 남 이공(南以恭)으로부터 출진 독촉을 받은 원 균은 전함 90여척을 끌고 한산도를 떠

나 안골포로 진군했다. 이 때 평산 만호 김 축(金軸) 과 함께 선봉에 섰던 안 홍국은 정예 선단을 이끌고 북을치며 돌진하여 안골포와 가덕도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던 중 다시 적함대를 만나게 되었다. 안 홍국과 김 축이 이끄는 선봉의 정예 함대 30 여척이 질풍같이 돌격하자 왜적도 정예 선단을 추려 측면에서 협공하며 반격하므로 일시에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안 홍국 휘하의 선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형세가 위급해지자 병사들은 도망치면서 중군장 안 홍국에게도 후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안 홍국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적을 보고 후퇴하면 언제 판결을 낼 것이냐. 하물며 우리 장군(원균)이 가까이 계시니 어찌 우리를 구하지 않으랴. 너희들도 나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 격려하면서 기(旗)를 흔들어 구원병선(救援兵船)의 출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본진(本陣)에서는 원군이 급파되지 않았다. 중군장 안 홍국은 일이 그릇됨을 직감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지않을 수 없었다. 안 홍국은 "평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에 있느니라 장군이 우리를 구하지 않은들 어찌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치 않으랴. 선수(船首)를 좌현으로, 적선 측면을 격파하라"고 외치면서 적의 포위망을 뚫으며 마구 공격하여 적선을 무수히 격파하였다. 그러나 "우현의 적선을 따라잡고 현자포(玄字砲)를 쏘아라" 외치며 도망치는 적선을 추적하던 명장 안 홍국은 왜적의 유탄에 맞아 돛대 옆에 앉은 채로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그의 나이 38 세였다. 이미 전사한 후에도 생시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성난 표정 그대로 였으므로 부하 군사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그가 숨을 거둔 사실을 모른채 도망치는 적을 쫓아가며 쳐부순 뒤에야 전사한 사실을 알았다 한다.

본래 육장(陸將)이있던 안 홍국은 자신이 수군(水軍)으로 편성되어 배에 오르게 되자 평소 입던 천릭(天翼)을 벗어 늘 아끼며 타고 다니던 말 잔등에 매어 주며 "애마(愛馬)야, 이제 네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이 길로 나대신 내 고향 용인으로 가서 이 천릭을 꼭

전해주기 바란다"말하고, 몇 번이고 갈기를 쓰다듬으며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이 애마가 혼자 천리 길을 달려와 안 홍국의 생가인 이동면 어비리(지금은 어비리 저수지 수몰지역임)에 이르러 지쳐서 죽었다고 하며, 가족들은 이때 장군의 천릭을 보고 그가 전사했음을 알았다고 한다.

선조 31년(1598) 임진 왜란이 종결된 후 조정에서는 안홍국의 전임지 보성에 사당을 세워 위패를 봉안했으며, 인조 8년(1630)에는 충민사(忠愍祠)란 현판이 사액(賜額)되었다. 인조 20년(1642)에는 작설지전(綽楔之典 : 효자·충신·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정문을 세워주던 나라의 특전)을 베풀어 그의 고향인 용인에 정려문을 세워 영원히 그의 충절을 기리게 하였다. 그리고 현종 9년(1668)에는 병마 절도사로 추증하고 충현공(忠顯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현재 이동면 묘봉리 845번지에 모셔진 안 홍국의 묘소는 그의 시신(屍身)은 수장(水葬)했기 때문에 애마가 가져온 천릭만을 묻어 허장(虛葬)한 것이라 하며, 그의 묘 아래 서쪽 양지편에는 애마의 무덤이 아직도 남아 전해지고 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청백리 재상

오 윤겸(吳允謙)

(1559-1636)

해주(海洲)／여익(汝益)／추탄(楸灘)·토당(土塘)／충정공(忠貞公)

오 윤겸, 그는 우리 나라 역사상 보기드문 청백리의 어진 신하로, 여러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인물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조선조의 선조·광해군·인조 3대 임금을 충직(忠直)으로 모셨던 그는 영릉 참봉(英陵參奉)을 첫 벼슬로해서 영의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광해군 9년(1617) 일본에 회답사(回答使)로 가서 임진 왜란 때 잡혀갔던 150여명의 포로를 데리고 왔으며 명나라에 하극사(賀極使)로 파견되어 여러가지 외교 활동을 편 것은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 하겠다. 또한 오 윤겸은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근본과 인애공평(仁愛公平)의 도리에 가장 본보기가 되었던 인물로, 평생 동안 임금에게는 충성(忠誠)을,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는데 전념하여 재임 당시 혼란하였던 국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음은 물론, 청렴 결백한 목민관(牧民官)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온 청백리(淸白吏)의 귀감으로 받들어져 왔다.

오 윤겸은 명종 14년(1559) 지금의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희문(希文)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이씨가 꿈에 삼태성(三台星)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잉태하였다고 하며, 그가 태어 나자 외조부 등 주위 사람들은 "이 아이는 삼태성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으

니 반드시 정승에 오를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한다. 실제로 오 윤겸은 훗날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에까지 올라 그가 정승에 오를것이라고 한 모든 이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게 하였다.

오 윤겸은 어려서부터 온 마을에 총명하고 효심이 깊은 귀재(貴才)로 불리웠다. 8세때 중병의 어머니가 유자(柚子)를 몹시 먹고 싶어 하자 이웃 고을의 이 진사 집에 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곧장 찾아가 간곡히 청하니 이진사 또한 그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유자를 선뜻 내주었다고 한다.

15세때 외조부를 따라 용인(龍仁)으로 내려와서 글을 읽기 시작하였던 오 윤겸은 23세때 당시 성리학(性理學)의 대가였던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하생이 되면서 비로소 뛰어난 문장과 덕행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우계(牛溪)는 오 윤겸의 지조와 행실에 대해 "어지러운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보기드문 사람"이라고 칭찬하곤 하였다. 그 해 오 윤겸은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당시 최고 학부인 태학(太學)에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선조 22년(1589) 성균관 유생 중에서 학덕이 많은 사람에게 임금이 친히 행하는 시험인 전강(殿講)에 응시한 오 윤겸은 장원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이때 시관(試官)으로 있던 이 산해(李山海)는 "오늘 이 시대에서 다시 참된 선비를 보게 됐다"고 그의 조용하고도 단정한 품행을 칭찬하면서 즉석에서 천거하여 영릉 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오윤겸은 "지금은 벼슬의 길을 걸을 때가 아니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사양하였다. 이듬해 또다시 봉선전 참봉(奉先殿參奉)에 임명됐으나 1년 후 이 마저 사퇴하였다.

오 윤겸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불의에 굽힐줄 모르는 지조는 누구도 뒤를 쫓지 못 할 정도였다. 1608년 그가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있을 때인 선조(宣祖)가 승하하였다. 이때 명나라에서는 요동 차관(遼東差官)을 보내어 조문(吊問)케 하였는데, 차관이 안주에 이르렀을 때 오 윤겸은 상복 차림으로 나가 그를 맞이하였다. 그러자 차

관이 크게 노하므로 온 고을 사람들이 당황해 하였다. 역관(譯官)이 상복 벗기를 간곡히 권하였다. 그러나 오 윤겸은 침착하게 "상복이란 마음대로 벗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차관은 사신과도 다른데 차관의 노여움 때문에 경솔하게 상복을 벗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며 그를 깨우쳤다. 이에 차관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 윤겸에게 깊이 사과하였다. 이같은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그의 충성심과 예법을 귀감으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오 윤겸의 명성은 일본에까지도 알려졌다. 광해군 원년(1609) 동래 부사(東來府使)에 임명된 오 윤겸은 대마도의 왜인을 회유한 바 있는데 은혜와 신의가 병행한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중을 통솔하였기 때문에 왜인들까지도 그를 공경하였다 한다. 또한 광해군 9년(1618) 일본에 회답사(回答使)로 특파되었을 때는 그당시 일본 천황을 보좌하는 관백(關白)도 맨발로 뛰어나와 경의를 다해 접대했으며, 돌아올 때는 오 윤겸의 간청을 받아들여 임진 왜란으로 잡혀갔던 많은 동포들을 보내주는 등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다. 이런 중에서도 오 윤겸의 청렴은 변함이 없었다. 일본에서 돌아올 때 관례에 따라 관백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조차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오직 유자 하나만을 가지고 배에 올랐으나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이것마저 바다에 버렸다. 이때 서장관(書狀官) 이 경직(李景稷)도 "평소 칼을 좋아해 한 자루를 구해왔으나 무슨 낯으로 이 칼을 가지고 가겠는가"하며 그 칼을 바다에 버렸다 한다.

그후 일본 사신이 동래부에 이르러 우리나라 선위사(宣慰使)에게 "조선에 오(吳)선생 같은 어진 대부(大夫)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선위사는 태연히 "우리 나라에는 그와같은 분이 많다"고 답하자 일본 사신은 "아니오. 조선에 비록 인물이 많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분은 오직 한 사람 뿐일 것이오"라고 말하며 오 윤겸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다.

한편, 오 윤겸은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높은 수양을 쌓아 행동과

처사에 언제나 사심을 버리고 반드시 공정을 기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반면, 시기하는 자들의 무고(誣告)도 적지않게 받았다. 이조 판서로 있었을 때는 인재를 전형하여 뽑는 전선(銓選)에 지나치게 공정을 기한 나머지 이것이 도리어 임금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질책을 받게 되었으며 스스로 이조 판서직을 사퇴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오 윤겸의 높은 학덕 및 공정심을 잘 알고 있는 인조(仁祖)는 이듬해(1626년) 그를 우의정에 제수하였다. 그후 오 윤겸은 좌의정을 거쳐, 인조 6년(1628)에 의정부의 최고 벼슬인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2년 후 사퇴하였다.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종 진언(進言)을 올려 국정을 도왔다.

인조 14년(1636년) 어느 한가지도 선현들의 가르침에 벗어난 것이 없이 한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오 윤겸은 오직 저서로 《추탄집(楸灘集)》 한 권만을 남기고 노환으로 한성에서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78세였다. 오 윤겸이 운명하던 날 밤 북악(北岳)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하며, 그 소리가 마치 우뢰와 같아 한성이 한동안 떠들썩했다 한다. 그가 죽은 후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현종 대에 이르러서 충정공(忠貞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현재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선영 밑에 그의 묘소가 있으며, 그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광주의 귀암 서원(龜岩書院), 평강의 산앙재 영당(山仰齋影堂) 등지에서도 배향하고 있다.

홍길동전에 개혁 의지를 남긴

허 균(許筠)

(1569—1618)

양천(陽川)／단보(端甫)／교산(蛟山)·성소(惺所)·백월거사(白月居士)

허 균은 선조 2년(1569) 경상 감사 허 엽(許曄)의 3남 2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당대에 손꼽히는 명문으로 부친 허엽 및 허 성(許筬)·허 봉(許篈) 두 형은 모두 뛰어난 수재였으며, 동인(東人)의 주축을 이루고 정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다. 또한 성리학과 문장에도 모두 뛰어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문자 그대로 명문 거족이었다. 이같이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허 균은 그들의 혈통을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재주와 총기가 비상하였다. 이미 아홉 살 때 시를 지어서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던 그였다.

일찌기 12세 때 부친을 여읜 허 균은 맏형인 허 성 밑에서 자랐는데, 허 성은 비록 이복 동생인 허 균이었지만 구분하지 않고 엄부(嚴父)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둘째 형인 허 봉은 최 경창(崔慶昌)·이 달(李達)·이 산해(李山海)·고 경명(高敬命)·사명대사(四溟大師)등 여러 명사와 교유하면서 허 균에게 학문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그와는 다섯 살 위인 허 난설헌(許蘭雪軒) 역시도 허 균과 함께 공부하면서 막내인 허 균을 극진히 보살펴준, 같은 형제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였던 사이였다. 허난설헌과 허 균 두 남매는 함께 형 봉의 친구이기도 한 이 달의 문하에서 시를 공부하였다. 이 달은 훗날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손꼽힐 정도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다.

선조 22년(1589) 22세의 나이로 생원 시험에 합격한 허 균은 합격의 기쁨과 함께 누이 허 난설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맛보아야 했다. 자신에게는 더없이 다정하게 대해 주었던 친 누이가 27세의 나이로 사별(死別)한 것이다. 그리고 24세 때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로 피난하여야 했다. 26세 때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세자 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 등의 벼슬로 정치적 생활을 시작한 허 균은 29세 되던 선조 30년(1597)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듬해 황해도 도사(都師)가 되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명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구애됨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성장하였던 허 균은 문재(文才)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서울의 기생을 끌어들여 별실에 숨기고 즐기는 등 방탕한 생활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형조 정랑(正郞)이 되었으며, 이어 병조 정랑, 사복시 정(司僕侍正)등을 거쳐 수안(遂安) 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선비로서의 자질에 손상을 끼치는 방탕한 기질로 말미암아 사륜(士倫)의 규탄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나 시와 술만으로 한적한 세월을 보냈다.

선조 39년(1606) 벼슬에서 물러나 한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허 균은 그가 문인임에도 불구하고 의흥위 부호군(義興衛副護軍)이라는 임시 군직(軍職)을 맡게 되었다. 명나라의 사신 주 지번(朱芝蕃)이 신종(神宗)의 맏손자가 태어났음을 우리 나라에 알리고 왕비에게 비단을 하사하려 왔을 때 조정에서는 원접사(遠接使)로 유 근(柳根)을 임명하였으나 막상 직접 나서서 중국 사신과 접촉하게 될 종사관(從事官)을 구하지 못하였다. 명나라는 임진 왜란 당시 군사를 보내와 우리나라를 도왔으며, 사신으로 온 주 지번 또한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터라 그에 맞서 접대할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없게되자 비록 직책이 없는 허 균이지마는 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조치한 것이었다. 이때 허 균은 임시직으로 종사관의 책임을 맡고 연회나 유람이 베풀어지는 장소에서 자신의 타고난 문재(文才)를

마음껏 발휘하여 주 지번을 따라온 중국 학사들을 아연 질색케 하였다. 이때 허 균의 집안과는 서로 다른 파인 서인(西人)의 신 흠(申欽)까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면서 허 균은 한편으로 최 치원(崔致遠) 이후의 시 작품 830여수를 4권의 책으로 엮어 그들에게 주며 우리의 문학을 소개하였으며, 주 지번에 게는 누이 허난설헌의 유고(遺稿)를 보이며 자랑하여 훗날 허 난설헌의 시가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하였다.

선조 40년(1607) 상의원 정(尙衣院正)을 거쳐 삼척 부사(三陟府使)에 부임한 허 균은 여기서 또다시 탄핵되어 파직되었다. 허 균은 당시의 관료들 사이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유학자로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교를 숭상하였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같이 염주를 목에다 걸고 부처를 모셔놓은 다음, 향 피우며 배례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이 사헌부에 알려지자 모든 대신들이 그를 탄핵하여 관직을 삭탈하였다. 그후 41세 때 다시 이 상의(李尙毅)의 종사관을 거쳐 형조 참의에까지 이르렀으나, 자원하여 물러났다. 이 당시 허 균은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천주교의 기도문을 얻어왔다.

44세까지 야인(野人) 생활을 하던 허 균은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癸丑獄事) 사건을 계기로 그가 40대까지 걸어온 길과는 일대 전환을 일으켜 본의 아니게 불의(不義)와 타협하며 벼슬길에 치닫게 되었다. 허 균은 평소 친하게 지낸 서류(庶流) 출신의 박 응서(朴應犀)·서 양갑(徐羊甲) 등과 내통하며 서류의 〈사로허통(仕路許通)〉을 상소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모반을 꾀하였던 8명을 동정하며 도와준 바 있었다. 이 8명 중에는 허 균의 처삼촌인 심 우영(沈友英)이 있었으며, 이 경준(李耕俊)에게는 대사를 꾀할 때 쓸 격문까지 써준 바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모반 계획이 폭로되고 그 화가 자신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허 균은 재빨리 이 이첨(李爾瞻)에게 붙어 정계에 복귀하였던 것이다. 이 이첨은 허 균의 문재를 이용하고자 죄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후하게 대해 주었다.

이 해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 오던 서 양갑 일당의 모략이 백일하에 들어남을 비롯하여 국구(國舅) 김 제남(金悌男)의 사사(賜死)와 영창 대군의 억울한 죽음, 이어서 인목 대비(仁穆大妃)의 폐비 문제를 둘러싸고 대북파(大北派)와 비대북파(非大北流)가 격렬한 접전을 벌이고 있을 즈음에 허균은 당시 이 덕형(李德馨)·윤 선도(尹善道)·기 자헌(奇自獻)·이 항복(李恒福) 등 여러 대신들의 반폐모론(反廢母論)에 대항하여, 실권을 쥐고 이들을 억누르던 이 이첨·정 인홍(鄭仁弘)의 일파에 흡수되어 맹렬히 폐모론을 주장하며 순탄 일로의 벼슬길을 내달았다. 그리하여 45세 때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된 것을 비롯하여 호조 참의·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49세 때는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이같이 세력을 형성하자 허 균은 인목 대비를 폐출시킴으로써 반대파를 몰아내고 보명(保命)을 굳게 하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경운궁(慶運宮) 투시서(投矢書) 사건을 심복 김 언황(金彦滉)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 반대파 기 자헌(奇自獻)과는 원수가 되고, 허균의 과거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던 기 자헌의 아들 기 준격(奇俊格)이 상소를 올려 죄상을 폭로하게 됨으로써 사태는 더욱 험악하여졌다. 이처럼 사태가 돌변하자 원임대신(原任大臣)이 그 죄를 논하게 되고, 양사(兩司)로부터는 기 준격과 더불어 문초하기를 청하게 되었다. 곽 영(郭瑛)·김 탁(金琢)등 여러 인사들이 그 죄를 극론하게 되자 허 균의 조종이던 이 이첨마저 변명에 궁하여 태세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에 허균은 목숨을 건질 마지막 수단일 뿐 아니라 그의 필생의 염원이었던 대사회개혁을 실현하고자 정권 탈취의 모의를 꾀하기에 이르렀다. 허 균은 그의 도당을 움직여 남산에 올라가 서적(西賊)이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오고, 유구(琉球)의 군대가 섬에 숨어 침략하려 하니 피란하라고 외치고 난 뒤 인심이 흉흉한 틈을 타서 대사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의 도중 현 응민(玄應旻)의 배신으로 사건 전모가 탄로되어 하 인준(河

仁俊)·김 우성(金宇成) 등의 일당과 함께 광해군 10년(1618) 8월 24일, 50세의 나이로 능지처참과 적몰가산(籍沒家産)을 당함으로써 한많은 일생을 마쳤다.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나 아무도 뒤를 따를 수 없었던 재능과 박학(博學), 그리고 종횡무진한 수완까지 갖춘 허 균이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하였다. 자신의 이상적인 국가 건설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평소의 개혁적인 의지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단시되는 결과만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적인 의지는 당시에는 이단시되었을 망정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근대적 사상을 여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천주교 서적을 수입하여 서양의 신문화를 이 땅에 심었고,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면서, 또는 중국에 가서도 중국인들의 오만함을 꺾고 우리 민족의 긍지를 과시하였던 허 균은 우리 문학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해외선전에도 힘썼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밝았던 허 균은 군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안으로는 사회 개혁을 주장하여 그 당시 악법이었던 서얼 차대의 철폐를 주장하였고, 적재 적소의 인물 등용과 함께 관원들의 검소한 생활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민의 입장에 서서 항상 그들의 고민을 같이 하였던 허균은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그의 일생을 통하여 일관되어 온 개혁적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였던 그였지만 그같은 뜻은 그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직 〈홍길동전〉에 남아져 오늘날까지 그 생명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시문에도 능하였던 허 균은 홍길동전 외에 《교산시화(蛟山詩話)》 《성소복부고(惺所覆瓿稿)》 《학산초담(鶴山樵談)》 등을 남겼다.

현재 허 균의 묘소는 부친 허 엽, 두 형인 허 성·허 봉과 함께 용인군 원삼면 맹리 양천 허씨 공동 장지에 자리잡고 있다.

병자 호란 때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귀감이 된

이 시직(李 時稷)

(1572—1637)

연안(延安)／성유(聖兪)／죽창(竹窓)
／충목공(忠穆公)

이 시직은 연성 부원군(延城府院君) 석형(石亨)의 6대손으로, 선조 5년(1572) 용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났던 그는 열 살 때부터 조 호익(曺好益)에게 글을 배웠으며, 김 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기도 하였다. 34세의 나이로 뒤늦게 과시(科試)에 응시한 이 시직은 선조 39년(1606) 사마시에 합격하고 인조 2년(1624)에 문과에 급제하여 별제(別提)가 되었으며, 이 해에 일어난 이 괄(李适)의 난 때 선조를 공주(公州)로 호종(扈從)하였다. 뒤에 종묘서 직장(宗廟署直長)이 되었다가 전적(典籍)·정언(正言)·사복시 정(司僕寺正)·봉상시 정(奉常寺正) 등을 지냈다.

이무렵 세력이 막강해진 후금(後金)은 명(明) 나라를 치기 위하여 조선에 군량과 병선을 요구하였으며, 종래의 형제국이라고 칭하던 관계를 일방적으로 군신의 관계로 고치는 반면 과중한 공물(貢物)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후금의 강압적 정책에 경직된 양국의 외교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인조 14년(1636) 4월 후금은 국호를 청(淸)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가 된 청 태종은 조선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같은 해 12월 2일 심양을 출발하여 압록강을 건너 국경을 침공(侵攻)한지 10여일 만에 서울에

육박하였다. 이에 당황한 조정은 주화파인 최 명길(崔明吉)로 하여금 협상케하는 한편, 봉림 대군(鳳林大君)·인평 대군(仁平大君)을 비롯한 비빈 종실(妃嬪宗室)을 강화도로 피신시켰다. 이 때 돈령 부사 윤방(尹昉)·중추 부사 김 상용(金尙容)·이 시직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그날 밤 선조 역시 강화도로 떠나려 하였으나 이미 길이 막혔으므로 남한산성으로 발길을 되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당시 성내(城內)의 군세는 1만 2천여명의 군졸과 식량 1만 4천여석이 고작이었고, 적군에게 겹겹이 포위된 채 50여일간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봉림 대군 일행이 피신하고 있던 강화에서는 그해 1월 중순경부터 청군(淸軍)이 건너 올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었으나 강물의 어름이 두껍지 않아 청나라 군사가 건너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청군은 1월 22일 수만의 군사로 강을 건너 강화도에까지 침입하였고, 수장(守長)들은 혼비 백산하여 다 도망치고 말았다. 결국 강화도 함락과 함께 인평 대군의 일행은 모두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이때 이 시직은 시임 봉상판관(時任奉常判官)에 있었는데 자신이 호종하여 강화에 들어왔던 두 대군(大君)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울분을 터뜨리며 송 시영(宋時榮)과 함께 죽어서나마 보국(報國)하고자 죽기를 다짐했다. 먼저 송 시영이 자결하자 이 시직은 묘 둘을 파서 하나는 비워놓고 송 시영의 시신을 매장한 다음, 나머지 빈 구덩이는 자기를 매장토록 종에게 일렀다. 옷을 벗어 주인에게 맡기고 염해줄 것을 부탁한 이 시직은 활 줄로 목을 매고 종을 시켜 잡아당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은 차마 줄을 당기지 못하였다. 이 시직은 하는 수 없이 망건과 유서를 종에게 준 다음 자신의 칼로 자결하여 최후를 마치니 이때 그의 나이 66세였다.

이 시직이 아들에게 유서하기를 "장강(長江)의 천험(天險)을 잃으니 북군이 나는 듯이 건너 오는데, 취한 장수는 황겁하여 나라를 배반하고 목숨을 유지하려드니 파수(把守)는 와해되고, 만백성은 어육(魚肉)의 화를 당하는구나. 하물며 저 남한산성이 조석(朝夕)간에 함락

될 것이니 의리상 구차히 살 수 없음으로 기꺼이 자결한다. 육신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루었으니 이제 아무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아—내 아들아, 삼가 생명을 상하지 말고 돌아가서 유해를 장사하고 노모를 잘 봉양하며 깊숙한 골짜기에 몸을 의탁하여 영영 세상에 나오지 말아라. 구구한 유원(遺願)은 네가 잘 계승하는 것에 있노라" 하고 끝을 맺었다.

이 시직의 유해는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의 선영 아래 모셔졌으며, 난이 평정된 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목공(忠穆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현재 그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는 곳은 용인의 충렬 서원을 비롯하여 강화의 충렬사(忠烈祠), 회덕(懷德)의 숭현 서원(崇賢書院) 등이 있다.

오 달제(吳達濟)

(1609—1637)

해주(海州)／계휘(季輝)／추담(秋潭)／충렬공(忠烈公)

오 달제(吳達濟)는 광해군 원년(1609)에 용인에서 오 윤해(吳允諧)의 아들로 태어났다. 오 달제는 인조 12년(1634)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인조 14년(1636)에는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 이때 후금(後金)의 사자가 와서 군신(君臣)의 의로 대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조야가 분격하여 척화·배금론(斥和排金論)이 비등하게 되었는데 오 달제는 장령(掌令) 홍익한(洪翼漢)·교리(校理) 윤 집(尹集)과 더불어 척화론의 선봉이 되었다.

만주에서 명나라 세력이 쇠퇴하자 여진족이 광해군 8년(1616)에 후금국을 세우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요동 지방을 정복하였다. 이 때 명나라 장수 모 문룡(毛文龍)이 그곳을 탈출하여 평안도 철산의 단도(椵島)에 진을 치고 후금을 후방에서 견제하려고 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후금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동시에, 요동이 함락된 후에는 바다를 통하여 명나라와 통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후금에서는 조선이 국내에 모 문룡을 머물게 하면서 은연히 원조하고 있고, 후금에 대하여는 사절의 내왕조차 없음을 계기로 명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조선에 침입하니 이것이 바로 인조 5년(1627)의 정묘 호란(丁卯胡亂)이다.

정묘 호란이 있은 후, 후금에서는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조선에 대

하여는 군량의 조달을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압록강 중의 중강(中江)과 회령(會寧)에서 저자를 열어 후금과 본격적으로 교역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후금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약조(約條)를 어기면서 식량과 병선(兵船) 등 부당한 요구를 강압하여 왔다. 그 뒤 후금이 만리장성을 넘어 명나라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더 많은 물자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물자의 반감을 교섭하려는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심양(瀋陽)에 이르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으며, 두 번째 사신도 압록강을 넘어섰다가 그대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후금의 무례한 태도에 분격하여 척화·배금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인조 14년(1636)에 후금에서는 용 골대(龍骨大)와 마 부태(馬夫太)를 사신으로 보내 후금에게 신하의 예로써 대하라고 요구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조야의 분격이 절정해 달해 홍 익한·오 달제·윤 집과 성균관 유생들이 사신을 목벨 것과 국서를 불태우도록 주장하였고, 홍문관·사간원도 척화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인조가 사신의 접견을 거절하고 국서도 받지 아니하자 사태가 험악해짐을 본 사신들은 민가의 말을 빼앗아 타고 도망하였다.

인조와 조정 신하들이 척화론으로 기울어지자 최 명길(崔鳴吉)은 "국가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으니 속히 화평할 사신을 파견하여 종묘와 사직을 보전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화평론을 주장하였다, 이 때 오달제와 윤 집 등이 일어나 최 명길의 목을 베도록 청하였다. 그래도 최 명길은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척화하자는 말은 옳은 듯하나 나라가 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화의를 하자는 말은 그른 듯 하나 종사를 위해서는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였다.

인조 14년(1636)에 후금의 태종은 황제의 칭호를 받고 나라 이름을 청(淸)이라고 하였다. 이 때 조선의 사신들은 그의 즉위식에 참여하였다가 구타를 당하였으나 끝내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였다. 태종은 이들을 돌려 보내면서 "왕자를 인질로 보내어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

(大軍)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보내 왔다. 이 해 11 월에 사신들이 심양에 이르자 이번에는 "왕자·대신 및 척화론의 주창자를 들여 보내되 만일 듣지 않을 때에는 군사를 발하겠다"고 거듭 경고하였다. 조선에서 이를 묵살해 버리자 청 태종은 10 만 군사를 이끌고 다시 침입하여 왔다.

청군이 압록강을 넘었다는 보고가 도착하자 조정에서는 세자빈·원손(元孫) 이하 봉림 대군(鳳林大君)·인평 대군(麟坪大君) 등을 강화도로 피난하게 하였다. 인조도 뒤따라 강화도로 떠나려고 하였으나 이미 청군에 의해 길이 막혀 버렸으므로 하는 수 없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자 서울에 입성한 청군이 남한산성을 겹겹이 포위하였고, 각도의 감사·병사가 거느리고 올라오던 구원병도 모두 패하고 말았다. 이때 남한산성 안에서는 강화론과 주전론이 맞서 논쟁을 거듭하였는데, 성내의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결국 강화론으로 기울어져 적진에 강화를 청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청 태종은 "인조가 친히 성을 나와 군문에 항복하고 맹약을 깨뜨린 주모자 2·3 명을 묶어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주저하던 중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인조는 하는 수 없이 세자와 함께 삼전도(三田渡)의 적진으로 나아가 군신의 예를 다한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성립시켰다. 청 태종은 강화도에서 잡은 포로를 송환한 다음 그들의 진중에 억류하였던 세자·세자빈과 봉림대군을 인질로 하고 척화론의 주모자 오 달제와 윤 집을 잡아 심양으로 돌아갔다. 오 달제와 윤 집이 처음 적진에 잡혀갔을 때 용골대는 가혹할 정도로 문초하였으나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자 다시 심양으로 끌고 갔다. 심양에서도 그들은 갖은 협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굴하지 아니하였다. 목숨보다 의를 택한 오 달제와 윤 집은 결국 성의 서문 밖으로 끌려나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죽음을 얼마 안 남기고 오 달제는 윤 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다.

죽는다는 것은 비록 인간의 상정(常情)으로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

만 잠깐 동안만 참으면 마침내 아무 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더군다나 죽음보다도 두려운 불의(不義)가 있는데 구차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어찌 비루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만약 저들의 말을 쫓아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산다면 마침내 오랑캐가 되고 말 것이니 이말을 어찌 쫓을 수 있겠는가.

오 달제가 심양에서 죽음을 당하였을 때 그가 태어났던 용인군 원삼면 학일리(學日里) 마을에는 그해 봄에 모든 풀들이 말랐다고하여 지금도 이름을 고초골(枯草谷)이라고 한다.

홍 익한도 뒤이어 잡혀 가 또 사형에 처해졌으니, 세간에서는 이들을 삼학사(三學士)라고 불렀다. 그 후 조정에서는 이들의 시신을 거두어 돌려주길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절의에 감복한 청 태종은 그들이 처형된 자리에 「삼한삼두(三韓三斗)」라는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이들 삼학사의 절개와 충의는 효종(孝宗)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포상되었는데 오 달제에게는 영의정이 추증되고 충렬(忠烈)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숙종 14년(1688)에는 남한산성 동문안 북쪽 기슭에 당(堂)을 세워 현절사(顯節祠)라 이름하고 그들의 뜻을 기렸으며, 평택의 포의사(褒義祠)와 홍산(鴻山)·영천(榮川)의 서원에서도 각각 제향하였다.

현재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에 있는 그의 묘소에는 그가 평소 차고 있던 요대만 묻혀 있으며, 그 앞 좌우에는 부인 의령 남씨(宜寧南氏)와 고령 신씨(高靈申氏) 두 분의 묘가 지키고 있다.

유 형원(柳馨遠)

(1622—1673)

문화(文化)／덕부(德夫)／반계(磻溪)

유 형원은 광해군 14년(1622) 정월에 서울 정릉동에 있는 외가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한림(翰林)의 검열(檢閱)을 지낸 유 흠(柳欽)이며 모친은 우참찬 이 지원(李志元)의 따님이다. 대대로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벼슬을 지낸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비교적 여유있는 집안에서 자랐다. 태어날 때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유 형원은 이미 4세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7세때 서경(書經)을, 9세때는 주역(周易)을 읽었으며, 10세때부터는 유학의 경서(經書)를 비롯 제자백가의 책들을 섭렵하여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또한 천성이 인자하고 기개가 넘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대담하였던 그는 여러 가지 일화(逸話)를 남기고 있다. 그가 병자호란을 피하여 조부모와 어머니, 고모를 모시고 원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15세 밖에 안된 그는 길거리에서 도둑의 떼를 만났으나 조금도 겁내지 않고 태연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 "사람이라면 누구에겐들 부모가 없으리요. 너희들은 우리 부모를 놀라게 하지 말고 어서 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이와 같은 유 형원의 태도에 감동한 도둑들은 그냥 돌아갔다 한다.

유형원은 효성 또한 지극하였으며 형제 자매와도 우애가 깊었다

고 한다. 21세 때 〈자경사잠(自警四箴)〉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며, 관(冠)을 바르게 하고 어버이를 높이 우러르며, 어버이를 섬기되 화기에 찬 얼굴로 하고, 집에 있음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귀절에 항상 부족함을 느껴 스스로 자책하곤 하였다. 또한 유 형원은 한때 부안현 우반동에서 살았는데 그 곳에서는 생선과 게가 많이 산출되는 곳이므로 그는 밥상을 대할 때마다 "전에는 가세가 빈한하여 어버이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못한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것이 있으나 누구에게 드리랴." 하고 돌아간 부모 생각을 하며 눈물까지 흘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서울에 떨어져 있는 그의 누이와의 정분을 못잊어 곡식을 보내기도 하였다.

과거를 보기 싫어한 유 형원은 집안 어른들의 성화에 못이겨 효종 5년(1654) 33세의 나이로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했으나, 그 뒤로는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가 44세이던 현종 6년(1665년), 조정에서는 큰 인물이 숨어지낸다 하여 재상들이 뜻을 모아 수차례 천거하였으나 유 형원은 "내가 재상들을 알지못하는데 재상들이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인가."하면서 벼슬에의 길을 버린 채 갖가지 사회 현실의 부패를 신랄히 비판하여 조정을 떠들석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가 대대로 이름난 문벌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때부터 신동으로 불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이 너무나 어지러웠던 나머지 관료에 염증을 느끼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의 성품이 벼슬보다는 초야에서 백성과 더불어 즐기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다니는 서민적인 기질의 탓이었다고 하겠다. 유 형원은 조부모 슬하에 있었을 때에도 홀연히 여행을 떠나 여러 지방을 유람했으며, 부안으로 이사한 뒤에도 호남·영남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민정(民情)을 살피고 산수를 즐겼다.

진사가 되던 해, 즉 효종 4년(1653)부터 지금의 변산 반도인 전라도 부안(扶安)의 우반동(遇磻洞)에 이사와서 일생을 이곳에서 보낸 유

형원은 평생 저술(著述)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유 형원은 이 우반동에서 당시 퇴폐한 토지제도 및 부패한 사회 현실을 한탄하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개혁 등 일체의 제도 개편을 주장한 《반계수록》을 집필해서 모두 19년이나 걸려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현종(顯宗) 11년(1670)에 완성하고 수록보유(隨錄補遺)라 하여 미흡한 점을 보충하려다 생전에 끝을 못맺고 말았다.

《반계수록》은 총 26권 13책 및 보유(補遺)로 되어있으며, 6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제(田制)를 비롯해서 교육을 논한 교선제(敎選制), 관리의 채용요령을 논한 임관제(任官制), 관리제도를 비판한 직관제(職官制), 봉급제도를 비판한 녹제(祿制), 국방(國防)을 논평한 병제(兵制)와 그 외에 보유(補遺)로서 군현제(郡縣制)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토지제도 확립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 형원은 전제(田制)의 정비 위에 국민의 부담과 국가의 재정을 논하고 그 기초위에 국방(國防)과 학제(學制)를 바로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의 근원인 토지와 생산자인 농민이 올바르게 결합되지 않으면 국가의 병폐는 이로써 발생한다고 본 그의 토지 개혁은 그가 오랫동안 농촌생활에서 직접 보고, 듣고 혹은 체험해서 얻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 형원은 "《반계수록》은 내가 고금의 서적을 읽다가 얻은 것을 쓴 것도 있으나 대개 나의 사색 가운데서 우러난 것을 생각나는대로 기록한 것이다……생략……이것은 세상에 내어 공개하려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나의 사적인 차기(箚記)로서 스스로 고험(考驗)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주장이 제세 구민(濟世救民)의 강렬한 부르짖음이었던 만큼 결코 사사로운 비망록으로서 깊이 간직하여 두자는 것은 그의 참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 유 형원은 비록 관계(官界)에 나가 그의 뜻하는 바를 실천에 옮길 생각은 없었으나 그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알려 제도를 개혁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국가

질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참뜻이 있었음은 사실이었다.

숙종 4년(1678)에 그의 벗 배 상유(裵尙瑜)가 《반계수록》 중의 7개조를 들어 실시하고자 조정에서 논한 일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으며, 숙종 20년(1694)에는 노 사효(盧思孝) 등의 유생들이 상소문과 함께 《반계수록》 초본 일부를 왕에게 올렸으나 아무런 환심도 사지 못하였다. 그 후 영조 17년 (1741)에야 승지(承旨) 양 득중(梁得中)의 집요한 노력 의하여 왕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영조 45년(1769)에 이르러서는 어명으로 홍 계희(洪啓禧)로 하여금 이를 간행하게 하였으니 이는 유 형원이 죽은지 거의 1세기가 지난 뒤의 일이었다.

《반계수록》 외에도 성리학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역사·지리·군사·언어·문학에 걸친 20여종의 각종 저서와 문집을 남긴 유형원은 정 인보(鄭寅普)가 그의 저서를 통해 "조선의 학술사를 구분할 때 반계가 일조(一祖)요, 성호(星湖)가 이조(二祖), 다산(茶山)이 삼조(三祖)"라고 했듯이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이 수많은 저술을 통하여 이용 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인 실학을 펴는데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공적이라 할 수 있다.

유 형원의 이같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적 기초는 어려서부터 그를 가르친 외삼촌 이 원진(李元鎭)과 고모부인 김 세렴(金世濂)으로부터 받은 간접적인 영향과 그가 우반동에서 탐독한 청의 고증학(考證學)과 선조(宣祖) 이후 소개된 서구의 과학 서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유 형원의 저술로 알려진 《동사강목조례(東史綱目條例)》《역사동국가고(歷史東國可攷)》《서설서법(書說書法)》《지리군서(地理群書)》 등은 그가 청의 고증학 연구에서 이어받은 새로운 학풍의 산물이다. 유 형원의 실학 사상은 그의 뒤를 따른 이 익(李瀷)과 정 약용(丁若鏞) 등에 의해서 더욱 확고하게 되고 하나의 학파를 이루기까지 하였다.

유 형원은 현종 14년 (1673) 3월, 서울에서 벼슬을 버리고 우반동으로 이주한 지 꼭 20년 되는 해에 병을 얻어 고생하다 세상을 마쳤는데 이때 나이 52세였다. 그의 묘소는 선영이 있는 용인군 외사면 석천 2리 정배산(鼎排山)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방 기념물 32호로 지정되어 정성스럽게 보존되어 오고 있다.

신흥 소장 세력의 교두보

남 구만(南九萬)

(1629—1711)

의령(宜寧)／운로(雲路)／약천(藥泉)

·미재(美齋)／문충공(文忠公)

남 구만은 조선조 개국 공신인 재(在)의 후손으로, 인조 7년(1629) 현령(縣令)인 일성(一星)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던 그는 동춘당(同春堂) 송 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 글을 배으며, 23살 되던 효종 2년(1651)에 사마시를 거쳐, 1656년에는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다. 32살되던 현종 1년(1660)에는 이조 정랑이 되었고, 1668년에는 안변 부사·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1674년에는 함경도 관찰사로서 서북지방에 유학을 크게 보급 발전 시키는 한편 북쪽 변경의 수비를 견고히하는 등 수많은 치적을 남겼다.

남 구만이 살았던 시기는 조선 5백년 가운데도 당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특히 현종(顯宗)과 그 뒤를 이은 숙종(肅宗)시대는 당쟁이 가장 격심한 시기였는데, 당파끼리의 싸움은 국가의 안위나 백성의 복지 문제 등 정치상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개는 복상(服喪) 문제와 왕비(王妃)의 책립(册立)과 같은 궁중의 예사로운 일로, 타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목적때문이었다.

현종이 즉위한 직후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西人)과 남인(南人)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효종(孝宗)이 승하하자 인조의 계비(繼妃)인 조씨(趙氏)의 복제(服制) 문제를 둘러싸고 중신(重臣)들 사이에서 논쟁(論爭)이 시작된 것이다. 서인인 이조 판서 송 시열(宋時烈) 등

은 "효종이 국군(國君)이기는 하나 윤서(倫序)로 보면 차자(次子)이므로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복제(服制)는 만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하여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였고, 남인의 영수인 윤 휴(尹鑴)는 "첫째 아들인 소현 세자가 돌아갔으니 둘째 아들인 효종이 곧 장자(長子)이다"라고 맞서 3년설(三年說)을 내세웠다. 이같이 수차례에 걸쳐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을 거듭한 끝에 현 종은 결국 서인들의 주장에 따라 기년설을 택하였다. 이로인해 남인들은 일대 타격을 받았다.

첫번 예송(禮訟)이 일단락된지 8년만인 현종 15년(1675)에 두 번째 예송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효종비(孝宗妃)인 인선 대비(仁宣大妃)가 승하하자 인조 계비(仁祖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서인들은 대공설(大功說 ; 9개월)을, 남인들은 기년설을 주장하며 싸움이 재연되었다. 현종이 이번에는 남인들의 주장을 택하였다. 이로 인해 서인들이 정전(政殿)에서 물러나고 남인의 허적(許積)이 영의정이 되었다.

1614년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14살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더욱 득세한 남인들은 "송 시열 등의 수십년 집권은 그 해(害)가 홍수(洪水)나 맹수(猛獸)보다 심하다"고 까지 공격하였으며, 송 시열 등 서인에 대한 처벌 문제로 남인도 온건파와 강경파로 갈라졌다.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갈라진 남인들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 숙종 6년(1680)에 일어난 이른바 〈3복(三福)의 옥(獄)〉을 계기로 서인들에 의해 축출되었다.

이무렵 남 구만은 서인으로 입조(入朝)하여 도승지(都承旨)·부제학(副提學)·대사간 등을 역임했으며, 숙종 9년(1683)에는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이해 4월부터 노·소론이 분열되자 소론의 편에 섰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소론의 영도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송 시열 등의 노론에 대항하는 신진 소장의 그룹이 소론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관직상가장 우위에 있었던 인물이 남 구만

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남 구만은 계속 승진하여 이듬해에 우의정, 숙종 11년(1685)에 좌의정, 그리고 2년 뒤에는 영의정까지 올랐다. 그러나 숙종 15년(1689) 장 희빈(張禧嬪) 소생의 세자 책봉 문제를 계기로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자 남 구만은 강릉으로 유배되는 몸이 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꼭 5년 뒤인 숙종 20년(1694)에는 소론을 탄압하려던 남인 출신의 우의정 민 암(閔黯)이 도리어 숙종의 미움을 받아 사사(賜死)되고 남인이 실각하는 갑술 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 남 구만은 다시 영의정으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소론은 관직의 상부에 포열(布列)하게 되었고, 남 구만은 소론의 영수로서 노론에 맞설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숙종 27년(1701) 희빈 장씨에 대한 처벌문제에 있어 노론은 중형(重刑)을 주장할 때 남구만은 여러 소론들과 더불어 경형(輕刑)을 주장하였는데 숙종이 스스로 장 희빈의 사사(賜死)를 결정하자 남 구만은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후 남 구만은 노론에 의하여 여러 차례 삭직·유배 등의 파란을 겪다가 서용(敍用) 되었으나, 숙종 33년(1707)에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숙종 37년(1711)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자 숙종은 그에게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종묘에 배향케 하였으며, 강릉의 신석 서원(申石書院), 종성의 종산 서원(鍾山書院), 무산(茂山)의 향사(鄕祠)에서도 배향하였다.

한편, 이와같이 당쟁 속에서 한 평생을 살다간 남구만은 문사(文詞)나 서화(書畵)에도 뛰어났다. 《청구영언》에 전해지고 있는 다음 시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해들아 상기아니 일었느냐
재넘어 사래 긴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와같이 전원적인 시조 작품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의 문학적 소질이 뛰어났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의 저서로 현재 전하는 것은 《약천집(藥泉集)》과 《주역참동계주(周易參同契註)》가 있으며, 글씨로는 남 지(南智)의 비석과 장현광(張顯光)의 비석이 남아져 있다. 개심사(開心寺), 양화루(兩花樓), 영송루(迎送樓)의 액자(額字)도 그가 쓴 것이다.

남 구만의 묘소는 현재 모현면 갈담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의 8대 손인 남 표희(南杓熙)씨 집에 가보로 전해지는 영정 2점과 집 뒤에 사당이 있다.

오 명항(吳命恒)

(1673—1728)

해주(海洲)／사상(士常)／모암(慕庵)·영모당(永慕堂)／충효공(忠孝公)

오 명항은 수량(遂良)의 아들로 현종 14년(1673)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문무(文武)의 재략(才略)이 뛰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이 아이는 반드시 나라의 동량재가 될 것이다" 칭찬하며 부러워하였다 한다. 일찍기 부친을 여읜 오 명항은 홀로된 어머니 여씨(呂氏)를 지성으로 모시었는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티끌만한 불편도 끼치지 않았다.

오 명항은 숙종 31년(1705)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이후 교리(校理)·설서(說書)·사서(司書) 등을 지내고, 이듬해 부수찬(副修撰)을 맡았다. 뒤에 필선(弼善)의 직책까지 겸하였다. 숙종 41년(1715) 이조 좌랑(吏曹左郎)을 비롯하여 승지, 경상도와 강원도, 평안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던 오 명항은 다시 사직(司直)의 자리에 있다가, 영조 즉위년(1724)에 소론(少論)이 실각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 후 정미 환국(丁未換局) 때 소론이 등용하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다시 기용되었으며, 이조·병조판서를 지냈다. 이듬해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오 명항은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겸 사도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에 임명되어 난을 진압하는데 앞장 섰다. 이 인좌의 난을 진압하고 공을 세운 오 명항은 분무공신(奮武功臣)으로 책정되고, 해은 부원군(海恩府院君)으로 봉하여졌다. 이때 그의 지략과 용맹에 감동한 영조는 친히 남대문의 누대에 올라가 개선하는

오 명항을 맞이하였다 한다.

본래부터 풍모가 크고 인품이 뛰어났던 오 명항은 저절로 위엄이 나타나 보였으며, 춘추 전국 시대의 용맹으로 이름난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에 견주어지곤 하였다. 그리고 나라의 일을 처리함에선 의연하고 부동한 자세로 임해 감히 다른 사람이 그를 헐뜯지 못하였다. 또한 그는 생각함이 깊고 원대하여 모든 일에 착오가 없었는데, 남궁(南宮)과 서궁(西宮)을 세울 때는 미리 비축해 놓은 금과 쌀로 그 경비를 쓰게하여 아무런 부담없이 순조롭게 그 일을 마치게 하였다. 이를 본 주변의 대신들도 그의 깊은 생각에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고 감탄하였다.

또한 오 명항은 우리 나라 역대의 재상 중에서도 효행이 뛰어나 영조 대왕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은전(恩典)을 받은 바 있다. 그가 50세 때 모친 여씨가 세상을 마쳤는데, 이때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어린 아이처럼 뒹굴며 몹시 애통해 하였다 한다. 그리고 시묘(侍墓)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상례에 따라 하여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성묘하고 죽만을 먹으며 3년 상을 마쳤다. 이같은 효행이 영조에게까지 알려져 조정대신으로 하여금 살펴서 효자 정려의 은전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오 명항은 해은부원군으로 봉해진 후 다시 우찬성(右贊成)으로 승진되었으나, 자신도 이 인좌와 같은 소론이었다는 자책에서 사퇴하고자하였다. 그러나 그의 충정을 익히 아는 영조는 허락치 않고 오히려 같은 해 6월에 우의정으로 발탁하였다. 이에 오 명항은 신병을 구실로 다시 사퇴를 상소하고 물러나 있다가 영조 4년(1728) 9월 9일 동호 교사(東湖僑舍)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의 효성과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그에게 충효공(忠孝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훗날 영조가 그의 묘소 부근을 지나다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며 곁에 있던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공은 가정에서는 효자요, 나라에서는 충신으로 실로 얻기 어려운 현신(賢臣)이었다"고 하였다 한다.

그의 묘소는 현재 용인군 모현면 양촌리 선산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조 후기 성리학의 대가

이 재(李縡)

(1680—1746)

우봉(牛峯)／희경(熙卿)／도암(陶菴)

·한천(寒泉)／문정공(文正公)

이 재는 숙종 6년(1680) 진사였던 만창(晩昌)의 아들로 태어났다. 효종 때의 학자인 이 만성(李晩成)은 바로 그의 작은 아버지이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재능이 뛰어났던 이 재는 숙종 28년(1702)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찬집청 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 《단종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숙종 33년(1707)에 다시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었으며, 그 후 헌납(獻納)·북평사(北評事)를 지내고 한 때 사가독서(賜暇讀書)하기도 하였다. 숙종 37년(1711) 이조 정랑(吏曹正郞)이 되었으며, 문학(文學)을 겸직하여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숙종 42년(1716)에는 승지(承旨)로 승진하여 노론(老論)의 한 사람으로서 가례 원류(家禮源流)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자 소론(少論)을 통박하였다. 이 당시 이 재는 그의 작은 아버지인 이 만성과 함께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하여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었으며, 후일 우리 나라 예의 범절을 체계화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이같은 주자가례에 대한 깊은 지식 속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숙종 45년(1719)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에는 임시로 영남 균전사(嶺南均田使)의 책임을 맡고 영남으로 내려가 전제(田制)의 문란을 일일이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진

술하였다가 그를 시기하는 대신들의 무고로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그러나 그같은 진술이 사실임이 곧 밝혀져 다시 등용되어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 후 대사헌·이조 참판·대제학·한성부 판윤·공조판서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예조 참판으로 있었으나, 경종 1년(1721) 소론의 재집권으로 다시 삭직(削職) 당하였다. 이어 2년 간에 걸쳐 정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신임사화(辛任士禍)〉로 그의 작은 아버지인 이 만성이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강원도 설악산 기슭으로 들어가 성리학의 연구에만 전심하였다.

영조(英祖)가 즉위하고 노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이 재도 다시 복직되었는데, 이때 이 재는 신임 사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찾아내어 처벌할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여러 차례 일어난 사화를 수습하기 위한 탕평책을 내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재는 다시 용인으로 물러나와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이동면 천리 부근의 한천 서원(寒泉書院)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드는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연구하며 저술에만 몰두하였다.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벼슬에서 물러나와 은거하였던 이 재는 50권에 이르는 문집 《도암집(陶菴集)》과 《주자어류초절(朱子語類抄節)》 《근사심원(近思尋源)》 《오선생휘언(五先生徽言)》 《검신록(檢身錄)》 《주형(宙衡)》 《서사윤강(書社輪講)》 《사례편람》 등의 저서를 지었다. 이 가운데 《사례편람》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라 할 수 있다. 《사례편람》은 일상 생활 중의 관(冠)·혼(婚)·상(喪)·제(祭) 등 예의 범절에 관한 저술로 8권 4책으로 되어 있으며, 주자가례를 체계화 하여 당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지은 것이다. 이 《사례편람》은 우리나라의 예의 범절에 관한 책 중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 가정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필수적인 책으로 소장하고 있어 그야말로 일상 생활의 예전(禮典)이 되었다. 또한 이 책은 관혼상제에 따르는 설명과 함께 일일이 도식(圖式)을 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였는데, 이 도식은 《사례편람》의 내용과 함께 우리 나라 중세의 민속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복제(服制)와 관련된 친족 관계의 법학 내지 봉건 제도하의 사회학적 연구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저술은 성리학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재는 김 창협(金昌協)의 문하인으로 조 광조와 율곡(栗谷) 이 이(李珥)에게 사숙한 바 있으나 학문적으로는 이 율곡의 입장을 따르면서 다소 퇴계(退溪) 이 황(李滉)에 접근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당시 학문의 논쟁이 되었던 심성론(心性論), 즉 사람과 사물의 성(性)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에서 이 재는 "짐승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오상(五常 ; 인·의·예·지·신)을 다 가지고 있으며 본래의 성(性)은 같다"는 낙론(洛論)을 주장하여 한 원진(韓元震), 윤 봉구(尹鳳九) 등이 주장한 호론(湖論)을 논박하였다. 다음의 견해는 이 재의 학문적 입장을 잘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일찌기 천지간에 이(理)와 기(氣)가 있어서 서로 분리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혼잡하지도 아니하나, 기가 이보다 승(勝)하면 난(亂)하고, 이가 기보다 승하면 치(治)하는 것이다. 요컨대 성현의 말씀은 모두가 이위기주(理爲氣主)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의 공은 바로 도성선(道性善)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범인(凡人)과 요순(堯舜) 사이에 본래 이성(二性)이 없는 것을 갈파한 말이다. 만약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맹자가 간신히 도득(道得)한 성(性)을 지금에 와서 다시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이 재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대가로 이 율곡의 학통을 이었으며, 《율곡전서(栗谷全書)》도 그의 손에 의해 산정(刪定)된 것이다.

이 재는 성리학 뿐만 아니라 서화(書畵)에도 뛰어났다. 일찌기 예조 참판 홍 우전(洪禹傳)과 오 이주(吳履周)의 표를 쓴 바 있으며, 김 인후(金麟厚)의 비석도 그가 쓴 것이다. 용인에 현재 남아져 있는 글과 글씨로는 내사면 송문리의 유 복립(柳復立) 정려 현액(懸額)과 기흥면 지곡리의 사은정(四隱亭) 제영(題永)이 있다.

영조 22 년(1476) 67 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친 후, 영조로부터 문정공(文正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묘소는 이동면 천리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동면 천리 노루실에 한천 서원(寒泉書院)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터만 남겨져 있다.

조선조 후기의 대 정치가

채 제공(蔡濟恭)

(1720—1799)

평강(平康)／백규(伯規)／번암(樊巖)／문숙공(文肅公)

조선조 후기의 대정치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채 제공은 숙종 46년(1720) 충남 홍성에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응일(應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많은 일화를 남기었고 재주가 출중했던 채 제공은 그의 어머니가 황룡이 집을 뚫고 올라가는 꿈을 꾸고 낳았다고 한다. 또 세 살 때에는 이빨로 어머니의 젖을 다치게 하고서 깜짝 놀라 울면서 사흘 동안이나 젖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본래 그의 집안은 문장과 벼슬로 이름이 있는 집안이었지만 당쟁의 치열로 정국이 불안하자 홍성으로 낙향해 있었다. 따라서 채 제공은 서울에 있는 외척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오 광운(吳光運), 강 복(姜樸) 등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려서부터 정치에 큰 뜻을 품고 있었던 채 제공은 18세 때 뜰 앞의 노송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자신의 포부를 다짐하곤 하였다.

옆으로 굽어 있어 위로 자라지 못하네만	縱成屈曲當前障
위로 뻗어 자랄 마음이야 잊을 수 있으랴	不忘升騰向上心

채 제공은 영조 19년(1743)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 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를 거쳐 수찬·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 29년(1753)에는 호서지방에 암행어사로 내려가 균역(均役)

과 염세(鹽稅)의 실시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올렸고, 영조 34년(1758)에는 도승지로서 《열성지장(列聖誌狀)》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한성부 우윤·예조 참판·병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영조 47년(1771)에는 호조 판서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 그 후 평안도 관찰사·예조 판서를 지냈다.

그는 사물을 대할 때 사리와 예지로 처결하였고, 또 악한 것을 미워하기를 자못 엄하게 하였으므로 김 상로(金尙魯)·홍 계희(洪啓禧) 등의 모함을 받기도 하였다. 영조 38년(1762) 채 제공이 마침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였는데, 이해 5월 13일에 영조는 창덕궁에서 동궁(東宮)을 폐할 것을 명하였다. 채 제공이 이 소식을 듣고 상복차림으로 입궐하여 부복하기를 열흘 동안이나 하였으며, 가슴을 두드리며 하늘에 부르짖기를 마지 아니하니 영조도 몹시 괴로워 하였다. 1776년에 영조가 승하하고, 왕세손인 정조가 즉위하자 정조는 김 상로등의 죄를 바로 하고, 채 제공을 입시케 하여 말하기를 "선왕께서 일찌기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네 부자(父子) 사이를 온전하게 한 사람은 채 제공이다. 진실로 나의 순신(純臣)이요, 너의 충신이니라' 하셨다."고 영조의 유음(遺音)을 전하였다. 이후 채 제공에 대한 정조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형조와 병조의 판서를 지낸 채 제공은 이듬해 벽파(僻派)인 홍 상범(洪相範)이 호위군관(扈衛軍官)과 공모하여 정조를 시해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일어나는 등 왕의 신변이 위태하자 창경궁(昌慶宮)의 수궁대장(守宮大將)으로 자원하여 수차에 걸친 벽파의 음모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또한 정조 4년(1780) 홍 국영(洪國榮)의 세도정권이 무너진 후 국정이 혼란해지자 채 제공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왕을 도와 충실하게 보필했다. 이듬해에는 규장각 제학으로 서 명응(徐命膺)과 함께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찬했고, 이어 예조 판서·평안도 병마절도사·지중추부사를 역임한 후, 정조 12년(1788) 우의정을 거쳐 이듬해 좌의정에 올랐다.

채 제공이 좌의정으로 있을 무렵 당시의 국정은 천주교의 문제로, 그 교세 확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놓고 시파(時派)와 벽파, 신서파(信西派)와 공서파(功西派)가 대립하였던 때였다. 채 제공은 신서파의 영수로서 공서파에 맞서 천주교 신봉에 대해 묵인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체로 채 제공은 현실적으로는 천주교에 대하여 반대편에 서면서도 그 서학(西學)의 중심이 같은 계열인 남인 학자의 쟁쟁한 사람이었으므로 그 입장이 난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되도록이면 천주교를 이해하려 하였고, 정조와 더불어 천주학의 교리에 관한 토론도 하였다. 정학(正學)을 세워 일으키면 사학(邪學)인 천주학은 저절로 도태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온건론을 폈던 것이다.

정조 15년(1791)에 이른바 진산 사건(珍山事件)이 일어났다. 진산의 윤 지충(尹持忠)이 부모의 상을 당하여 신주(神主)를 세우지 않고, 또 윤 지충의 외종형(外從兄)인 권상연(權尙然)이 숙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관헌의 국문에도 불구하고 배교(背敎)를 거부하여 형사(刑死)되었다. 이에 공서파들이 들고 일어나 탄압을 하게 되니, 그 처음으로 당하는 교난에 이 벽(李檗)·이 승훈(李承薰)·권 일신(權一信)·이 단원(李端源)·정 약전(鄭若銓)·정 약용(鄭若鏞) 등이 신앙을 잃었던 것이다. 채 제공은 이때 공서파의 배척으로 파직되었다가 2년 후에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이로부터 채 제공이 재상으로 있던 10여년 동안은 정조의 관용과 채 제공의 온건정책으로 하여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가 조정에 있는 동안에는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그다지 광범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지도급 신봉자들도 단지 유배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채 제공의 이러한 온건정책은 부단히 벽파와 공서파의 공격을 받아 삭직·부처·유배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또 사후(死後)인 순조 즉위년(1801) 정순 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할 때 그 또한 관작을 추탈당하였다. 그의 관작이 다시 회복된 것은 순조 23년(1823)의 일이었다.

대체로 채 제공의 집권기간은 비교적 당쟁이 완화되고 조선조 후기의 문화적 광휘를 발하던 시기였다. 그것은 위로 정조와 같은 호학(好學)의 군주가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체 제공의 원만한 정책 수행에 크게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한편 그는 경제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조 29년(1753) 호서 지방에 암행어사로 가서 직접 체험한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조세부과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근래에 유수지배(遊手之輩)가 전호(廛號)를 자작(自作)하여 인생 일용 물종(日用物種)을 도고(都庫)하지 않는 것이 없어 물가가 예전에 5배나 뛰었으니 신설의 전호는 일체 혁파하고 육의전(六矣廛)외에는 난전을 허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을 보면 그가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19년(1743) 24세의 나이로 정치 생활에 발을 딛기 시작하여 그가 정조대에 영의정에 이르기까지 내외 여러 중요 관직을 역임하면서 이루어 놓은 업적은 실로 지대하다고 하겠다.

정책 수행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채 제공은 시문이나 글씨로도 널리 이름나 있는 문인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로 《번암집(樊岩集)》 59권이 있으며, 현재 용주사(龍珠寺)에 소장되어 있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의 경판은 채 제공이 쓴 것이다. 또한 수원성 축성시 모든 설계 및 경영을 지휘했던 경륜 역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조 23년(1799) 80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채 제공은 현재 용인읍 덕북리 산 기슭에 영면하고 있으며, 묘역에는 그의 공적을 찬양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정조가 친히 대전(大篆)을 쓰고 글을 지은 뇌문비(誄文碑)가 지방문화재 17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정조 대왕의 총애를 받은 명장

이 주국(李柱國)

(1721—1798)

전주(全州)／군언(君彦)／
오백당(梧栢堂)／무숙공(武肅公)

이 주국은 정종(定宗)의 아들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으로 경종 1년(1721) 3월 23일에 용인군 원삼면 문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호조 참판으로 추증된 함(涵)이고, 어머니는 능성 구씨(陵城具氏)이다. 이 주국이 태어나던 날 밤 부친의 꿈에 한 마리의 검은 용이 대들보를 타고 올라가다 돌연 준마(駿馬)로 변해서 마당뜰 가운데 서 있음을 보고 낳다고 하여 처음 이름은 준득(駿得)이라 하였다. 주국은 관례 후의 이름이다.

일찌기 두 살 때 부친을 여읜 이 주국은 어머니 구씨를 지성으로 모셨으며,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고 생각함이 깊어 늘 어른스러웠다. 따라서 모두들 그를 보곤 "그 애는 훗날 반드시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한다. 14세 되던 해에는 어머니 구씨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이때 이 주국의 애통해 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도 장례를 절차에 어긋남 없이 마친 이 주국은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보다도 더욱 글 읽기에 열중하였으며, 평소 즐기던 활쏘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영조 16년(1740) 문과 보다는 무과에 더 자신이 있었던 이 주국은 평소의 기량으로 쉽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친 그는 영조 24년(1748)에 함양 부사(咸陽府使)

로 부임해 가던 도중에 일본 통신사 종사관인 조 명채(曹命采)의 천거로 금위영 낭청(禁衛營郎廳)을 제수받고 일본 통신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일본인들은 이 주국의 위엄스러운 모습을 보고 모두 감탄해 하며 서로 나서서 보고자 하였다 한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호조 좌랑으로 승진되고 울진 현감으로 임명받았으나, 곧 훈련원정(訓練院正)으로 옮겨졌다. 그 후 외직으로 물러나 있다가 영조 27년(1751) 선주 부사(宣州府使)로 있으면서 동림산성(東林山城)을 개축하는 등 감영의 방비를 튼튼히 한 공로로 훈련원으로 다시 보직받았다. 그리고 영조 34년(1758)에는 금별장(禁別將)으로 있다가 교동(喬桐)으로 부임 중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직하고 고향인 원삼면 문천리에 내려와 머물러 있었다. 이어 복직해서 부임하였으나 시기하는 자들의 무고로 면직되었다. 이에 이 주국은 이후로는 다시 벼슬에 나아가지 않을 마음으로 문천리로 낙향하였다. 고향에 내려온 그는 자그마한 정자를 지어 퇴보(退報)라 이름하고, 거기서 문천리의 이웃 주민들과 바둑과 담소로 소일하며, 한편으로는 농사 일에 만족해 하며 지냈다. 그가 낙향한 이후 전날의 죄가 무고한 것임이 판명되고 수차례에 걸쳐 어영중군(御營中軍)으로 천거되었으나, 처음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영조 45년(1769) 평안 병사(平安兵師)로 있을 때 마침 조정에서는 남당(南塘)에 성을 쌓을 것을 의론하며 토성(土城)으로 쌓을 것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 주국은 그같은 일이 무모한 일임을 역설하며 굳이 석성(石城)으로 할 것을 고집하였다. 이때 재상 중에서 이 주국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주국이 지난날 통사(統師)로 있었을 당시 상소하였던 것을 들추어 무고하면서 관직을 삭탈하여야 한다고 주청(奏請)하였다. 축성의 일에 있어 한 발치도 머무르지 않고 석성을 고집하였던 이 주국은 대신들의 중론과 함께 영조의 노여움을 사기에 이르렀다. 영조는 이 주국에게 "그대의 용모는 뛰어나긴 한데 고집이 그렇게 센 이유는 무엇인가" 하며, 대신의 의론대로 관직을 삭탈하였다. 또 다시 파직된 이 주국은 빙호(氷湖)에 은거하며 이가정(二可亭)

을 짓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해 9월에는 금강산을 유력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정조가 즉위하던 해(1777) 훈련 도정(訓練都正)으로 발탁될 이 주국은 총융군(摠戎軍)을 거느리고 외지에 진을 치며 훈련하고 있던 중, 이듬해 8월에 정조가 여주의 영릉(英陵)에 행차할 때 광나루에까지 이르러 그자리에서 이 주국으로 하여금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임명하여 호종케 하였기에 남한산성까지 달려가 부(符)를 받고 정조를 호종하였다. 이 공로로 좌포장(左捕將)이 되었다.

정조 6년(1782) 5월 정조의 어명으로 춘당대(春塘臺)에서 모든 신하로 하여금 활솜씨를 겨루게 하였는데, 이때 이 주국은 계속하여 다섯 발을 명중시킴으로써 정조를 비롯하여 여러 대신들을 놀라게 하였다. 정조는 그의 뛰어난 무예를 칭찬하며, 그가 활쏘던 당시의 늠름한 모습을 오백(梧栢)이라 비유하여 당호(堂號)로 삼게하였다. 이 주국의 호이기도 한 오백당(梧栢堂)은 바로 이때 정조가 친히 지어준 것이다. 정조는 또 친필로서 춘추 전국시대 때 용맹을 떨쳤던 염파(廉頗)와 이목(李牧)의 이름 자 중에서 두 자를 택하여 파목(頗牧)이라는 글씨를 쓰고, 그 밑에다 작은 글씨로 제(題)를 적어 하사하였다.

정조 10년(1786)에는 이 주국과는 내외종간이기도 한 구 선복(具善復)이란 자가 훈련 대장으로 있으면서 역모를 꾀하려다 붙잡혔으므로 도성 안의 사태가 흉흉하고, 조정에서도 모두들 불안해 하였다. 정조는 이날 밤 이 주국을 불러들여 훈련 대장으로 제수하고, 군정(軍情)을 살펴 평정케 하였다. 이 사건을 무사히 마친 후로는 정조가 더욱 총애하게 되었다. 이후 형조 판서에까지 올랐던 이 주국은 20여 년간의 관직에 있으면서 총융청에 7회, 어영대장에 6회, 금영대장(禁營大將), 훈국대장(訓局大將) 등을 지냈으며, 수차례의 면직과 유배생활을 겪었다. 그 중에서도 이 주국이 총융사로 있던 정조 16년(1792)에는 무신은 직령(直領)의 복장으로는 대궐 내의 출입을 금하였음에도 어떤 사람이 상중(喪中)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며 물

었는데, 이때 이 주국은 "상중에는 마땅히 흰 직령의 복장을 하고, 상이 끝났을 때는 천릭(天翼)으로 갈아입는다면 조정의 금법이나 예도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대답하였음에도 이 말이 조정에 잘못 알려져, 이 주국은 조정에서의 법령을 어기며 천릭의 복장으로 출입이 불가하다고 말한다 하여 백령도로 유배되기에 이르렀다. 정조는 평소 이 주국을 아꼈던 터라 그를 유배보내고도 노정(路程)을 묻곤하였다. 이 주국이 유배의 명을 받고 5일간이나 지났음에도 고작 3백여리 정도 밖에 가지 못하였음을 들은 정조는 "이는 그가 반드시 병이 나서 그런 것일께다" 하며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배소를 정하여 유배토록 명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병이 심함을 안 뒤에는 특별히 사면하여 풀어주는 은총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온 이 주국은 정조의 이같은 각별한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기며 후손이라도 자신의 뒤를 이어 보국(報國)해 줄 것을 항상 당부하곤 하였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증손 재홍(載弘)이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에 이르렀을 때, 정조는 이 주국의 충정에 감동하여 그를 다시 훈련 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정조 20년(1796) 봄, 정조가 화성(華城)에 있는 영조와 장조(莊祖)의 능에 행차하려 할 때 이 주국이 연로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호종하게 하였는데, 이 주국은 정조에게 나아가 자신이 그 일을 맡아 하겠다며 굳이 청원하였다. 이에 정조가 허락하자 이 주국은 정성을 다하여 호종하고, 능에 이르러서는 어찬(御饌)을 직접 감독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원자(元子)의 생일 날에는 운검(雲劍)으로 나서서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어 자신의 노쇄함을 느낀 이 주국은 사직하고자 상소를 올렸으나, 정조는 만류하며 더 머물러 있으면서 보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무장(武將)으로서 남아있어야 했던 이 주국은 더욱 더 집무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연로한데다 무리가 겹친 연유로 피곤해함을 곁에서 지켜본 우의정 윤 저동(尹著東)은 이같은 상황을 정조에 알리어 해직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정조는 이 주국의 공로를 치하하며 기꺼이 허락하였다.

치사(致仕) 한 후 연로한데다 신병까지 앓았던 이 주국은 이듬해 3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다. 그의 부음을 들은 정조 매우 애통해 하며 조정의 대신들로 하여금 장례의 모든 절차나 자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명하고, 무숙공(武肅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의 시신은 고향인 용인군 원삼면 문촌리에 옮겨져 안장되었다. 현재 문촌리에는 그의 신도비와 생가(生家) 등이 그가 평소 즐겨 이야기했던 기담·일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안 희중(安禧重)

(1728—1800)

순흥(順興)／여중(汝中)

안 희중은 문성공(文成公) 안 유(安裕)의 21대 손으로, 영조 4년(1728)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어질고 인정이 많았던 그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몸가짐이 항상 단정하였다. 또한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여서는 조금도 참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생활함이 검소하였던터라 사치스러운 옷은 온 집안식구들도 입지 못하게 각별히 경계토록 하였으며,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내외 친척들과도 화목하게 지냈던 그는 모든 일에 있어 귀감이었다.

영조 19년(1743) 6월 그믐 때 심하게 내리는 폭우 때문에 집안에 모신 사당이 곧 무너질 듯하였는데 이 때 그의 부모는 모두 병환으로 거동이 어려웠다. 따라서 16세 밖에 안되었던 안 희중은 홀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사당의 기둥을 붙잡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며 호소하니 순식간에 폭우가 그치고 무사히 사당에 모신 신주를 받들고 나와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한다. 이처럼 조상에 대한 정성도 지극했던 안 희중은 성장하면서 더욱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받들었다. 영조 26년(1750) 부친이 심한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자 그는 집안 일은 뒤로 미루고 오로지 부친의 회복만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살고 있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치료하여야 좋다는 말을 듣고는 양지 바우

실〔岩室村〕 정씨네 방을 빌려 부친을 옮겨놓고 거의 반년간을 지성으로 간호하였다. 그러나 병환은 더욱 심해지고 차도가 없었다. 그래도 조금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간호하던 안 희중은 어느 날 피곤하여 잠시 졸았는데 꿈에 한 신령스런 노인이 나타나서 북두칠성에 기원하면 영험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꿈에서 놀라 깨어난 안 희중은 그 길로 신령스런 노인이 알려준 대로 기도드릴 준비를 하였다. 때마침 몹시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안 희중은 매일같이 밤중에 목욕 재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부친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같이 기도하기를 한 달 가량하였는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를 호위하듯 머물러 있다가 기도가 끝나면 어느샌가 사라졌다고 한다. 한 달 후 부친의 병은 신기하다고 할 만큼 차도가 있었다. 영조 27년(1751) 본 집으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병을 치료한 뒤의 후유증을 염려하여 다시 집 가까운 곳에 흙집을 짓고 머물러 간호를 계속하였다. 이 때에도 지난 번의 호랑이가 밤마다 찾아와 집 밖에서 호위하고 있었다. 이곳에 머문 지 3개월만에 부친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어 모시고 집에 돌아와 더욱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영조 41년(1765) 6월에는 그의 모친이 갑자기 달려든 미친 개에게 물리어 기절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보고 놀란 안 희중은 곧바로 달려가 그 물린 자국을 찾아내어 입으로 독기를 빨아내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미친 개에게 물린 것은 마땅히 쑥 뜸을 하여야 한다"고 일러주었으나, 안 희중은 그들의 말을 곧이듣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않고 40여일간이나 계속 빨아내어 끝내는 효험을 얻어 완쾌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이는 안 희중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해서 낫게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안 희중은 형님과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죽음을 계속 당하였는데 이때 그의 부모는 참담한 마음으로 식음을 거의 그치다시피 하였다. 이에 부모의 건강을 염려한 안 희중은 자신의 슬픔은 애써 감

춰가며 오직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하여 지성으로 모시며 슬픔을 거두도록 간곡히 말씀드렸다. 부모들은 안 희중의 효성에 늘 마음 뿌듯함을 느꼈던터라 아들의 말을 듣고 슬픔을 억제하며 그 말을 따랐다.

영조 44년(1768) 12월에 부친이 천수(天壽)를 다하여 돌아가시고 4년 후에 모친 김씨가 돌아가셨는데, 이 때 안 희중의 비통해 함은 곁에 있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적실 정도였다 한다. 안 희중은 자신이 둘째 아들임에도 그의 형님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장례의 비용에서부터 제사에 드는 일체의 비용까지도 자기 소유의 것으로 감당하고, 조카에게는 조금의 부담도 지우지 않았다.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도 조카의 생계에 보태쓰도록 하고 자신의 토지를 재원으로 제사를 받들었다. 항상 제사를 받들 때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공경한 마음으로 치렀으며, 이같은 정성은 그가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안 희중은 평소 자녀들을 불러놓고 "효제(孝悌) 이 두 글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자신의 임종에 이르러서도 자녀들이 죽은 후의 일을 묻자, "나의 목숨은 이제 다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부모님의 묘소에 성묘할 수가 없으니 남은 일은 이 뿐이다"고 대답하였다. 임종의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이렇듯 지극하였던 안 희중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 정조 18년(1794) 이품(二品)의 벼슬로 승진되고 양로(養老)의 은자(恩資)를 받은 바 있었다.

안 희중은 정조 24년(1800) 8월 5일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치었는데, 그가 [illegible]은 후에도 정령(精靈)으로 자손들을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안 희묵(安羲默)

(1755—1881)

순흥(順興)／문약(文若)

안 희묵은 영조 31년(1755) 용인군 내사면 양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품행이 단정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던 그는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의 뜻을 따르되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부친이 병환으로 고생할 때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 입에 대드려서 효험을 보았을 뿐 아니라, 부친이 돌아가고 거상중(居喪中)에는 애통하고 마음아파함이 남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3년 동안 상복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다. 일찌기 부친의 묘소를 구하기 위하여 밤을 가리지 않고 애썼는데 어느 때는 호랑이가 나타나 그의 길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한다. 시묘(侍墓)를 하는 중에는 물론, 상기(喪期)가 끝난 후에도 부친의 묘소에 성묘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행에 감동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묘소에 이르는 길의 풀을 베어주며 "이 길은 안 효자가 성묘하는 길이다" 하고 자랑삼아 말하곤 하였다. 제사 때에도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애통해 함은 초상(初喪) 때와 다름없었다.

한 때 그가 먼 지방으로 나갔다가 부친의 제삿날이 가까이 되어 돌아오고자 하였는데 때마침 장마철이라 갑자기 물이 불어 강을 건널수가 없게 되었다. 제삿날에 임박해서 애통해 하던 안 희묵은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었

다. 이 때 안 희묵은 하늘이 도왔는지 아무런 도구도 없이 물에 뛰어들었음에도 가뿐히 강 건너까지 헤엄쳐 닿았다. 이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못하며, "이는 그의 효행에 감동하여 하늘이 도우신 바라"고 하였다.

항상 다른 사람과 사귈 때는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했던 안 희묵은 경(敬)자를 좌우명으로 하고, 〈경재잠(敬齋箴)〉을 아침 저녁으로 외워 스스로 경계하였다. 글을 읽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는 고종 원년(1864)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통정첨지 중추부사(通政僉知中樞府事)가 되었으며, 고종 10년에는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까지 올랐다.

고종 18년(1881) 6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한 안 희묵은 자손들을 불러놓고 "부모님이 낳아 길러주신 은혜깊건만 그 은혜 갚기 어려워 한을 펴지 못하였다(有父母劬勞恩 難報恨未伸之)" 말하고는 효우근검(孝友勤儉) 네 글자를 써서 가훈으로 여겨 생활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 희묵은 같은 달 29일, 86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마쳤는데 이 때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창밑에 엎드려서 연달아 서너차례 울고 사라졌다 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는 그가 부모의 산소를 참배할 때 길을 안내해주던 호랑이일 것이다"고 말하였다.

〈참고〉 순흥안씨문헌록(順興安氏文獻錄)

우리 나라 국어학의 개척자

유 희(柳僖)

(1773—1837)

진주(晋州)／계신(戒伸)／서파(西陂)·
방편자(方便子)·남악(南嶽)

유 희는 영조 49년(1773) 윤 3월 27일 용인군 모현면 말미에서 유한규(柳漢奎)와 전주 이씨 사주당(師朱堂)의 아들로 태어났다. 연산군을 내어쫓고 중종을 맞아 세운 정국공신(靖國功臣) 유 순정(柳順汀)의 11대 손이다. 대대로 문장과 재지(才智)가 이어진 가통은 그의 부친 유 한규에게도 전하여져 역학·예문·성리학·시문·글씨·활쏘기·의술 등 각 방면에 걸쳐 정통하였으며, 모친 사주당 역시도 여류 문장가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러한 부모의 총명과 재지는 유 희에게도 유전되고 감화되어, 그가 태어난 지 열 달 남짓하여 벌써 어머니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총명하고 해박한 재질를 타고 났다. 돐을 전후하여 유 희는 심한 천연두를 앓고 소생은 하였으나 얼굴이 얽고 몸이 허약해져 발을 떼어 놓던 그가 다시 기어다니게 되고 말귀는 알아 들었으나 말 배우기가 매우 늦어졌다 한다.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초조와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사주당이 유 희에게 젖을 먹이면서 보던 책 가운 데의 한일 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한일 자다"하고 혼잣말로 하고 낮잠을 자는 체 하였더니, 유 희는 건너 방으로 기어가 책 한 권을 입에 물고와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고 "이거 이거"하고 한일 자를 모두 손으로 짚어 보였다. 그리고 4세 때엔 이미 한자의 뜻을 알고 혼자 암송하고 응용하기까지 하였

다. 7세 때 《성리대전(性理大全)》을 보고 기뻐서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사주당이 유 희의 두 누이에게 주려고 계명잠(鷄鳴箴)을 쓰는 데 다 쓰기도 전에 유 희가 자기 손으로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善)을 위해 힘쓰는 자는 순(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이(利)를 위해 힘쓰는 자는 척(跖)의 무리이다(鷄鳴而起 孜爲善者 舜之徒也. 鷄鳴而起 孜爲利者 跖之徒也)"라고 썼다 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기한 일이 많아 신동이라고 불려졌던 유 희는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줄곧 어머니 사주당의 훈도를 받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의 엄한 스승이자 인자한 어머니로서 그가 후일에 뛰어난 업적을 낳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 희는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당시의 학계는 크게 성리학을 연구하는 경향과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을 연구하는 경향의 두 줄기가 있었는데, 유 희는 고증학에 더 관심을 보였으니 그의 학문적 방향은 이미 이 때 부터 잡혔던 것이다.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정치가 극도로 문란해지자 유 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충청도 단양으로 이사하였다. 유 희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훈계하기를 "너의 천성은 속류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 만일 과거에 든다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보지 말고 오직 산천에 파묻혀 천진한 성품을 지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어머니의 훈계를 지켜 과거에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유 희가 49세 되던 순조 21년(1821)에 어머니 사주당을 여의였다. 어머니를 잃은 그는 애통한 나머지 음식을 전폐하고 몸져 드러누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 닦았던 학문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몸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실의와 번민 속에 수척해진 몸을 가누고 책상 앞에 앉은 그를 보다 못해 그의 작은 누이가 과거볼 것을 애소하였다. 누이의 권유에 못이긴 유 희는 순조 25년

(1825)에 53세의 나이로 생원에 합격하였으나, 끝내 문과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오로지 평생을 통하여 학문의 연구와 저술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같은 업적은 《문통(文通)》이라는 일대 총서에 수록되었다. 이 총서는 63종의 서책으로 꾸며졌는데, 그 수록된 내용을 보면 《춘추대지(春秋大旨)》, 《효경고문고(孝經古文考)》, 《하소정경전음의(夏小正經傳音義)》, 《정삭고(正朔考)》, 《양전의(量田議)》, 《시물명고(詩物名考)》 등으로, 천문·지리·복서(卜筮)·종수(種樹)·농정·풍수·충어(蟲魚)·조류 등에서 경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다루지 않은 것이 없다. 국어학의 연구 문헌으로 상당한 가치를 받고 있는 《언문지(諺文志)》도 이 문통 가운데 실려져 있는 것이다.

《언문지》는 우리 말에 대한 연구 방법을 새롭게 하여 우리말의 짜임새를 검토한 것이다. 즉, 역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한자 음을 연구하는 일로 시종하여 우리 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는 손을 대지 못했는데 유 희가 52세 되던 순조 24(1824)에 《언문지》를 엮어 내어 전혀 앞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를 파헤쳐낸 것이다.

유 희는 《언문지》를 엮게 된 연유를 "나의 스승 정 동유(鄭東兪)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문의 문장은 간결 하면서도 오묘한 것을 중하게 여기고 있지마는 그렇게 한다면 그릇되게 해석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글로 뜻을 적어 놓는다면 하나라도 잘못볼 일이 없으니 너는 우리 글이 부녀자나 배우는 천한 글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에 나는 그 분과 더불어 우리 글에 대하여 토론하기 몇 달 만에 마침내 이 책을 지어 언문지라 이름하였다"고 말하고, 이어서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상자 속에 던져버리고 15·6년이 지나는 동안 잃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최 세진(崔世珍)이 지은 《사성 통해(四聲通解)》란 책을 얻어 보고나서 다시 옛날 기록을 엮어 내고 간간이 새로운 견해도 넣어 다시 한 책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물명고(物名考)》 역시도 우리 나라 국어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

헌으로 곤충·동물·물고기·식물·나무·흙·돌·광물 등에 대한 물명을 우리 말로 주석을 붙인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 사주당의 가르침대로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였던 유 희는 일대 저술의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문통》을 다 이루지 못하고 헌종 5년(1837)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박학 다능했던 그는 경학, 자연 과학 등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에 남긴 큰 업적은 우리 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성으로 우리 글의 참된 모습을 파헤쳐 우리 국어학의 위대한 개척자가 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3 대에 걸쳐 효자 정문을 받은

어 진혁(魚震赫)

사랑(史郎)·운해(雲海)

어 진혁은 충절(忠節)과 지조(志操)를 가훈으로 하여 중히 여겼으며, 천성이 어질고 효성스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 뜻을 돈독(敦篤)히 한 그는 부모를 봉양하면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효성은 옛날 왕상(王祥)이 잉어를 낚아다 부모에게 드린 고사에 비길만 하였다. 장례와 제사를 지낼 때는 슬퍼하며 공경하는 예를 다했으며, 성의를 다해 임했다. 이같은 행위는 감히 남들이 따르기 어려울 정도였다. 흉년이 들어 곤궁한 시기에는 사재(私財)를 털어 어려운 사람들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드는 비용을 도와주는 등 모든 행위가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그의 아들 사랑(史郎) 역시도 매우 효행스러웠다. 그는 8 세때부터 집안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는데, 특히 《소학(小學)》을 열심히 공부하여 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일찍부터 과거에 대한 생각을 버린 사랑은 오로지 집안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며 부모 봉양에만 마음을 기울였다. 부모를 여의고 6 년의 상기(喪期) 동안에는 비통에 잠기어 한 번도 웃는 일이 없었으며, 전심 전력으로 부모의 묘를 살피고 다듬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어진 사람만이 사는 동리라고 하며 스스로 자랑으로 여겼다 한다.

어 진혁의 손자인 운해(雲海) 또한 효행과 의리를 신조로 하고 몸소 실천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부친이 심한 종기를 앓고 있었을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어 낫게 하였으며, 어머니가 중병(重病)으로 앓고 있을 때는 정성으로 병 간호를 하여 다시 회복케 하였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하늘이 효행에 감동하여 도우신 것이다 말하였다. 또한 그는 부모의 속옷을 항상 자신이 세탁하였으며, 부모가 연로하여 이(齒)가 빠짐을 보고는 매우 마음 아파하며 울었다고 한다.

3대(三代)에 걸쳐 이처럼 부모를 정성스럽게 봉양하여 온 마을에 그 효행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같은 효행은 마땅히 정문(旌門)을 세워 모든 사람의 귀감으로 삼아야한다고 의론을 모아 상소하였다. 이 일이 도백(道伯)을 통하여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어사를 파견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곧 이들에게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을 내리고, 어 진혁에게는 참판(參判)을, 사랑과 운해에게는 각각 통덕랑(通德郞)의 벼슬을 추증 또는 하사하였다.

이들 3대에 걸친 효행을 표창하기 위하여 내린 정려는 현재 이동면 창리 기슭에 전해지고 있다.

〈참고〉 어진혁효정기(魚震赫孝旌記)

이 재관(李在寬)

(1783—1837)

용인(龍仁)／원강(元綱)／소당(小塘)

이 재관은 용인 사람으로 정조 7년(1783)에 태어났다. 그에 대하여는 자세히 전하는 문헌이 없어 구체적인 성장 과정은 알 수 없으나, 그와는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막역한 친구인 우봉(又峯) 조 희용(趙熙龍)의 《호산외사(壺山外史)》에 실린 〈소당 이재관전(小塘李在寬傳)〉을 통하여 대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호산외사》에서 조 용희는 이 재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재관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집안이 가난해서 그림을 팔아 겨우 모친을 봉양하였다. 소당(小塘)은 원래 선생에게서 그림을 배운 일이 없었으니 옛 화법(畵法)을 터득하게 된 것은 아마 하늘이 내려준 솜씨라고 하겠다. 산수(山水)나 인물을 비롯한 자연계의 모든 사상(事象)의 표현이 그림에서의 묘미를 다했으며, 인물 초상의 솜씨는 아마도 전후 백년 동안에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일본 사람들도 해마다 동래관(東萊館)을 통하여 소당의 영모(翎毛) 그림을 사갔으며, 헌종 16년(1836) 겨울 영흥부(永興府)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하였던 태조(太祖)의 어진(御眞)이 도적에 의해 훼손되었으므로 이듬해 봄에 원본을 서울 경희궁(慶熙宮)으로 옮겨다 놓고 소당으로 하여금 다시 고치도록 하였다. 소당은 그 공로로 등산 첨사(登山僉使)의 벼슬을 얻었

으나, 이 벼슬에서 사직하고 향리에 돌아와 있다가 병을 얻어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한 때 도화서(圖畵署)의 화원(畵員) 출신으로 감목관(監牧官)을 지내기도 하였던 이 재관은 비록 가난한 생활은 하였으나 벼슬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림만을 그리며 살았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는 어떤 관계에서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의 친구인 조용희가 추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면 그를 통하여 왕래가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재관의 그림에는 추사 김 정희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작품이 적지 않다. 추사가 화제(畵題)를 지어준 산수화 〈천지석벽도(天池石壁圖)〉에서는 남종 문인화(南宗文人畵)의 색채를 느끼게하는 산수의 묘미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초기의 자신의 화법과는 아주 다른 즉, 추사의 "격을 바꿔 새로운 곳에서 나왔다(變格出新處)"는 지적처럼 문기(文氣) 넘치는 새로운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능호관(凌壺觀) 이 인상(李麟祥)의 특유한 화법인 석법(石法)이라든가 천법(泉法)의 영향을 입기도 하였다. 이같은 화법은 그의 초기 그림에서 화원화가(畵員畵家)라는 직업적인 장인의 기질이 노골화한 것이 흠이었다는 평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조 용희의 〈소당 이 재관전〉에서 말하였듯이 벼슬을 마다하고 집에 돌아와 병으로 고생하던 이 재관은 헌종 3년(1837)에 일생을 마쳤다. 이 때 그의 죽음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조 용희는 "선비가 때를 만나기란 천년에 한 번에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인데 어진(御眞)을 그려 봉안하지 4백년 뒤에 다시 고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때에 부응하여 태어난 것으로 결코 그가 헛되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시로써 그의 그림 솜씨를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그림붓을 들어 때에 응해 어진을 손질하였고	彩筆借今供日月
꽃과 새그림은 이미 먼 일본땅에도 이르렀네	花禽已復到蠻荒

또한 야항(野航) 김 예원(金禮源)은 이 재관에게 주는 싯구중에 다음과 같이 그의 재주를 칭찬한 바 있다.

하얀돌 시냇가 나무 아래 집이 있고	白石溪邊緣樹扉
꽃이랑 새들은 햇볕 속에 희롱하네	幽花啼鳥弄晴暉
흐뭇타 한 묶음 종의 어깨 묵직하니	笑看一擔僮肩重
그대 집에 또 와서 그림을 받아가네.	又到君家乞畵歸

일본의 관야정(關野貞) 박사 역시도 이 재관의 재질을 높이 칭찬하며, "소당은 산수, 인물을 잘하였고 기이하고 뛰어났으며 기운이 넘친 듯한 필치(筆致)를 나타내 보였다"고 평한 바 있다.

이 재관의 유작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송하처사도(松下處士圖)〉, 〈전가독서도(田家讀書圖)〉 등과 개인 소장인 〈선인도(仙人圖)〉, 〈산수도(山水圖)〉, 〈취적도(吹笛圖)〉, 〈농필창간도(弄筆窓間圖)〉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시성(諡聖)인

김 대건(金大建)

(1821—1846)

김해(金海)／재복(再福)·지식(芝植)

／세례명 : 안드리아

시성(諡聖) 김 대건은 순조 21년 (1821) 8월 21일 충청도 당진 송산리의 솔뫼에서 부친 제준(濟俊)과 모친 장흥 고씨(高氏)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은 재복(再福), 그리고 가보(家譜)에 기록된 이름은 지식(芝植)이다. 대건은 그가 성장한 후에 지어진 이름이다.

김 대건은 증조부 때부터 천주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집안에서 태어나 한학(漢學)과 천주교리(天主教理)를 공부하며 성장하였다. 그의 증조부인 진후(震厚)는 유학은 물론 불교에까지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름난 선비로, 공주 감영의 관헌으로 있으면서 세력 또한 대단하였음에도 그 당시 당쟁으로 말미암아 정계(政界)가 혼란하자 벼슬을 버리고 자연과 벗하며 은거하던 부호(富豪)였다. 남인(南人)들과 가까이 지냈던 증조부는 일찌기 그들의 영향을 받아 선진 외국의 문물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으며, 천주교의 교리서인《천주실의(天主實義)》를 비롯하여 많은 책을 읽고 그 교리에 감화를 받아 비오라는 세례명으로 입교하였다. 그후 독실한 신앙심으로 천주(天主)를 숭배하였으나, 윤지충(尹持忠)의 모친 상례(喪禮)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이에 연관되어 해미(海美) 등지에서 10여년간의 옥고(獄苦)를 치르다 죽었다.

천주교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증조부의 옥바라지를 10여년간이나 해온 김 대건의 집안은 친척들의 모욕과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 모든 가산(家産)을 탕진하고 각기 연고지를 찾아 뿔뿔히 흩어졌다. 이 때 김 대건의 나이 여섯 살로, 부모를 따라 천주교도들이 피신하여 모여사는 지금의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인 골배마을로 이사왔다.

몸은 좀 약한 편이나 천성이 어질고 총명하였던 김 대건은 이곳에서 할아버지인 택현(澤鉉)으로부터 한문과 천주교리를 공부하였다. 이미 15세에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천주교리에 통달하였으나, 김 대건은 다른 교도와는 달리 선교사에게 직접 세례를 받고자 세례받는 일을 미루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마침 우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프랑스의 모방 신부(P.P. Maubant)가 용인의 골배 마을에까지 와서 3일간 머물렀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김 대건은 모방 신부에게 나아가 자신의 뜻을 말하고 그로부터 안드리아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김 대건의 총명함과 학식, 그리고 인품 등을 보고 만족해한 모방 신부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충청도 홍주(洪州)의 최 방지거, 사흥의 최 양업(崔良業)과 함께 김 대건을 신학교 유학생으로 추천하여 마카오로 떠나게 해주었다. 이들 세 사람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은 그곳이 서양 문물이 동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청 동양 전교 사업의 본거지였기 때문이었다. 마카오에서 7년간 신학을 공부한 김 대건은 부사제(副司祭)의 품위를 수여받았으며, 그 당시 일어난 아편 전쟁과 민란으로 인하여 한 때 필리핀의 마닐라로 배움터를 옮기기도 하였다.

1842년 8월 아편전쟁이 끝나고 남경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게 되자 프랑스 정부에서도 이 조약에 참여하여 이권을 얻고 또 우리 나라와의 통상을 열고자 세실(Cecle) 해군 제독을 급파하였다. 세실 제독은 마카오에 들려 통역관을 물색하던 중 김 대건이 외국어에 능통함을 알고 채택하여 함대에 태우고 남경으로 갔다. 그러나 남경조약은 이미 영국과 중국 양국간에서 체결된 뒤였다. 상해(上海)에 남겨진

김 대건은 중국인의 도움으로 그해 10월 만주로 건너와 우리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맸으나 국경에서의 감시가 심하여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3년간을 만주에 머물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등을 넘나들던 끝에 헌종 7년(1845) 1월에 얼음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서울에 숨어 들어왔다. 김 대건은 온갖 고생 끝에 겨우 고국에 들어왔지만 천주교도들에 대한 학대가 심한 상황이라서 10여년간이나 그리던 어머니를 뵙지도 못한 채 그때의 정세와 천주교도들의 상황만을 파악하고 숨어들어 왔던 것처럼 몰래 상해로 빠져나갔다. 이 당시 김 대건의 가족은 그가 천주교의 신학을 배우러 유학까지 간 집안이라서 더욱 학대를 받았다. 그의 부친 제준은 모진 고문 끝에 참수(斬首) 당하였고, 조부 택현은 산중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며, 어머니는 의지할 바 없어 걸인이 되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상해로 돌아온 김 대건은 1845년 8월 17일 금가항(金家港)에 위치한 조그만 성당에서 페레올(Ferreol) 주교로부터 우리 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사제서품(司祭叙品)을 받고 신부가 되었다. 이때 나이 25세였다. 이 해 8월 31일 페레올 주교 일행과 함께 목선을 타고 상해를 떠나 10월 12일, 42일만에야 충청도 강경 지역에 도착하였다. 서울로 몰래 들어온 페레올 신부 일행과 김 대건은 천주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천주교도들이 많이 숨어 있는 용인 골배마을을 본당으로 정하고 김 대건을 이곳에 파견하였다. 이 때 비로소 그의 어머니를 만나뵐 수 있었다. 김 대건은 골배마을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동네를 찾아다니며 성사(聖事)를 주고 전교하였다. 6개월간을 이렇게 전교에 몰두한 김 대건은 페레올 주교의 명에 따라 만주에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고자 하는 메스트르(Moistre) 신부와 최 양업 부사제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1846년 5월 14일 배를 타고 마포를 떠나 백령도 근해로 나갔다. 여기서 중국인 교포 어부를 만나 편지를 전달한 김 대건은 돌아오는 길에 순위도(巡威島)에서 군졸들에게 잡혀 신분이 드러나고 말았다. 중국인 어부에게 전달한 편지까지 압수

한 관원은 김 대건과 그 중국인을 해주 감영으로 송치하였다. 헌종 12년(1846) 6월 5일의 일이었다. 황해 감사로서는 처벌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국문(鞫問)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김 대건의 처벌을 놓고 이론이 분분했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가 비록 서학(西學)인 천주교를 신봉하고 전파한 죄가 크다고 하나 조선 사람으로서 외국에 유학하여 서양 문화를 익히고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이름을 떨치기는 처음 있는 일이요, 또한 재능이 뛰어나고 장래가 유망하니 그를 회유하여 국가의 동량재로 써보자 주장하였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대신들 쪽에서는 국가의 법도를 어긴 죄인이니 엄중히 다스려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맞섰다. 헌종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끝에 주장은 강경파의 입장으로 돌아가 결국은 군문 효수(軍門梟首)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1846년 6월 16일 용산의 한강변 모래밭 새남터에서 어명대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니 김 대건의 나이 불과 26세였다. 그후 그의 시신(屍身)은 군졸들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 40여일간이나 새남터에 남겨져 있었다. 같은 천주교도들은 김 대건의 시신도 가까이 모실 수 없음을 안타까와 할 뿐 감히 나서서 그의 시신을 빼내올 생각도 못하였다. 이같은 사정을 들은 용인군 이동면 묵리 검은정이에 살고 있던 이 민식(李敏植)이라는 청년은 혼자의 몸으로 그곳에 가서 군졸들의 경비가 소홀함을 틈타 김 대건의 시신을 빼내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험준한 산길로 걸어서 3일만에 지금의 미리내 성지까지 도착하였다. 김 대건의 시신을 모셔온 이 민식은 골배마을의 교도들과 함께 그의 선산인 미리내 성지에 정성스럽게 안장(安葬)하였다.

김 대건의 이러한 순교(殉敎)는 곧 세계 여러 나라의 교도에게 알려지고, 그가 죽은지 79년만인 1925년 7월 5일에는 교황 비오 11세의 집전으로 시복식(諡福式)이 거행되었으며, 이날을 첨례일(瞻禮日)로 정하고, 김 대건을 한국 성직자들의 주보(主保)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1984년 5월 6일에는 한국 천주교 10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김 대건을 비롯하여 천주교의 교리를 전파하다 순교한 103명의 교도를 시성으로 추대하는 성례가 베풀어졌다.

민 영환(閔泳煥)

(1861—1905)

여흥(驪興)／문약(文若)／계정(桂庭)／충정공(忠正公)

민 영환은 철종 12년(1861) 7월 25일 지금의 중동학교가 있는 자리에서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인 겸호(謙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뒤에 큰아버지인 여성 부원군(驪城府院君) 태호(泰鎬)에게 입양되었다. 공교롭게도 그가 태어난 날은 고종 황제의 탄신일이기도 한데, 민 영환은 성장한 이후 일부러 하루를 늦춰 생일을 지냈다 한다. 당시 집권자의 가문에서 성장한 민 영환은 고종 황제와는 내외종간이며, 민비(閔妃)의 조카가 된다.

어려서부터 한문서숙(漢文書塾)에서 수학한 그는 17세가 되던 1877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였다. 그후 정자(正字)·수찬(修撰)·사인(舍人) 등의 관직을 지내고, 1881년에는 당상관인 동부승지(同副承旨)로, 1882년에는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라는 최고의 명예직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해에 생부(生父) 민 겸호가 임오 군란(壬午軍亂)의 와중에 군인들의 습격으로 피살되자 벼슬을 버리고 3년간 상(喪)을 치르며 집에서 조용히 대죄(待罪)하고 있었다.

1884년의 갑신 정변(甲申政變), 1894년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인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대원군과 민비의 알력이 고조되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임명받은 민 영환은 세차

레나 군이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어 도승지(都承旨)·홍문관 부제학·이조 참판·해방총관(海防總官)·친군연해방영사(親軍沿海防營使)·기기국총판(機器局總辦)을 역임하고, 1887년에는 친군전영사(親軍前營使)를 거쳐 예조 판서가 되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병조 판서를, 그리고 형조 판서, 한성부 판윤, 등 수많은 중요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이같은 관직은 모두 그가 30세의 젊은 나이 안에 지냈던 것이다.

1895년에는 주미전권공사(駐美全權公使)에 임명되었으나, 을미 사변(乙未事變)으로 명성 황후 민비가 시해되자 부임하지 못하고 사직하였다. 이듬해 고종 황제의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같이 수행하였던 사람은 윤 치호(尹致鎬), 김 득련(金得練), 김 도일(金道一) 등으로 이들은 1896년 4월 1일 인천항을 출발해서 러시아 함대편으로 상해·동경·캐나다를 거쳐, 기차로 미대륙을 횡단하여 영국·독일·폴란드 등 여러 나라의 문명을 견문하면서 5월 26일에 있었던 대관식에 참여하였다. 약 3개월간을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순회한 다음 시베리아를 거쳐 10월 21일 서울에 도착하였으니 민 영환 일행이야말로 우리 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하였으며, 가장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귀국 후 의정부 찬정(贊政), 군부대신을 지낸 민 영환은 1897년 또 다시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6개국의 특명전권 대사에 겸직 발령되어 두 번 째에 걸친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축하식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빈번한 해외 여행으로 새로운 문명에 대해 일찌기 눈을 떴던 민 영환은 개화 사상을 실천하고자 정치·경제·문화·사회·교육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대로 계획은 좌절되고 오직 군제의 개혁만이 채택되어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여 육군을 통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서

재필 등이 조직한 독립협회를 적극 후원하여 시정(時政)의 개혁을 시도하려다 원로한 대신들의 무고로 인하여 파직되기도 하였다. 이 당시 독립협회와 맞서 대항하였던 제국협회의 친일파 관료들은 직접적으로 민 영환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1904년 이후 내부(內部), 학부(學部) 대신을 지내면서도 계속 친일적인 각료들과 대립하여 일본의 내정 간섭을 성토하던 민영환은 다시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의 한직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내정 간섭에 대한 반대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 당시 애국지사나 국민들은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선 한 규설(韓圭卨)과 민 영환만이 신임할 만하다"고 하였다 한다.

민 영환의 이같은 위국충정(爲國忠貞)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운세는 기울어져만 갔다.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 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수차의 이권에 대한 논쟁끝에 급기야는 1904년 2월, 러일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러일 전쟁의 돌발과 동시에 중립을 선언한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은 강압적으로 그같은 주장을 버리고 일본을 돕는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케 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1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하여 우리 나라의 재무, 외교에 대한 고문 정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9월에 포츠머드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정치·경제·군사상의 이권에서 있어 우월권을 획득하여, 11월 17일에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相條約) 즉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되던 날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는 모두들 분개하며 이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장지연(張志淵)은 황성신문에 조약체결의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사설을 써서 나라의 슬픔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때 민 영환은 의정 대신 조 병세(趙秉世)와 여러 대신을 이끌고 궁궐에 나가 이를 반대하였으나 일본 헌병들의 강제 해산으로 실패하였다. 다시 종로의 백목전도가(白木廛

都家)에 소청(疏廳)을 열고 2차에 걸쳐 상소를 올렸으나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미 대세가 기울고 자신의 뜻을 펼 수 없음을 느낀 민 영환은 전동(典洞)에 있는 이 완식(李完植)의 집에 가서 2천만 동포에게 독립에의 뜻을 알리는 내용의 유서와 우리 동포의 앞날을 부탁하고 일제의 침략적 만행을 규탄해 달라는 내용의 주한 외국 사절에게 보내는 유서 2통을 남기고 11월 30일 자결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45세였다.

민 영환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모든 백성들은 비통에 잠겨 경악을 금치못하였으며, 그의 인력거꾼도 그의 뒤를 따라 순사(殉死)하였다. 이어 조 병세·김 봉학(金奉學)·홍 만식(洪萬植)·이 상철(李相哲) 등이 계속하여 그 뒤를 따라 자결하였다.

권문 세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벼슬에 급급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동포만을 위해 충정을 아끼지 않았던 민 영환의 유해는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봉분없이 평장되었다가, 1942년 후손들에 의해서 현재의 위치인 구성면 마북리 구성국민학교 뒷산으로 옮겨졌다. 1906년 7월 그가 죽은 후 유물을 묻었던 곳에서 네 줄기의 대나무가 나왔다고 하며 이를 혈죽(血竹)이라고 부르고 있다. 훗날 그의 위국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를 의정대신(議政大臣)에 추증하고 고종 황제의 묘정(廟庭)에 배향케 하였으며, 충정공(忠正公)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1962년에는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현재의 그의 묘소에는 그의 충절을 기르는 내용의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그 비석의 측면에는 1905년 그가 자결할 때 남겼던 유서,

『슬프도다. 국치 민욕(國恥民辱)이 드디어 이에 이르러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경쟁속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하여 용맹히 일어서는 자는 반드시 살리니 모든 사람이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는가. 영환은 다만 일사(一死)를 맺음으

로써 우러러 황은(皇恩)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謝)하노니, 영환은 죽었다해도 죽지아니하며 여러분을 구천(九天) 아래에서도 기필코 도울 것이니, 동포 형제는 천만 분려 배가하여 뜻과 기운을 굳게하고 학문에 힘쓰며, 결심 유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자 마땅히 명명한 속에서 즐겨 웃으리니, 슬프나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우리 2천만 동포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노라.』

라는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 나라 언론계의 선각자

유 근(柳瑾)

(1861—1921)

진주(晋州)／·／석농(石濃)

유 근은 1898년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창건하여 한국 신문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언론계의 선각자로, 1861년에 용인읍 김량장리에서 태어났다. 비교적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한학과 문장에 뛰어난 수재로 용인 땅의 유 근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과묵한 성격으로 필요한 말 이외는 쓸데없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마을의 사람들은 유 근을 대할 때 조심하곤 하였다. 또한 한학을 공부하며 성년기를 보낸 유 근은 신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 근과는 친척간이라는 용인읍 마평리 신흥 부락의 유 창수 노인의 "그 할아버지는 교육에 남달리 관심이 컸던 것 같으며, 어릴 때 나라가 잘되고 집안이 잘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며 집안 사람들을 훈계하던 모습을 여러번 보았다"는이야기를 통해서도 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유 근이 언론을 통해 민중을 계도하고 민의(民意)를 수렴하는 데 앞장 선 것은 1898년 9월 5일 장 지연(張志淵)·남궁 억(南宮億) 등과 함께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창간하면서부터이다. 황성신문은 2면으로 주(週) 2회씩 발행되던 대한황성신문(大韓皇城新聞)을 인수해 새로 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 나라 신문사상 처음으로

지금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의 고금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그 논조(論調)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나갔다.

황성신문은 창간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문자를 창조하사 우부우부(憂夫憂婦)로 무불개명(無不開明)케 하시니 국문이라"고 한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전제하고, 다시 "특히 기성(箕聖)의 유전(遺傳)하신 문자와 선생의 창조하신 문자로 병행"하는 소치는 순 국문만의 기사가 오히려 사회 중류 이상의 지식인에게 불편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할 것을 밝혔다. 장 지연을 비롯하여 박 은식(朴殷植), 김 상천(金相天), 남궁 훈(南宮勳) 등 한학의 대가들이 필진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다음날인 6 일자 사설에서 〈신문과 그 사명〉이란 제목으로 "신문은 큰 바다에 떨어진 구슬도 줍고, 현포(玄圃)에 쌓인 옥(玉)도 줍는데 아무리 시정잡설(市井雜說)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습속(習俗)의 순잡(純雜)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것들이다. 국가의 큰 사무에서 아래로는 금은(金銀)의 창락이나 시세(時勢)의 득실(得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도 모르는 바가 없다. 따라서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세상 일을 모두 안다고 하는데는 이 신문을 두고 또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문이 만들어져 하정(下情)이 상달(上達)되어 고통이나 환난을 밝히기 어려울것 없으니 이 또한 유쾌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신문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황성신문은 1905 년 11 월 20 일자 지상(제 2 면)에 장 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논설을 실어 을사 조약에 서명한 5 적 대신을 매도한 것이 빌미가 되어 발행인 장 지연은 체포되고 황성신문 역시 강제 정간되고 말았다. 그런데 저 유명한 〈시일야방송대곡〉에는 이러한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위암 장 지연은 원래 통음(痛飮)으로 두주를 불사하였는데 장 지연이 비분 강개해서 술을 마시며 밤새껏 이 논설을 써내려가다가 급기야 절통(切痛)한 나머지 마

지막 부분은 유 근이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장 지연은 일본 관헌에 끌려가 옥고를 치르고 나서야 석방되었으며 황성신문도 1906년 2월에 이르러 복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장 지연은 일본 헌병의 간섭으로 황성신문에서 물러나왔고 이때 유 근이 사장이 되어 그 뒤를 이어갔다. 〈시일야방성대곡〉의 논설로 폐간되었다가 다시 속간되자 황성신문의 사설은 더욱 줏가가 올랐으며, 일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발행 부수를 더늘려 간행하였다. 속간된 이후로는 유 근과 남궁 억 등이 주로 맡아서 썼다. 물론 이들에게도 일제의 압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황성신문의 사장에 있으면서도 사설을 집필하는 등 열의를 보였던 유 근은 한때 국채 보상운동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新報)와 함께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한 바 있으며, 사회의 지도 인물로서 일제의 식민화(植民化)에 대해 직접 나서서 항거하기도 하였다. 최 준(崔埈)의 《한국 신문사》에서 "사실 이때의 신문 기자들은 학식에 있어서나 애국심에 있어서나 민중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포부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크게 존경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첨단을 걸었던 유 근은 신문에 종사한 언론인으로서 신문 제작을 통해 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일제에 대항하는 애국 운동을 폈던 것이다.

1910년 6월 4일, 장 지연의 뒤를 이어 사장이 된 유 근 역시도 황성신문을 통해 항일 운동을 전개하자 일제 통감부는 압력으로 황성신문의 발행겸 편집인의 명의를 사원이었던 성 선경(成善慶)으로 변경시킴과 동시에 유 근으로 하여금 황성신문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부터 일제 통감부는 황성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였고, 따라서 우리 언론계는 자연 암흑기가 도래하였다.

황성신문에서 물러난 후 유 근은 당시의 항일 선각자들과 함께 시국을 관망하며 교육 문화 사업에 나서서 활동하다가 1920년 동아일보 창간 때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을 역임한 바 있는 양 기탁과 함께

2대 원로로서 편집 고문에 참여하였다. 동아일보 창간호를 보면 〈주지를 선명하노라〉 라는 창간사와 함께 유 근이 쓴 논설 〈아보(我報)의 본분과 책임〉이 게재되어 있고, 양 기탁의 〈지(知)아 부(否)아?〉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 유 근은 "동아일보야 너의 부담 무겁도다. 너는 조선 민중의 표현기관이다. 그의 사상, 그의 희망, 그의 목표, 그의 심리 일일히 보도하여 그로 하여금 능히 기립케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발전케하며, 그로하여금 능히 비약케 함은 믿노니 너를, 너는 조선 민중의 권리 보호자다. 그의 정신, 그의 정의, 그의 활동 일일히 지배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압제를 탈면케 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권능을 시사(施使)케 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언론을 표현케 하여 인(人)의 고유한 자유를 유지함은 믿노니 너를, ……무겁다 너의 책임, 자유권 잃지않고 만난을 배각(排却)하고 용왕직전(勇往直前) 거침없이 신지(信地)에 도달하여라."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논설이라기보다는 조선 민중에게 고하는 격문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또한 이해 6월에는 이 상재(李商在)·한 규설(韓圭卨)·유 성준(柳成俊)·최 두선(崔斗善)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를 발기하여 민족의 동량을 키우는 교육 사업에 적극 활동하였으며, 이외에도 각종 사회 단체에 관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항일 선각 언론인으로써 우리 나라 언론계의 초창기를 장식한 인물이요, 박학 강기하였던 학자, 지사로 교육 사업에 몸받쳤던 유 근은 1921년, 61세를 일기로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염려하며 눈을 감았다. 그의 시신은 바로 그가 태어난 땅, 용인 읍내의 현충탑이 있는 산기슭에 안장되었으며,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추서되었다.

이 한응(李漢應)

(1874—1905)

전의(全義), 경천(敬天)／국은(菊隱)

이 한응은 1874년 9월 21일 용인군 이동면(二東面) 화산리(華山里)에서 곤양(昆陽) 군수를 지낸 이 경호(李璟鎬)와 벽진(碧珍) 이씨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던 당시의 정국은 조선조의 마지막 국맥(國脈)을 이끌던 대원군의 세도와 쇄국 정책 등으로 극동 3국 가운데 유일한 은사국(隱士國)으로 남게 되었던 때로 호시탐탐하는 서구 세력과 우리 보다 앞서서 개국한 일본의 침략적인 행위에 시달리던 실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형국이었다.

이때 남다른 선각의 인물로 등장된 이 한응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행동이 출중하였으며, 일찌부터 사서삼경(四書三經)에 진취하였다. 그러나 갑신 정변을 비롯한 국내외의 상황이 급변하여지는 상태에서 재래식의 한학에만 전념할 수 없었기에 16세되던 해에 상경하여 관립 영어 학교(官立英語學校)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2년간의 학기를 우수하게 마친 이 한응은 당시의 자주사상에 힘입어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기회와 보국(報國)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더욱 학문의 연마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1894년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에 올랐다. 그러나 이때 그의 부친이 남영 우령관(南營右領官)으로 동학란의 진압에 나섰다가 전사함으로써 형제인 한풍(漢豊)·한승(漢昇)과 장례를 치르면서 출사(出仕)를 단념하였다.

1897년 그가 한성부 주사(漢城府主事)로 있을 무렵 청(淸)·일(日)·노(露)의 강대국들은 조선 침략에의 야욕에 광분하고 있었으며 급기야 민비(閔妃)를 시해하는가 하면, 노국은 고종을 움직여 아관파천(俄館播遷)을 감행하는 등 어지러운 상태에서 자의와 타의에 의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선포가 있었다. 이때 이 한응은 공무에 충실하며 관립영어학교의 교관을 거쳐 남들이 신망(信望)하는 인격과 덕행을 쌓았다. 그리하여 1901년 3월에는 영의양국공사관(英義兩國公使館) 3등 참서관에 임명되었으며, 공사 민 영돈(閔泳敦)과 런던으로 부임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이 한응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국제무대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이역만리에서 민 영돈을 보좌하며 국제 정세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근심하였던 청년 외교관 이 한응은 뛰어난 외교 수완으로 런던의 외교가에서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들 사교계에서는 웰드레서의 멋장이로서도 널리 알려진 신사였다. 명예총영사 마켕톤은 이때 이 한응을 평가하기를 "한국의 가장 공정한 대표이고, 학문에 근실한 모범적 인물이며,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불리한 가운데도 잘 보전한 인물이다"라고 격찬하였다. 그의 이같은 명성은 국내에서도 인정받기에 이르러 1904년 민 영돈이 귀국하자 곧 그 후임으로 영국 서리공사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한응이 영국 공사로 있을 무렵은 대한제국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진 때였다. 영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서로 이해가 대립한 상태에서 이권(利權)을 독차지하고자 각축을 벌였으며, 급기야는 우리 민족에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준 노일 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났다. 한편 노일 전쟁에 앞서 일본은 대한 제국에서의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으로 한일의정(韓日議定)의 체결을 강제적으로 성립하였고, 이때부터 대한 제국은 전락(轉落)의 위기에 다가섰다.

이같이 암담한 형세하의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며 국제 외교 활동을

통해 조국의 입장을 인식시키려는 이 한응의 노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대한 제국을 중심으로 한 외신(外信)의 주요 사항을 일지(日誌)로 쓰고, 거기에 외교적인 연구와 성찰을 거듭한 그의 보이지 않은 애국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지위가 불리하게만 줄달음치는 대한 제국의 운명에, 1904년 일본은 재정과 외교에 관한 처리 문제를 그들과 합의하도록 한다는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교활한 속셈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로 대한 제국의 외교 사절이란 존재 가치조차 무의미 지경에 이르렀다. 이 한응은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애국·애족의 열혈(熱血)을 가누지 못해 서양 각국에 주재한 동료 외교관들에게 전신을 띄워 우국충정(憂國忠貞)의 합일된 의지를 모으고자 하였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편, 일본은 제1차한일협약을 근거로 대한 제국은 자주 능력이 없다고 선전 함으로써 이 한응 혼자만의 탄원과 질책은 열강 제국의 외교 사절들을 납득 시킬 수 없었다. 노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고쳐 "일본은 한국에서의 정치·경제·군사상의 지도 및 감독을 맡는다"는 조문을 채택하였으며, 영국은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동조 내지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주재 서리공사의 직분인 이 한응은 그 부당성을 즉각 항의하였다. 그러나 영토 확장에 급급하던 영국은 이를 묵살하고 대한 제국의 공사에게까지 대해 무례하게 대하였다. 또한 평소 이 한응의 인품과 행실을 존경하던 일반 영국인들까지 교만스럽게 행동하여 모욕을 서슴지 않는 것이었다. 주권을 상실한 조국의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통감하게된 외교관 이 한응으로서 위국(爲國)하는 길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이역에서 듣고 당하는 조국의 마지막 운명을 막고 버틸, 그리고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 한응은 의(義)를 위해 죽고자 순국(殉國)의 비장한 결심을 하였다.

1905년 5월 12일 이 한응은 조국에 대한 마지막 유서를 쓰고 형과 부인에게 따로 유언장을 남긴 후 조국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독약을 마시고 순국하였다. 이때 나이 32세였다. 다음은 부인에게 남긴 유서의 한 귀절이다.

슬프다. 나라는 주권을 상실했고 국민은 평등을 잃었으니 무릇 교섭 관계로 치욕을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진실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으로 어찌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슬프다. 종사가 장차 없어질 것이고 민족은 장차 노예가 될 것이니 구차히 살려고 한다면 욕됨이 더욱 심할 것이니 어찌 흡연히 죽는 것보다 나아질 수 있겠는가. 이에 죽기로 결심하였으니 다시 무슨 할 말이 있겠오.

이 한응의 자결은 세계 각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국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이 한응의 죽음은 주권을 상실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최초의 순국(殉國)이었다. 그의 이 같은 뜻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민 영환(閔泳煥)·조 병세(趙秉世) 등이 뒤이어 순국함으로써 나라 사랑의 충절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이 한응이 순국한 후 그의 시신은 고종의 특명으로 국내로 옮겨져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德成里)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뒤에 내부 협판(內部協辦)으로 추증되고 장충단(奬忠壇)에 제향되었다.

만주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한

김 혁(金赫)

(1875—1937)

본명 : 학소(學韶)／호 : 오석(吾石)

김 혁은 1875년 10월 6일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4년여동안 집안에서 한학(漢學)을 배운 다음, 용인 학원(龍仁學院)을 거쳐 1892년 3월에 한국무관학교(韓國武官學校)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3년동안 군사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과 동시에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로 임관되었으며, 순조롭게 진급되어 육군 참령(參領)에까지 이르렀다.

1907년 우리 나라를 합병(合併)하기 위한 야심으로 일본인들이 군대를 해산케하자, 김 혁은 울분을 참을 길 없어 통탄하며 일본 제국에 대항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군대 해산으로 할 수 없이 고향인 용인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는 용인 주변의 청년들을 하나 하나 규합하여 항일 사상 고취와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 운동이 발발하자 김 혁은 앞장서서 시위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 5월에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의 봉천성(奉天省) 무송현(撫松縣)에 이르렀다. 김 혁은 이곳에서도 항일운동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 8월에는 김 호(金虎) 등과 함께 그곳에 거주한 수백명의 애국 청년들을 규합하여 흥업단(興業團)을 조직하였다. 이때 단장에는 김 호가 추대되었고, 김 혁은 부장(副長)으로 선출되었다. 이듬해 9월 경에는 안

도현(安圖縣) 삼인방(三人坊)에서 홍 범도(洪範圖)·이 청천(李靑天) 등 수백명의 동지와 함께 의용군을 조직하고 또 부단장으로 뽑히어 맹렬히 활약하였다. 청산리(靑山里) 전투를 겪은 후, 1921년 1월에는 영안현(永安縣) 밀산(密山)에서 서 일(徐一)·홍 범도·이 청천·김 좌진(金佐鎭) 등과 합세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조직하였다. 이 독립군단은 서로 군정서(西路軍政署), 북로 군정서(北路軍政署), 의용군 등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10여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 이때 김 혁은 군사부장(軍事部長)으로 선출되어 활약하였으며, 1922년에는 러시아 영토에서 일본 군사와 대항하여 싸우다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김 혁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1925년 3월 15일 영안에서 김 좌진 장군과 함께 신민부(新民府)를 조직하고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신민부에서 목릉현(穆陵縣)에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였을 때 김 혁은 교장직을 겸하기도 하였으며, 500여명의 사관생도를 양성하여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45만명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였다. 그 후 다시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을 조직하여 중국의 구국군(求國軍)과 합작으로 한중 연합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1927년 2월 중동선(中東線)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 신민부 총회를 개최하던 중 하얼빈의 일만경(日滿警) 합동 수색대의 습격을 받아 이곳에 모였던 박 경순(朴敬順)·유 정근·이 춘섭(李春燮) 등 여러 애국 지사와 함께 체포된 김 혁은 하얼빈 일본 영사관 경찰서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1년동안 이곳 경찰서에서 감금된 후 1928년 3월 20일에 신의주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4일에는 신의주 지방 법원 감사국으로 송치되어 감금당하였다. 192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최종 판결에서 징역 10년형을 선도받은 김 혁은 평양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獄苦)를 치르며 심한 고문에도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부하로 있던 애국 청년 한 명이 체포되어 자신의 감방으로 들어오게

되자, 김 혁은 일본 경찰을 불러다 놓고 "내가 아무리 붙잡혀 감금되어 있는 몸일망정 애국지사도 아닌 청년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소리쳐 꾸짖으니 일본 경찰은 이 말을 곧이듣고 그 청년을 다시 조사한 후 몇일뒤에 석방 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이처럼 잃어버린 조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멀리 만주땅에서 활약하였던 애국 지사 김 혁은 9년간의 옥고를 겪는 중 신병을 얻어 가석방되었으나, 1937년 8월 25일 그가 태어난 기흥면 농서리의 생가에서 국권 회복의 한을 남긴 채 세상을 마쳤다.

1962년 그의 애국심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추서되었다.

교육 사업과 독립 운동에 일생을 받친

여 준(呂準)

본명 : 조현(祖鉉)／호 : 시당(時堂)

여 준은 평생을 교육 사업과 독립 운동으로 마친 애국 지사로 용인군 원삼면에서 태어났다. 1947년 7월 19일 혜화동에서 암살된 여 운형(呂運亨)은 바로 그의 조카이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남보다 먼저 신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여준은 정주(定州)에 있는 오산학교(五山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북간도(北間島)에 건너가 이 동녕(李東寧), 이 상설(李相卨)과 서전의숙(瑞甸義塾)을 세워 후진 교육에 힘썼다. 그리고 교육계에만 종사하였던 그가 독립 운동에 힘쓸 것을 다짐하게된 것은 1907년 6월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기 몇달 전으로, 여 준은 고종 황제로부터 비밀리에 임명을 받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떠나는 이 준(李儁)을 자신과 함께 서전의숙에서 근무하던 이 상설에게 안내하여 만나게 한 인연으로 그들과 함께 독립 운동에 한 평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1910년 일제의 강압적인 조치로 한일합병이 체결되자 여 준은 그 이듬해 다시 북간도로 건너가 동여학교(東與學校)를 설립하여 교포 자녀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1912년에는 만주의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로 이주하여 이 시영(李始榮) 등과 같이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세우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 당시 여 준은 대종교(大宗教)에 입교하였다. 또한 허 혁

(許赫)을 단장으로 하는 부민단(府民團) 조직에도 참여하여 그곳에서 이주 동포의 자활과 교육을 맡아보기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에 앞서 여 준은 정월에 김 좌진(金佐鎭)·박 찬익(朴贊翊)·조 소앙(趙素昻)·손 일민(孫一民) 등과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정령(正領)으로 추대되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국외에 있는 혁명 의사 39명의 연서로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부민단을 중심으로 유하(柳河)·통화(通化)·환인(桓仁)·집안(輯安) 등 각 현(縣)의 지도자들이 모여 유하현 삼원보(三原堡)에서 남만독립운동(南灣獨立運動)의 촌본영으로 군정부(軍政府)를 조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주 동포의 자치 기관으로 한족회(韓族會)를 구성하였을 때 여 준은 간부직의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 후 군정부는 임시 정부에 소속되어 서로 군정서(西路軍政署)가 되었는데 이때에도 여 준은 부독판(副督辦)으로 추대되었고, 한족회의 간부직도 겸하게 되었다.

1920년 12월 4일, 임시 정부 간서총판부(間西總辦府)의 총판으로 다시 추대된 여 준은 이듬해 재만학생(在灣學生) 교과서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이 탁(李沰)·김 동삼(金東三)·곽 지(郭之)·이 진산(李震山) 등과 액목(額穆)지방에서 이른바 〈액목현회의(額穆縣會議)〉를 열고 임시 정부의 개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서를 연서로 작성하여 상해의 임시 정부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독립 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으며, 1922년에는 액목현에 있는 검성중학교(儉城中學校)의 교장으로 다시 취임하여 후진 양성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처럼 한 평생을 후진 양성과 독립 운동에 받친 여 준은 1932년 만주 사변이 발발하였을 때 일본군과 싸우다 다친 상처로 인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장백산(長白山)에서 요양하다가 세상을 마쳤다.

여 준의 이같은 애국심은 뒤늦게서야 알려져 1968년 국민장(國民章)이 추서되었다.

용인이 낳은 향토적 서정 시인

홍 사용(洪思容)

(1900—1947)

남양(南陽)／·／노작(露雀)

홍 사용은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에서 구한말의 헌병 장교를 지낸 철유(哲裕)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지 백일만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올라가 재동(齋洞)에서 살다가 1908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돌머루)에 낙향하여 그곳에서 독선생을 두고 한문을 공부하였다. 출생지와 성장지가 비록 용인군, 화성군으로 경계를 달리하고 있지만 실제 거리는 산등성이 하나 차이에 불과한 거리이다. 어려서부터 부유한 농가에서 자라난 홍 사용은 아무리 힘센 아이들 앞에서도 천하 무적일 수 있었다고 한다.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부잣집 외아들이라 누구든지 건들지 못하고 일부러 져주곤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탓인지 그는 성격이 깐깐하고 고집이 세기로 유명하였다. 그가 반일(反日)운동에 앞장 서서 온 갖 위협에도 굽힐 줄 몰랐으며, 그의 시 작품에서 '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군림하였던 것은 바 그 고집스런 성격때문인지도 모른다.

13세 때 두 살 위인 원주 원씨(元氏)와 결혼한 홍 사용은 1616년 보통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휘문의숙(徽文義塾)에 입학하여 서울 의주로(義州路)에서 하숙 생활을 하였다. 그가 문학 활동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으로, 3학년 재학중에 박 종화(朴鍾和)·정 지현(鄭志鉉) 등과 함께 등사물로 시집 《피는꽃》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3.1 운동 때는 앞장 서서 활동하다 한 때 체포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졸업 후 고향에 내려가 수필 〈청산백운(靑山白雲)〉, 시 작품 〈푸른 언덕가으로〉 등을 썼으며, 1920 년 다시 상경하여 박 종화, 정 지현과 함께 문예지 《문우(文友)》를 창간하였다.

1922 년에는 우리 나라 낭만주의 문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백조(白潮)》를 이 상화(李相和)·박 영희(朴英熙)·박 종화 등과 함께 창간하였다. 홍 사용이 고향의 토지를 전당잡히고 은행돈을 빌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 문예지를 간행하기 위하여서였다고 한다. 홍 사용은 이 《백조》라는 잡지에 권두시 〈백조는 흐르는데 별 하나 나 하나〉와 〈꿈이면은〉을 발표하였는데, 권두시에 나오는 "어쩌노! 이를 어쩌노"하는 비애의 영탄은 백조파의 시경향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백조》 제 2 집에는 〈봄은 가더이다〉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무렵 다른 지면에 〈시악시 마음은〉 〈시악시의 무덤〉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23 년 《백조》 3 집에는 홍 사용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비롯해서 〈그것은 모두 길었지만〉 〈흐르는 물을 붙들고〉와 단편 소설 〈저승길〉을 발표하였다.

백조가 폐간되면서 홍 사용은 연극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신극 단체인 토월회(土月會)와 인연을 맺고 우리 나라 연극의 여명기에 그의 젊음을 모두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1924 년 1 월에 있었던 토월회의 3 회 공연 때부터는 아예 학예 부장직까지 맡아 외국의 희곡 작품을 번역하기도 하고 감독도 맡아했다. 연극 공연의 비용도 역시 홍 사용이 댔다. 그러나 자금난의 악화로 토월회의 운영도 중지되고 말았다.

1927 년 홍 사용은 몇몇 동지들과 함께 다시 산유화회(山有花會)를 조직하고, 이해 5 월 20 일에는 인사동 조선 극장에서 〈향토심〉이라는 작품을 연출까지 맡아 무대에 올려 놓았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도 실패하고 말아 산유화회는 자연 해산되고 말았다.

천석군의 외아들로 태어난 홍 사용이었지만 백조·토월회·산유화회

등의 실패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그 이후로는 불교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1928년 불교잡지 《여시(如是)》를 간행하였으며, 이 해 4월 불교사(佛教社) 주최로 석가 탄생 경축 공연에 그의 희곡 〈태자의 출가〉를 공연한 것은 이 점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1932년에는 《불교》라는 잡지에 희곡 〈벙어리굿〉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홍 사용은 익선동 박 진(朴珍)의 집에 기거하였는데 폐결핵이 악화되어 각혈을 시작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홍 사용은 미투리에 두루마기 차림으로 화류목 단장을 짚고 전국 곳곳을 방랑하였다. 그리고 한 쪽 폐가 거의 석화(石化) 되었을 때에도 말술을 마시며 의사들과 담화했다는 일화가 있다. 1935년을 전후로 해서 홍 사용은 한 때 한의학을 공부하여 세검정에서 한의사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으며, 약방문이 용하다는 소문도 떠돌아 다녔다 한다. 뒤에 가족들이 모두 상경하여 마포구 공덕동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검정에서 지냈다.

1941년 일제의 강요로 희곡 〈김옥균전(金玉均傳)〉을 쓰게 되었는데 한 달 남짓 쓰다가 도중에서 붓을 꺾어버린 일로 해서 주거 제한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강경, 전주 등지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모두 오래가지 않았고, 이화 전문(梨花專門)에도 잠시 출강한 바 있다. 그리고 해방 후엔 근국청년단(槿國靑年團)에 가입하여 청년 운동에 참가한 바 있으나 곧 탈퇴하였다. 그 뒤 지병이던 폐환으로 1947년 1월 7일 유작(遺作) 〈조국의 얼〉만을 남긴 채 그의 맏아들이 살고 있던 공덕동에서 48세의 나이로 파란 만장했던 일생을 마치었다.

홍 사용은 흰 얼굴, 날카로운 콧날, 깐깐한 성격, 고집 등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부처' '대리석' '고양이' 등으로 불리워졌지만, 항상 청빈한 생활 속에 지조를 지키며 살아온, 민족의 귀감이기도 한 시인이었다. 조 지훈(趙芝薰)은 《시와 인생》 가운데 그를 일러 "눈 감으면 몇 십년을 하루같이 흰 모자에서부터 흰 신까지 신고 다니던 그 깨끗한 모습, 술은 마실 수록 더욱 조용해지고 날샐 무렵까지 앉은자리에서 벽에 한 번 기대지도 않던 그 단정한 모습, 불기(不羈)의 민

족 감정때문에 글쓸 자리를 고르다 못해 남먼저 붓을 꺾고만 그 정신이 역력히 살아온다"고 술회하고 있다. 또한 홍 사용과 함께 문학 활동을 한 바 있는 박 종화는 "죽어도 왜놈 돈은 안 먹는다는 고집으로 '글 팔지 않도다'라 외치며 가시덤불 속에서 흰 두루마기, 흰 고무신을 신고 한의사로 몸을 감춰버린" 시인이었다고 회고하며, 시 작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결코 활자화하기를 꺼려 생전에 시집 한 권 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시집을 낸다 연극을 한다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홍 사용은 자기 자신도 폐환으로 죽고 말았듯이 자손에게 물려준 것이라고는 그가 친필로 쓴 《청구가곡(靑丘歌曲)》 뿐이었다. 《청구가곡》은 전국에 널려있는 우리 민요를 채집해 놓은 것으로, 홍 사용이 시나 소설, 희곡 작품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민요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재 홍 사용의 묘소는 화성군 동탄면 돌머루 불당골에 있으며, 그가 출생한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151 번지에는 생가의 안채만이 남아져 있다.

부 록

1. 공서린(孔瑞麟)외 69인 약전(略傳)
2. 용인군내 선현묘소 및 유적지 일람

1. 약 전(略 傳)

공 서린(孔瑞麟) (1483~1541)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희성(希聖)·응성(應聖), 호는 휴암(休巖),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일찌기 김 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배우면서 조 광조(趙光祖)와 친교가 있었다. 1507년(중종 2)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하였으며, 1519년 승지(承旨)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 광조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그후 시사(時事)에 대해 분격하여 재상을 공격하고,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선비들의 무죄를 상소하다가 누차 관직을 삭탈당했다. 정권을 장악하여 횡포를 부리던 김 안로(金安老)가 죽은 후 1358년(중종 33) 경기도 관찰사·대사헌을 역임하고,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김 경(金 儆)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므로 조세·부역을 면제받았다. 〔읍지, 효자〕

김 사목(金思穆) (1740~1829)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백심(伯深) 호는 운소(雲巢),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음보(蔭補)로 기용된 뒤 김제 군수(金提郡守)가 되고, 1772년(영조 48)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부교리(副校理)·부승지(副承旨)·병조 참판·황해도·경기도·평안도의 관찰사, 형조·이조·예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1808년(순조 8)

우의정, 1819년에는 좌의정을 지냈다. 시호는 경헌(敬獻)이다.

김 상익(金相益) 효행이 지극하여 무신년(戊申年)에 주민들이 내사면 평창리 비석거리에 효자비를 세웠다. 그 비석 전면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효는 하늘에서 나온 것	孝出于天
인도(人道)의 근원으로	源於人道
그이름 영원히 빛나	天存名存
하늘과 함께 하리라.	與天罔墜

김 새(金 璽) 김 새는 상산(商山)사람으로, 자는 이옥(爾玉), 호는 경호(耕湖)이며, 통훈대부 용인 현령이다. 중종 39년(1544) 9월 15일에 출생하였다. 부친의 상(喪)을 당하여 묘막을 짓고 살며 슬퍼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제사 음식이 떨어졌을 때는 꿩이 스스로 부엌으로 날아 들어와 도왔으며, 사슴 한 마리가 묘 옆에 자면서도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아니하였는데, 상기(喪期)를 마친 뒤 사슴은 어디론지 사라져 없어졌다. 이 일이 《읍지》와 《삼강행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삼강행실록, 상산 김씨 세보〕

김 세필(金世弼) (1473~1533)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공석(公碩), 호는 십청헌(十淸軒)·지비옹(知非翁),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495년(연산군 1)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이

해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수찬(修撰)이 되고 지평(持平)에 올랐다가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거제도(巨濟島)에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 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와 응교(應敎)로 기용된 후에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다. 전한(典翰)·부제학(副提學)·광주 목사·전라도 관찰사·대사헌·이조참판(吏曹參判)을 거쳐, 1519년(중종 14) 사은사(謝恩使)로 북경(北京)에 다녀왔으며, 이 해 겨울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조 광조(趙光祖)를 사사(賜死)한 중종의 과오를 규탄하여 유춘역(留春驛)에 장배(杖配)되었다가 1522년에 풀려났다. 뒤에 이조 판서에 추증(追贈)되고, 충주(忠州)의 팔봉서원(八峯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 《십청헌유고(十淸軒遺稿)》가 있으며, 현재 수지면 죽전리에 묘소가 있다.

김 소사(金召史) 용인현의 관리인 최 재관(崔在寬)의 아내이다. 그 남편이 딸 아이 하나만을 남기고 일찍 죽자 그 딸 아이를 정성스럽게 길러 출가시킨 다음, 그 날밤 극약을 먹고 남편의 뒤를 따라 죽었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이 내려졌다. 〔읍지, 열녀〕

김 약항(金若恒) (?~1397) 고려·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구경(久卿), 호는 척약재(惕若齋),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371년

(공민왕 20)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전교 주부(典校注簿)가 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예의 총랑(禮儀摠郎)에 이르렀다. 공양왕 때에 사헌 장령이 되어 설화(舌禍)로 지곡 주사(知谷州事)에 좌천되었다가 얼마 후 집의(執義)에 올랐다. 조선이 건국되자 대사성이 되고, 1396년(태조 5)에 명나라에 보낸 표전(表箋)의 내용이 불공(不恭)했다 하여 정당문학(政堂文學) 정 총(鄭摠)과 함께 명나라에 불려가 억류되었으나, 곧 풀려나와 현지에서 모국으로부터 광산군(光山君)으로 봉해졌다. 그 후 다른 일로 양자강(揚子江)에 유배되어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1401년(태종 1) 찬성사(贊成事)에 추증(追贈)되었다. 현재 모현면 일산리에 묘소가 있다.

김 유(金 瑜) 도적들이 밤에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와 그 어머니를 찌르려 할 때 김 유는 맨몸으로 도적들에 달려들어 대신 죽었다. 그의 아내와 딸 역시도 그 뒤를 이어 계속 따라 죽었으며, 어머니는 상처 하나 없었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효·열 3개의 정려가 내려졌다. 〔읍지, 효자·효부·열녀〕

김 저(金 礎) (1512~1547)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학광(學光), 본관은 경주(慶州), 이조 참판(吏曹參判) 세필(世弼)의 아들이다. 1539년(중종 34)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거쳐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乙

巳士禍)로 심한 고문을 받고 삼수(三水)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사사(賜死)되었다. 선조 초에 관작(官爵)이 복구되었으며, 정조 때 이조 판서에 추증(追贈)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현재 수지면 죽전리에 묘소가 있다.

남 계우(南啓宇) (1811~1883) 조선조 순조·헌종 때의 화가로 용인에서 태어나 살았으며, 초명은 영시(永詩), 자는 일소(逸少), 호는 일호(一濠),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남 구만의 9대손이다. 벼슬은 도정(都正)에 이르렀다. 나비를 전문으로 그려 세상에서 남나비[南胡蝶]라고 불렀다. 나비와 배합하기 위하여 각종 화초를 그렸는데 매우 곱고 부드러운 사생적(寫生的) 화풍을 보였다. 작품으로 〈화접도쌍폭(花蝶圖雙幅)〉 〈추초군접도(秋草群蝶圖)〉 〈화선도(畫扇圖)〉 〈군접도(群蝶圖)〉가 있다.

남 은(南 誾) (1354~1398) 고려·조선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공민왕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우왕 때 사직단직(社稷壇直)으로 있다가 삼척(三陟)에 쳐들어온 왜구(倭寇)를 격퇴한 공으로 사복시 정(司僕寺正)이 되었다. 1388년(우왕 14) 이 성계(李成桂)의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에 동조(同調)했고, 응양군 상호 겸 군부 판서(應揚軍上護兼軍簿判書)를 거쳐 밀직 부사(密直副使)에 올랐다. 조 준(趙浚)·정 도전(鄭道傳)·윤 소종(尹紹宗)·조 박(趙璞)

및 형 재(在)와 함께 이 성계 일파로 활약하다가 1391년(공양왕 3) 수시중(守侍中) 정 몽주(鄭夢周)에 의해 원배(遠配)되었다. 이듬해 정 몽주가 살해되자 다시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이어 정 도전·조 준·조 인옥(趙仁沃) 등 52인과 함께 이 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개국케 하고 개국공신(開國功臣) 1등으로 의성군(宜城君)에 봉해졌으나,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 도전과 함께 방원(芳遠)에게 살해되었다. 뒤에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으며, 시호는 강무(剛武)이다. 현재 남사면 창리 곡골에 묘소가 있다.

맹 철호(孟喆鎬) 독립운동가로 용인군 용인읍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 당시 만주로 넘어가 독립단에 입단하여 독립운동에 전력하였다. 1919년 4월 만주 각지에서 산재한 독립운동단체를 규합하여 대한독립단을 조직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즙안(輯安) 및 환인현(桓仁縣)의 총지단장에 피임되었다. 그후 일본인 단체인 일민단(日民團)을 격파하고 독립단 행정총관소를 설치하였으며, 각 지방에는 독립군 양성소를 설치하여 독립군 200여명을 육성하였다. 1922년 8월 남만한족통일회(南滿韓族統一會) 개최시 대한독립단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1923년 12월엔 통의부(統義府) 군수국장을 역임하였다. 그후 1932년 3월 만주사변 발발까지 국민부 중앙위원으로 활약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귀국하였

다. 1977년 건국포장이 수여되었다.

목 원규(睦源逵) 효행이 지극하여 영조 29년(1753) 8월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현재 원삼면 두창리에 전해지고 있다.

밀양 박씨(密陽朴氏) 차 성태(車聖泰)의 아내로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1934년 6월, 용인 기로친목회(龍仁耆老親睦會)에서 김량장리 북구 무수막에 효부비를 세웠다. 그 비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훌륭하도다 효부여	猗歟孝婦
병든 시아버지 봉양함이	善養病舅
끼니마다 수저들어 올리고	食必匙之
거동때마다 곁에서 도우며	坐必扶矣
옷가지 항상 깨끗히 하고	衣絹常潔
청소 세탁 쉼 없었네	掃濯不息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함이	克誠克敬
날이 갈수록 더 도타우니	愈久愈篤
이 모두 천성으로 나온 것	出自天性
배워서 아는 일 아니네	非由學識
힘써 있는 정성 다하기를	靡不用極
20년 세월 하루같이 하였네	廿載一日

박 경업(朴慶業) (1568~?) 조선조 문신으로 초명은 승업(承業), 자는 응휴(應休), 호는 암수(巖叟)·추탄(秋灘), 본관은 고령

(高靈)이며, 박 은(朴誾)의 증손이다. 1594년 선조 27)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장령(掌令)·정언(正言) 등을 거쳐, 1622년(광해군 14)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지내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대간(臺諫)에 재직중 부정한 관리를 엄중히 탄핵하기로 유명하여 하루에 10여명씩을 삭직(削職)시키게 했으나, 1623년 인조 반정(仁祖反正) 때 지난날 그에 의해 삭직당했던 공신들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 현재 내사면 식금리에 묘소가 있다.

송 명천(宋命天) 효성이 지극했으므로 조세·부역의 의무를 면제받았다. 아들에게도 그같은 혜택이 주어졌다.〔읍지, 효자〕

송 지겸(宋之謙) 효행이 지극하여 계해년(癸亥年)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현재 내사면 송문리에 전해지고 있다.

순흥 안씨(順興安氏) 권 태필(權泰弼)의 조모로, 일찌기 남편을 잃고 홀시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낮에는 베짜고 밤에는 실을 꼬며, 식량을 아끼어 매일같이 조금씩 저축하여 생활을 꾸려나갔다. 혹 다른 남자들로부터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매일 밤 칼과 낫 등을 곁에 두고 자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열중하였다. 이같은 생활 속

에서도 성격이 까다로왔던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으며, 선조들의 제사를 모시는 일에도 조금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의 남편이 죽기 임해서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화혈해 먹임으로써 3일간이나 연명하였고, 죽은 뒤의 장례나 제사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또한 자식들도 모두 출가시킴에 소홀함이 없었다. 이 일이 마을의 유자들에 의해 조정에 알려지고, 조정에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정려의 은전을 내려주었다. 현재 남사면 완장리에 정려가 있다.

신 길원(申吉元) 충신으로 벼슬은 승지에까지 이르렀고, 임진 왜란 때 순절(殉節)하였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읍지, 충신〕

심 사정(沈師正) (1707~1769) 조선조의 화가로 자는 이숙(頤叔), 호는 현재(玄齋),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일찍부터 정선(鄭敾)의 문하에서 그림을 공부하였으며, 중국 남화(南畫)와 북화(北畫)를 종합한 새로운 화풍을 이루어 김 홍도(金弘道)와 함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되었다. 1748년(영조 24)에 모사중수도감(模寫重修都監)의 감동(監董)이 되었다. 특히 화훼(花卉)·초충(草蟲)을 비롯, 영모(翎毛)와 산수(山水) 그림에 능했다. 대표적 작품으로 〈강상야박도(江上夜泊圖)〉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모란도(牡丹圖)〉 〈맹호도(猛虎圖)〉 〈추포도(秋圃

圖)〉〈추경산수도(秋景山水圖)〉 등이 있다. 현재 이동면 서리에 묘소가 있다.

심 온(沈 溫) (?~1418)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중옥(仲玉).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세종의 장인이다·고려 말엽 11세에 진사(進士)가 되고 문과(文科)에 급제했다. 조선 개국 후 병조·공조의 의랑(議郞)을 거쳐 정종 때 대호군(大護軍), 1404년(태종 4) 상호군(上護軍) 겸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로 승진하였으며, 1407년 좌부대언(左副代言),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를 역임하였다. 그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영의정이 되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갔다. 이때 아우 도총제 정(汪)이 병조 판서 박 습(朴習)에게 군국(軍國)의 대사(大事)를 상왕(上王)이 처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박 습이 이를 고자질하여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그 수괴로 지목되어 귀국할 때 의주(義州)에서 피체되었다. 그후 서울에 압송되었다가 수원(水原)에서 사사(賜死)되었다. 뒤에 복관(復官)되었으며, 시호는 안효(安孝)이다. 수지면 이의리에 묘소가 있다(행정구역 변혁으로 수원시 이의동으로 됨.)

안동 권씨(安東權氏) 유 순(柳淳)의 아내로 영조 29년(1753)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그 후 계축년(정조 17년, 1793)에 정문을 세웠으며, 현재 내사면 송문리에

유 복립(柳復立)의 정려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오 명철(吳命哲) 효행이 남달리 뛰어나 임진년(영조 48년, 1772)에 벼슬을 내렸다. 〔읍지, 효자〕

유 경양(柳敬養) 유 경양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의 부친이 병이 들자 매양 똥 오줌을 돌봐드리며, 하늘을 향하여 자신이 그같은 고통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부친이 죽자 극진히 상례(喪禮)를 마치고 자신도 불효를 통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뒤를 따랐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지평(持平)이라는 벼슬을 추증하였다. 〔읍지, 효자〕

유 복립(柳復立)
(?~1593) 조선조의 의사(義士)로 자는 군서(君瑞), 호는 묵계(墨溪),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음보(蔭補)로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가 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외숙인 경상도 관찰사 김 성일(金誠一) 휘하에서 진주성(晋州城)을 공격해 온 적을 격퇴하였으며, 이듬해 4월 김 성일이 병사하자 김 천일(金千鎰)·고 종후(高從厚)·황 진(黃進) 등과 함께 성을 방어하다가 성이 함락당할 때 김 천일 등과 함께 자결했다. 뒤이어 충신정문(忠臣旌門)이 세워지고, 이조 판서에 추증(追贈) 되었다. 현재 내사면 송문리에 정려가 있다.

유 홍(柳 弘)
(1483~1551)

조선조의 무신으로 자는 자연(子淵), 본관은 진주(晋州), 영의정 순정(順汀)의 아들이다. 1506년 중종 반정(中宗反正) 때 아버지가 큰 공을 세우자 원훈(元勳)의 자제로서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으로 책록(册錄)되어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가 되고, 이듬해에 형조 정랑(刑曹正郎)이 되었다. 1511년(중종 6)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사복시 부정(副正)을 거쳐 우위장(右衛將),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제포진 첨철제사(薺浦鎭僉節制使)를 역임했다. 1531년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듬해 충청도 수군 절도사를 지내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 부총관(副摠管)이 된 뒤, 1544년(중종 39) 진산군(晋山君)에 봉해졌다. 현재 원삼면 맹리에 묘소가 있으며, 영정 1점이 전해지고 있다.

윤 행임(尹行恁)
(1762~1801)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성보(聖甫), 호는 방시한재(方是閑齋)·석재(碩齋),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1782년(정조 6)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이듬해 홍문관(弘文館) 벼슬에 등용되고, 검열(檢閱)로 초계문신(抄啓文臣)이 되었다. 이어서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주서(注書)를 역임하였으나, 1788년 민 치화(閔致和)와 작당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백성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탄핵을 받고 성환역(成歡驛)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등용되어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에 복직되었고, 1792년 이조 참의(吏曹參議)·대사

간, 다음해 비변사 제조(備邊司提調)를 역임하는 동안 시파(時派)로서 특히 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한 이후 홍문관·예문관 대제학을 겸하였는데 이해 수렴청정(垂簾聽政)하던 정순 왕후(貞純王后)가 시파를 추방키 위해 일으킨 신유 박해(辛酉迫害)로 강진현(康津縣) 신지도(薪智島)에 유배되었다. 곧 풀려나와 전라도 관찰사에 기용되었으나 김 조순(金祖淳)의 상소로 다시 투옥되고 참형(斬刑) 당했다. 헌종 초에 신원(伸寃)되고 영의정에 추증(追贈) 되었으며,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저서로 《방시한집(方是閑集)》《동삼고(東三故)》가 있으며,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記)》《어사고풍첩(御射古風帖)》《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의 편찬에 참여 하였다. 또한 글씨에도 능했던 그는 수원 화성군에 있는 〈건릉지(健陵誌)〉를 썼으며, 상주의 〈충신의사단비(忠臣義士壇碑)〉, 온양의 〈영괴대비(靈槐臺碑)〉 등은 모두 그의 글씨이다. 현재 구성면 청덕리에 묘소가 있다.

이 경증(李景曾)
(1595~1648)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여성(汝省), 호는 송음(松陰)·미강(眉江),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권필(權韠)의 문인으로 19세때 진사(進士)가 되었으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낙향하여 두문불출하였다. 1624년(인조 2)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장원하여 정언(正言)·수찬(修撰)·사간(司諫) 등을 거쳐 1635년 사인(舍人)이 되었다. 이듬해

병자 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扈從)하였으며, 남한산성에서 병방 승지(兵房承旨)로 공을 세워 1637년 도승지(都承旨)에 오르고, 이어 대사간, 병조·예조·이조 판서를 지냈다. 1646년(인조 16)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때 시관(試官)이 되어 출제한 시제(試題)가 시휘(時諱)에 저촉되어 삭직(削職)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한 채 강교(江郊)에 은거하다가 죽었다. 1649년(효종 즉위)에 신원(伸寃)되었다. 현재 기흥면 영덕리에 묘소가 있다.

이 단상(李端相)
(1628~1669)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유능(幼能), 호는 정관재(靜觀齋)·서호(西湖),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대제학 명한(明漢)의 아들이다. 1648년(인조 26) 진사시(進士試)에 장원하고, 이듬해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설서(說書)·부수찬(副修撰)·교리(校理) 등을 거쳐 이조·병조의 정랑(正郞)을 지냈으며, 1655년(효종 6)에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후에 대간(臺諫)을 거쳐 청풍부사(淸風府使)를 지내고 1658년 응교(應敎)가 되었다. 그후 인천 부사(仁川府使)가 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양주(楊州)에서 학문 연구에 힘썼다. 1669년 부제학으로 서연관(書筵官)을 겸하였던 그는 후진 교육에도 힘써 문하에서 아들인 이 희조(李喜朝)와 김 창협(金昌協)·김 창흡(金昌翕)·임 영(林泳) 등 쟁쟁한 학자가 배출되었다. 뒤에 이조 판서에 추증(追贈)되고, 양주(楊州)의 석실서원

(石室書院), 인천(仁川)의 학산서원(鶴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저서로 《대학집람(大學集覽)》 《사례비요(四禮備要)》 《성현통기(聖賢通記)》 《정관재집(靜觀齋集)》이 있다. 현재 모현면 능원리에 묘소가 있다.

이 만성(李晩成)
(1659~1722)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사추(士秋), 호는 귀락당(歸樂堂)·행호거사(杏湖居士), 본관은 우봉(牛峰)이며, 우의정 숙(翽)의 아들이다. 1696년(숙종 22) 진사(進士)로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장원하여 전적(典籍)·좌랑(佐郞)을 거쳐, 교리(校理)·응교(應敎)·이조 참의(吏曹參議)·대사성(大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1709년 다시 대사성이 되어 영의정 최 석정(崔錫鼎)이 지은 《예기유편(禮記類編)》에 주자(朱子)의 글귀를 고친 것을 지적, 그 죄를 논책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삭직되었으나, 이듬해 복관되어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승진했다. 1716년(숙종 42)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경종이 즉위하자 형조 판서에 오르고 이어 병조 판서가 되었다. 이때 노론 대신들과 함께 세제(世弟 : 英祖)의 책봉을 주청하여 그 실현을 보았으나 소론(少論)이 일으킨 신임 사화(辛壬士禍)로 부안(扶安)에 유배되었고, 다시 불리어 국문을 당하다가 옥사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복관되었으며, 영암(靈巖)의 죽정 서원(竹亭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저서로 《귀락당집(歸樂堂集)》이 있다. 현재 이동면 천리에

묘소가 있다.

이 발(李 潑) (1544~1589) 조선조 선조 때의 정치가이며 동인(東人)의 중심인물이다. 자는 경함(景涵), 호는 동암(東菴).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1573년(선조 6) 문과에 급제하여 전랑(銓郞)에 보직되었으며, 문재(文才)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사론(士論)을 세워 조광조(趙光祖)의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이념(理念)으로 삼고 경연(經筵)에 출입하면서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제창하여 기강(紀綱)의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사정(邪正)을 가리기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때 인사권을 장악하여 전횡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샀으며, 이 이(李珥)·성 혼(成渾)과의 교분(交分)이 차츰 멀어지자 서인(西人)들의 미움을 받았다. 1589년(선조 22) 동인(東人)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계기로 서인들이 집권하고 동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지자 당시 부제학으로 있던 이 발도 화를 면치 못할 것을 알고 교외(郊外)에서 죄를 기다리고 있던 중 두차례에 걸친 모진 고문 끝에 죽었다. 그후 어머니와 아들, 제자, 종들까지 모두 장살(杖殺) 되어 옥졸(獄卒)들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 한다. 현재 모현면 일산리에 묘소가 있다.

이 백지(李伯持) (1361~1419) 고려·조선조의 문신으로 본관은 용인, 개성 유후(開城留後) 사위(士渭)와 장흥 임씨(長興任氏) 사

이에서 공민왕 10년(1361)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였던 그는 우왕 11년(1385)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 전서(刑曹典書)·좌우 부대언(左右副代言)·강원도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 그리고 전라도 도관찰사를 지냈다. 현재 기흥면 영덕리 잔다리 선산에 묘소가 있다.

이 사위(李士渭) (1342～?) 고려·조선조의 문신으로 구성 부원군(駒城府院君) 중인(中仁)의 아들이다. 공민왕 9년(1360)에 문과에 급제하여 경연관 참찬관(參贊官)을 거쳐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고, 이듬해 서해도 도관찰사를 지냈다. 뒤에 조선조에 들어와서 개성유후(開城留後)에 이르렀다. 현재 기흥면 영덕리 선산에 묘소가 있다.

이 상(李 尙) 이 상은 사노(私奴)로 그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꼬리를 잡고 따라가 어머니 시체를 빼앗아 돌아왔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갑술년(영조 30년, 1754)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읍지, 효자〕

이 성동(李成童)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차옹(次翁), 호는 졸옹(拙翁), 본관은 인천(仁川)이다. 1495년(연산군 1) 생원(生員)으로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지평(持平) 등을 지내고, 그 후

사간(司諫), 직제학(直提學)에 이어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1519년(중종 14) 형조 참의(刑曹參議)·대사간이 되었으나, 이 해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 광조(趙光祖)의 일파로 몰려 면직되었다. 현재 남사면 봉명리에 묘소가 있다.

이 숙(李 翩) (1626~1683)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중우(仲羽), 호는 일휴정(逸休亭), 본관은 우봉(牛峰)이다. 송 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1636년(인조 14) 11세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포로가 되어 심양(瀋陽)에 잡혀갔다가 사신으로 간 회은군(懷恩君) 이 덕인(李德仁)의 주선으로 귀국했다. 1648년 진사(進士)가 되고, 1565년 춘당대 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수찬(修撰)·응교(應敎)를 지냈다. 1667년(현종 8) 집의(執義)로 있을 때, 청나라도 피인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사(淸使)의 지탄을 받은 영의정 정 태화(鄭太和), 좌의정 홍 명하(洪命夏), 진주사(陳奏使) 허 적(許積) 등이 그 책임을 현종에게 돌리므로 그들을 탄핵하다가 한때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1669년 광주 부윤(廣州府尹), 1672년 경상도 관찰사, 이듬해 대사간이 되었다. 1675년(숙종 1) 서인(西人)이 실각하자 몰려났으나 뒤에 다시 등용되어 우의정에 까지 이르렀다. 대구(大邱)의 상덕사(尙德祠)에 제향(祭享)되고 있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현재 이동면 천리에 묘소가 있다.

이 순악(李舜岳) 조선조의 학자로 자는 여순(汝詢), 호는 죽유(竹牖), 본관은 용인(龍仁)이다. 윤 문거(尹文擧)의 문인으로 1663년(현종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참봉(參奉)·익찬(翊贊)을 지내고, 군읍(郡邑)의 수령(守令)을 거쳐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글씨에 뛰어났다. 작품으로 대사간 이사경비(大司諫李士慶碑), 형조 참의 이후천갈(刑曹參議李後天碣)이 있다.

이 승진(李昇鎭) 효행이 남달리 뛰어나 정축년(영조 33년, 1757)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읍지, 효자〕

이 씨(李 氏) 정 인빈(鄭寅賓)의 아내이다. 그 남편이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대신하여 앓게 해달라고 주야로 하늘에 빌고 울부짖었다. 그 남편이 죽자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감은 채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8일 후에 죽었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계유년(영조 29년, 1753)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읍지, 열녀〕

이 완(李 莞) (?~1627) 조선 선조·인조때의 무관으로 자는 열보(悅甫). 본관은 덕수(德水), 충무공 순신(舜臣)의 조카이다. 20세에 충무공을 도와 싸움에 공을 세웠고, 노량(露梁) 싸움에서 충무공이 적탄에 맞자 시체를 안아 방에 눕히고 상(喪)을 발표하지 않고 전쟁을

독려하여 적을 몰아내고 전승을 기하였다. 1599년(선조 32) 무과에 급제하고 인조(仁祖) 초에 수사(水使)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이천(利川)에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여 그 공으로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위계에 올랐다. 의주(義州) 부윤으로 있을 때 모 문룡(毛文龍)의 군사들이 촌가에 나가 해를 끼침이 심하므로 분함을 참지 못하여 곤봉(棍棒)으로 때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 계급의 강등을 받았으며, 이로부터 모 문룡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정묘 호란(丁卯胡亂) 때 적이 의주를 포위하자 적과 싸우다가 부상당하여 승산이 없으므로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사촌 동생 신(藎)과 더불어 불에 뛰어들어가 죽었다. 뒤에 병조 판서를 추증하고 정문(旌門)을 세워 충의를 표하였다. 현재 수지면 고기리에 묘소가 있으며, 정려·교지·서찰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 익(李 翊)
(1629~1690)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계우(季羽), 호는 농재(農齋), 본관은 우봉(牛峰)이다. 송 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1652년(효종 3) 진사(進士)가 되고, 1657년(효종 8)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설서(說書)·사서(司書)·정언(正言)을 지냈다. 1660년(현종 1)에 사간(司諫)이 되어 송 시열을 무고하는 유 세철(柳世哲) 등을 탄핵하한 바 있으며, 송 시열이 유배될 때 같은 서인(西人)으로서 탄핵을 받다가 1675년(숙종 2) 양덕(陽德)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경신 대출척(庚申大黜

陟)으로 서인이 기용되자 풀려나와 동부승지에 보직되고, 대사헌·부제학·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1682년 형조·이조 판서에 올랐다. 이때 서인이 노론(老論)·소론(少論)으로 분열하여 노론의 영수 송 시열이 사직하게 되자 함께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갔다. 그후 1688년(숙종 14)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이듬해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장흥부(長興府)에 귀양가 죽었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으며 《수교집록(受敎輯錄)》을 편찬했다. 뒤에 찬성(贊成)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현재 이동면 천리에 묘소가 있다.

이 징(李 澄) (1375~1435) 조선조의 왕족으로 태조의 동생인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의 아들이다. 13세에 산원(散員), 이어 낭장(郎將)·장군(將軍) 등을 거쳐 태종 초에 원윤(元尹)이 되었고, 1412년(태종 12)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로서 우일번 절제사(右一番節制使)와 별사금 제조(別司禁提調)를 겸했으며, 이듬해 전성진 병마사(箕城鎭兵馬使)가 되었다. 1414년 도총제로서 진하부사(進賀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17년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낸 뒤 이듬해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로서 삼번 절제사(三番節制使)가 되었다. 1426년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로 절일사(節日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1427년 황주 선위사·도총제(黃州宣慰使都摠制)가 되었다. 1429년 판좌군부사

(判左軍府事)가 되어 사은 정조사(謝恩正朝使)로 다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올 때 사냥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이산(尼山)에 유배되었으나, 후에 소환되어 판우군부사(判右軍府事)·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했다. 시호는 양정(良靖)이다. 현재 모현면 양촌리에 묘소가 있다.

이 찬조(李纘祖) 병자 호란 때 순절하여 정려의 은전을 받았다. 〔읍지, 충신〕

이 충건(李忠楗) (?~1521)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자안(子安), 호는 눌재(訥齋)·목수(木叟), 본관은 성주(星州)이다. 조 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1510년(중종 5) 진사(進士)가 되고, 1515년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며, 1519년(중종 14)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파직되었다가 1521년(중종 16) 안 처겸(安處謙)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장살(杖殺)되었다.

전 림(田 霖) (?~1509) 조선조의 무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1482년(성종 13) 전주 판관(全州判官)이 되고, 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를 지냈다. 이어 한성부 좌윤

(漢城府左尹)을 역임하고, 이듬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전 림은 청백(淸白)한 무장으로서 독서(讀書)를 좋아하였다. 성격이 엄격하여 아들이 행패를 부리자 살해하고도 태연했다하며, 그가 병이 위독할 때 찾아온 친구 김전(金詮)과 큰 바리로 이별주를 나누고 김 전이 대문을 나서기 전에 숨졌다 한다. 시호는 위절(威節)이다.

정 보(鄭 保) 조선조의 문신으로 호는 운곡(雲谷), 본관은 연일(延日), 포은 선생의 손자이다. 학문에 뛰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성 삼문(成三問)·박 팽년(朴彭年) 등과 친교가 있었다. 벼슬은 감찰(監察)에 이르렀다. 1456년(세조 2) 사육신(死六臣)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의 무죄를 주장한 말이 세조에게 알려져 처형의 명이 내려졌으나 포은의 손자임이 밝혀져 연일(延日)에 유배되었다. 뒤에 단성(丹城)에 이배(移配)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숙종 때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추증(追贈)되었다. 현재 모현면 능원리에 묘소가 있다.

정 선현(丁善顯) 효행이 지극하여 신미년(고종 8년, 1871)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정재위(丁載渭), 해주 오씨(海州 吳氏)의 정려와 함께 포곡면 전대리에 전해지고 있다.

정 재위(丁載渭) 효행이 지극하여 신미년(고종 8년, 1871)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정 선현(丁善顯)의 정려, 해주 오씨(海州 吳氏)의 정려와 함께 포곡면 전대리 가마실에 전해지고 있다.

정 탁(鄭 倬) 병자 호란 때 임금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이르렀으나, 적군이 이미 북쪽 문에까지 와 닿았으므로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다. 이 때 정 탁은 자원하여 일개 부대의 병력을 이끌고 나아가 싸우다 죽을 것을 아뢰었다. 임금은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도총수(都摠帥)로 제수하였다. 보졸(步卒)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달려가 사력을 다해 싸우니 모두들 사기가 진작되어 용감히 싸워서 많은 적을 살상하였다. 그러나 본래 불리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 탁은 이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임금은 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장례에 드는 비용을 후하게 내려주고 병조 참의로 추증하였으며, 정려의 은전을 내려주었다. 〔읍지, 충신〕

정 호선(丁好善)
(1571~1632)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사우(士優), 호는 동원(東園),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1601년(선조 34) 진사(進士)가 되고, 이 해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정언(正言)·수찬(修撰)·응교(應敎)를 지냈다. 1611년(광해군 3)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부정을 범한 춘천부사(春州府使) 이 원엽(李元燁), 양양 현감(襄陽

縣監) 신 경우(申景遇)를 파면시키는 등 지방의 관기(官紀)를 확립했다. 1613년 대북(大北) 파의 음모로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병을 핑계로 사임하고 고향에 은퇴하였다. 1623년 인조 반정(仁祖反正) 이후 안변 부사(安邊府使)에 이어 풍기군수(豊基郡守)가 되었다. 1627년 정묘 호란(丁卯胡亂) 때 파수대장(把守大將)으로 죽령(竹嶺)에 진을 쳤다가 화의가 성립되자 철수하고, 이듬해 병으로 사임했다. 현재 포곡면 전대리에 묘소가 있다

조 광보(趙光輔) 조선 중종조의 기묘 명현(己卯名賢)으로 호는 방은(方隱), 식견(識見)이 고명(高明)했으나 미친 척하여 이를 감추었다. 연산군 때 임 사홍(任士洪)의 집권으로 조정이 혼란하자 무인(武人)인 박 영(朴英)에게 그를 참살(斬殺)하라고 권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1507년(중종 2) 유생(儒生)으로 조 광조(趙光祖)등과 함께 박 경(朴耕)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대궐 마당에서 국문(鞫問)을 받을 때 입회한 유 자광(柳子光)에게 앞서 무오사화(戊午士禍)에 현량(賢良)들을 무함(誣陷)한 죄를 힐책하고, 박 원종(朴元宗)에게는 폐주(廢主 : 燕山君)의 나인(內人)들을 첩으로 삼은 죄를 추궁했으며, 학자 성 희안(成希顔) 및 사관(史官) 강 홍(姜洪)·이 말(李抹) 등에게도 신랄한 말을 던졌으며, 장형(杖刑)을 당하게 되자 통곡을 그치지 않아 박 원종에게 광인(狂人)으로 취급되어 조 광조 등과 같이 석방되었다. 그 후 용인군 기흥면 지곡리에 있는 사

은정(四隱亭) 주변에 조 광조·조 광좌·이 자 등과 함께 은거하며 학문을 강론하고 풍류를 즐기곤 하였다.

조 광좌(趙光佐) (?~1521)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계량(季良), 호는 회곡(晦谷),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1507년(중종 2)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으로서 박 경(朴耕)·김 공저(金公著)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1518년 좌랑(佐郞)이 되고, 이듬해 지평(持平)으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조 광조(趙光祖)의 일파로 몰려 삭직(削職)되었으며, 1521년 다시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장살(杖殺)당했다. 한때 조 광조·조 광보·이 자등과 함께 기흥면 지곡리의 사은정에서 은거한 바 있다. 현재 기흥면 보라리에 묘소와 사당이 있다.

채 유천(蔡有天) 효행이 남달리 뛰어나 계해년(영조 19년, 1743)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읍지, 효자〕

최 씨(崔 氏) 이 선양(李善養)의 아내이다. 그 남편이 임종할 때 남편의 허리띠를 풀러 갖고 있다가 장례지내던 날 밤 그 허리띠로 목을 매어 따라 죽었다. 이 일이 인조(仁祖)에게 알려져 신사년(인조 19년, 1641)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읍지, 열녀〕

최 규서(崔奎瑞)
(1650~1735)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문숙(文叔), 호는 간재(艮齋)·소릉(少陵)·파릉(巴陵),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1669년(현종 10) 진사(進士)가 되고 1680년(숙종 6)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수찬(修撰)·교리(校理)를 지낸 뒤 대사간이 되어 이듬해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왕비 책봉을 반대했다. 1696년 대사헌에 있을 때 주청부사(奏請副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형조·예조 판서를 거쳐 좌·우참찬(左右參贊), 대사헌·대제학(大提學)을 역임하였으나 어머니의 병으로 사직하고 광주(廣州)로 돌아왔다.

1721년(경종 1) 우의정으로 있을 때 소론(少論)의 영수(領袖)로서 노론(老論)의 대신(大臣)들이 세제(世弟 : 영조)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건의하여 실시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여 철회시켰다. 이듬해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가 기로소(耆老所)에서 치사(致仕) 했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 등이 밀풍군(密豊君) 탄(坦)을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에 올라와 이를 고변(告變)하여 난을 토평케 하였다. 이때 영조가 친히 쓴 일사부장(一絲扶鼎)이라는 서찰(書札)을 받았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저서로 《간재집(艮齋集)》이 있으며, 현재 이동면 어비리에 묘소가 있다.

최 유경(崔有慶)
(1343~1413)

고려·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경지(慶之), 호는 죽정(竹亭),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1327년(공

민왕 21) 판도 좌랑(版圖佐郎)에 이어 사헌 장령(司憲掌令)이 되어 환자(宦者) 윤 충좌(尹忠佐)의 교만 방자함을 탄핵했다. 1388 년(우왕 14)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로 부임하였다가 이 해 요동정벌(遼東征伐) 때 서북면 전운사 겸 찰방(西北面轉運使兼察訪)이 되어 참여하였고, 최 영(崔瑩)이 실각한 후 밀직 부사(密直副使)에 올랐다. 1392 년 이 성계(李成桂)의 조선 개국을 도와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1401 년(태종 1) 참찬 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 왔다. 태종 때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고, 청주(淸州)의 송천서원(松泉書院)에서 제향(祭享)하고 있다.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현재 기흥면 공세리에 묘소가 있다.

최 춘봉(崔春逢) 효행이 지극하여 1956 년 10 월 10 일 주민들이 용인읍 삼가리 길옆에 효자비를 세웠다.

최 호(崔 灝) 효행이 남달리 뛰어나 임진년(영조 48 년, 1772)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읍지, 효자〕

한 명윤(韓明胤) (1542~1593) 조선 선조 때의 문관으로 자는 회숙(晦叔),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1568 년(선조 1) 사마시에 합격

하고, 추천으로 연은전(延恩殿) 참봉이 되었다가 영동 현감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백성을 모아 요새지를 사수하면서 항전하여 적세를 좌절시키매 조정에서 충용의 표창으로 위계를 높여 조방장(助防將)의 호를 겸하게 하였다. 1593년 상주 목사로 있으면서 방어사를 겸하였고, 그 해 10월에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뒤에 선무원종(宣武原從)의 2등에 책봉되고 이조 참판의 추증을 받았으며, 그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 충신의 문이라 하였다. 현재 구성면 보정리에 묘소가 있다.

한 술(韓 述) 생원 한 술은 광주 사람으로 다섯 살 때에 부친 상을 당하였고, 성장하여서는 모친 상을 당하여 부친의 묘소에 합장하였는데, 묘막에서 6년 동안을 상복 차림으로 나물 밥에 물을 먹으며 양념과 과일을 먹지 않았다. 몸소 제사 음식을 만들어 올렸으며, 남들과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하여 이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 없었다. 상기를 마칠 때까지 한번도 집에 들른 적이 없었다. 이 일이 정통 연간(세종 9년, 1427)에 알려져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현재 원삼면 독성리에 정려가 있다.〔동국삼강행실록〕

함양 박씨(咸陽 朴氏) 한 용주(韓用疇)의 아내로 기유년(영조 7년, 1729)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현재 원삼면 독성리에 한 술(韓述)의 정려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해주 오씨(海州 吳氏) 정 의현(丁義顯)의 아내로 신미년(고종 8년, 1871)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정 선현, 정 재위의 정려와 함께 포곡면 전대리에 전해지고 있다.

허 계(許 棨) (1798~1866) 조선조의 무신으로 자는 이숙(而肅),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1798년(정조 22) 천거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며, 1815년(순조 15) 무과(武科)에 급제한 후 함경남도·함경북도 병마 절도사 겸 수군 절도사를 거쳐 이듬해 삼도 수군 통제사 겸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에 올랐다. 이어 평안도 병마 절도사·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을 역임하였으며, 1865년(고종 2) 조 두순(趙斗淳) 내각의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경복궁(景福宮) 건영도감(建營都監)의 제조(提調)가 된 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도총관(都摠官)을 역임했다. 시호는 효민(孝敏)이다. 현재 원삼면 맹리에 묘소가 있으며, 영정 1점이 전해지고 있다.

허 봉(許 篈) (1551~1588) 조선조의 문인으로 자는 미숙(美叔), 호는 하곡(荷谷), 본관은 양천(陽川),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엽(曄)의 아들이다. 유 희춘(柳希春)의 문인으로 1568년(선조 1) 생원(生員)이 되었으며, 1572년 친시 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고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 했다. 1574년(선조 7)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管)으로 명나라에 가서 〈하곡조천기(荷谷朝天記)〉를 지었으며, 이듬해 이

조 좌랑(吏曹佐郞)으로 김 효원(金孝元) 등과 동인(東人)의 선봉이 되어 서인(西人)들과 대립했다. 그 후 교리(校理)·전한(典翰)·창원 부사(昌原府使)를 지내고, 1583년에 병조 판서 이 이(李珥)의 직무상 과실을 들어 탄핵 했다가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 2년 후 영의정 노 수신(盧守愼)의 주선으로 풀려나와 다시 기용 되었으나, 거절하고 백운산(白雲山)·인천·춘천 등지로 방랑하다가 1588년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 병사했다. 시와 문장에 뛰어나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저서로 《하곡집(荷谷集)》 《하곡수어(荷谷粹語)》가 있으며, 《의례산주(儀禮刪註)》 《북변기사(北邊記事)》 《독이관견(讀易管見)》 《이산잡술(伊山雜述)》 《해동야언(海東野言)》 등을 편찬하였다. 본래 서울 영동 지방에 묘소가 있었으나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허 엽·허 균·허 성과 함께 현재의 원삼면 맹리 양천 허씨 공동 장지에 이장되었다.

허 성(許 筬) (1548~1612)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공언(功彦), 호는 악록(岳麓)·산전(山前), 본관은 양천(陽川),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엽(曄)의 아들이다. 유 희춘(柳希春)의 문인으로 1568년(선조 1) 생원(生員)이 되으며, 1583년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지낸 뒤, 1590년 전적(典籍)으로 통신사(通信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이때 통신사인 황 윤길(黃允吉)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지적했으나, 부사(副使)인 김

성일(金誠一)은 침략 우려가 없다고 진술하자 김성일과 같은 서인(西人)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에 반대하여 침략의 가능성이 있음을 직고(直告)했다. 이어 정언(正言)·이조 좌랑(吏曹佐郎)·사인(舍人) 등을 거쳐 1594년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듬해 대사간·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고 예조·병조·이조 판서에 이르렀다. 동생 봉(篈)·균(筠) 및 여동생 난설헌(蘭雪軒)과 함께 당시 이름난 문장가로 성리학(性理學)에도 통달했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저서로 《악록집(岳麓集)》이 있다. 현재 원삼면 맹리의 양천 허씨 공동 장지에 묘소가 있다.

허 엽(許 曄)
(1517~1580)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태휘(太輝), 호는 초당(草堂),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균(筠)의 아버지이다. 서 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1546년(명종 1)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부교리(副校理)가 되었으며, 1553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장령(掌令)으로 있을 때 재물을 탐한 혐의로 파면되었다. 1559년 필선(弼善)으로 다시 기용되고 이듬해 대사성(大司成)에 올랐으며,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이때 박 계현(朴啓賢)과 함께 왕의 소명을 받고 옥취정(玉翠亭)에 들어가 율시(律詩)로 화답했다. 이 해 동부승지(同副承旨) 참찬관(參贊官)으로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윤 근수(尹根壽)·조 광조(趙光祖)의 신원(伸寃)을 청하고, 허 자(許磁)·구수담(具壽聃)의 무죄(無罪)를 논의하다가 파직되었다. 이듬해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다

시 기용되었으나 과격한 언사로써 또 다시 파직되었다. 1568년(선조 1) 다시 기용되어 진하부사(進賀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대사간에 올라 향약(鄕約)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1575년(선조 8)에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당쟁이 시작될 때 김효원(金孝元)과 함께 동인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그후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한직(閑職)에 전임되었다가 상주(尙州)의 객관(客館)에서 죽었다. 일찌기 김 정국(金正國)이 찬수한 《경민편(警民編)》을 보충 반포하고, 《삼강이륜행실(三綱二倫行實)》의 편찬에 참여했다. 뒤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고 개성의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로 《초당집(草堂集)》《전언왕행록(前言往行錄)》이 있다. 현재 원삼면 맹리의 양천 허씨 공동장지에 묘소가 있다.

홍 돈(洪 墩) 효행이 남달리 뛰어나 경자년(정조 4년, 1780)에 조세·부역을 면제받았다. 〔읍지, 효자〕

홍 씨(洪 氏) 공 중로(孔重魯)의 아내이다. 시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시아버지가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화혈(和血)해서 약으로 올리고 마침내는 죽고 말았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신유년(영조 17년, 1741)에 정려의 은전이 내

려졌다. 〔읍지, 열녀〕

황 효원(黃孝源) (1414~1481)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자영(子永), 호는 소원(少原),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1444년(세종 26)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하여 예빈시 주부(禮賓寺注簿)가 되고, 예조 좌랑(禮曹佐郞)·검상(檢詳)·사인(舍人) 등을 역임했다. 1455년(세조 1) 사복시 윤(司僕寺尹)으로 세조의 즉위를 도와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이 되고,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특진했다. 1457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서 성절 겸 천추사(聖節兼千秋使)가 되어 명 나라에 다녀온 뒤 상산군(商山君)에 봉해졌으며, 대사헌을 거쳐 이조 참판(吏曹參判)·충청도·경기도 관찰사를 지내고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올랐다. 1471년(성종 2)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이 되고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관찰사를 두 번 지내면서 유능하다는 평이 있었으나 처첩(妻妾)을 자꾸 갈아 종신토록 소송이 그치지 않았으며, 재화를 탐하여 화가옹(貨家翁)이라 불리었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2. 용인군내 선현묘소 및 유적지 일람

인 명	생몰연대	구 분	출생지·묘소·유적지	게재면수
공 서 린(孔瑞麟)	1483～1541	문 신		163
곽 포(郭 苞)			외사면 백봉리	·
김 경(金 儆)		효 자		163
김 대 건(金大建)	1882～1846	시 성	내사면 양지 배매실	133
김 사 목(金思穆)	1740～1829	문 신		163
김 상 익(金相益)		효 자	내사면 평창리	164
김 새(金 璽)		효 자		164
김 세 필(金世弼)	1473～1533	문 신	수지면 죽전리	164
김 소 사(金召史)		열 녀		165
김 약 항(金若恒)	? ～1397	문 신	모현면 일산리	165
김 유(金 瑜)		효 자		166
김 저(金 礎)	1512～1547	문 신	수지면 죽전리	166
김 충 수(金忠守)		효 자	내사면 양지리	63
김 함(金 涵)		효 자		·
김 혁(金 赫)		독립지사		151
남 계 우(南啓宇)	1811～1883	화 가		167
남 구 만(南九萬)	1629～1711	문 신	모현면 갈담리 파담	100
남 은(南 誾)	1354～1397	문 신	남사면 창리 곡골	167
남 이(南 怡)	1441～1468	무 신		37
맹 철 호(孟喆鎬)		독립지사	용인읍내	168
목 원 규(睦元逵)		효 자	원삼면 두창리	169
민 영 환(閔泳煥)	1861～1905	순국지사	구성면 마북리	138
밀양 박씨(朴 氏)		효 부	김량장리 북구	169
박 경 업(朴慶業)	1568～ ?	문 신	내사면 식금리	169
박 돈(朴 惇)		문 신	내사면 식금리	·
박 안 성(朴安性)		문 신	외사면 옥산리	·
박 원 형(朴元亨)	1411～1469	문 신	외사면 옥산리	27
박 은(朴 誾)	1479～1504	학 자	내사면 식금리	44

인 명	생몰연대	구 분	출생지·묘소·유적지	게재면수
송 명 천(宋命天)				170
송 지 겸(宋之謙)		효 자	내사면 송문리	170
순흥 안씨(安 氏)		효 부	남사면 완장리	170
신 길 원(申吉元)		충 신		171
심 대(沈 岱)	1546～1592	문 신	남사면 완장리	71
심 사 정(沈師正)	1707～1769	화 가	이동면 서리	171
심 온(沈 溫)	? ～1418	문 신	수지면 이의리	172
안동 권씨(權 氏)		열 녀	내사면 송문리	172
안 홍 국(安弘國)	? ～1597	무 신	남사면 묘봉리	75
안 희 묵(安羲默)		효 자		122
안 희 중(安禧重)		효 자		119
어 진 혁(魚震赫)		효 자	이동면	128
여 준(呂 準)		독립지사		154
연안부부인 (延安府夫人)			구성면 마북리	·
오 달 제(吳達濟)	1609～1637	문 신	모현면 오산리 양촌	91
오 윤 겸(吳允謙)	1559～1636	문 신	모현면 오산리 양촌	79
오 명 철(吳命哲)		효 자		173
오 명 항(吳命恒)	1673～1728	문 신	모현면 오산리 양촌	104
온양 정씨(鄭 氏)		열 녀		·
유 경 양(柳敬養)		효 자	내사면 양지	173
유 근(柳 瑾)	1861～1921	언론인	용인읍 김량장리 서구	143
유 복 립(柳復立)	? ～1593	충 신	내사면 송문리	173
유 순 정(柳順汀)	1459～1512	문 신	모현면 일산리	40
유 형 원(柳馨遠)	1622～1673	학 자	외사면 석촌리	95
유 홍(柳 泓)	1483～1551	무 신	원삼면 맹리	174
유 희(柳 僖)	1773～1837	학 자	모현면 갈담리	124
윤 행 임(尹行恁)	1762～1801	문 신	구성면 청덕리	174
이 경 선(李慶善)		효 자		·
이 경 증(李景曾)	1593～1648	문 신	기흥면 영덕리	175
이 길 권(李吉卷)		문 신	기흥면 영덕리 잔다리	11
이 길 보(李吉甫)		문 신	기흥면 영덕리 잔다리	·
이 단 상(李端相)	1628～1669	문 신	모현면 능원리	176

인 명	생몰연대	구 분	출생지·묘소·유적지	게재면수
이 담(李 湛)	1510～1575	문 신		59
이 만 성(李晩成)	1659～1722	문 신	이동면 천리	177
이 발(李 潑)	1544～1589		모현면 일산리	178
이 백 지(李伯持)	1361～1419	문 신	기흥면 영덕리 잔다리	178
이 사 위(李士渭)	1342～ ?	문 신	기흥면 영덕리 잔다리	179
이 상(李 尙)		효 자		179
이 석 지(李釋之)		문 신	내사면 주북리	21
이 석 형(李石亨)	1415～1477	문 신	모현면 능원리	32
이 성 동(李成童)		문 신	남사면 봉명리	179
이 숙(李 翩)	1626～1683	문 신	이동면 천리	180
이 순 악(李舜岳)		학 자		181
이 승 진(李升鎭)		효 자		181
이 시 직(李時稷)	1572～1637	문 신	모현면 능원리	88
이 씨(李 氏)				181
이 염(李 爓)		충 신		·
이 완(李 莞)	1579～1627	무 신	수지면 고기리	181
이 익(李 翊)	1629～1690	문 신	이동면 천리	182
이 일(李 鎰)	1538～1601	무 신	모현면 매산리	67
이 자(李 耔)	1480～1533	문 신	기흥면 지곡리	49
이 재(李 縡)	1680～1746	학 자	이동면 천리	106
이 재 관(李在寬)	1783～1837	화 가		130
이 종 검(李宗儉)		문 신	내사면 주북리	·
이 종 무(李從茂)	1360～1425	무 신	수지면 고기리	24
이 주 국(李柱國)		무 신	원삼면 문촌리	114
이 중 인(李中仁)		문 신	구성면 영덕리 잔다리	13
이 징(李 澄)	1375～1435	무 신	모현면 양촌리	183
이 찬 조(李纘祖)		충 신	구성면 보정리	184
이 충 건(李忠楗)	? ～1521	문 신		184
이 한 응(李漢應)	1874～1905	순국지사	이동면 시미리	147
이 홍 간(李弘幹)		충 신		·
임 정(林 整)		문 신	이동면 묘봉리	·
전 림(田 霖)	? ～1509	무 신		184
정 몽 주(鄭夢周)	1337～1392	문 신	모현면 능원리	15

인 명	생몰연대	구 분	출생지·묘소·유적지	게재면수
정 보(鄭 保)		문 신	모현면 능원리	185
정 선 현(丁善顯)		효 자	포곡면 전대리	185
정 재 위(丁載渭)		효 자	포곡면 전대리	186
정 탁(鄭 倬)		충 신		186
정 호 선(丁好善)	1571～1632	문 신	포곡면 전대리	186
조 광 보(趙光輔)		학 자	기흥면 지곡리	187
조 광 조(趙光祖)	1482～1519	학 자	수지면 상현리	53
조 광 좌(趙光佐)	? ～1521	문 신	기흥면 보리리	188
채 유 천(蔡有天)		효 자		188
채 제 공(蔡濟恭)	1720～1799	문 신	용인읍 역북리	110
청주 한씨(韓 氏)		열 녀		·
최 씨(崔 氏)		열 녀		188
최 규 서(崔奎瑞)	1650～1735	문 신	이동면 어비리	189
최 유 경(崔有慶)	1343～1413	문 신	기흥면 공세리	189
최 춘 봉(崔春逢)		효 자	용인읍 삼가리	190
최 호(崔 灝)		효 자		190
풍창부부인 (豊昌府夫人)			구성면 상하리 민재궁	·
한 명 윤(韓明胤)			구성면 보정리	190
한 술(韓 述)		효 자	원삼면 독성리	191
함양 박씨(朴 氏)		열 녀	원삼면 독성리	191
해주 오씨(吳 氏)		열 녀	포곡면 전대리	192
허 계(許 棨)	1798～1866	무 신	원삼면 맹리	192
허 균(許 筠)	1569～1618	문 신	원삼면 맹리	83
허 봉(許 篈)	1551～1588	문 신	원삼면 맹리	192
허 선(許 選)		무 신	원삼면 맹리	·
허 성(許 筬)	1548～1612	문 신	원삼면 맹리	193
허 엽(許 曄)	1517～1580	문 신	원삼면 맹리	194
홍 돈(洪 暾)		효 자		195
홍 사 용(洪思容)	1900～1947	시 인	기흥면 농서리	156
홍 씨(洪 氏)		효 부		195
황 효 원(黃孝源)	1414～1481	문 신		196

■ 홍 순석(洪順錫)
용인읍 김량장리 출생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동 대학원 졸업
전 태성고등학교 교사
현재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재직. 국문과 강사.
용인향토문화연구회원
편저 《龍仁郡邑志》(1982) 《내고장 民謠》(1983)
논문 〈韓國佛寺緣起說話研究〉, 〈挹翠軒朴閻研究〉
〈挹翠軒詩研究(1)〉

향토문화자료 4
내 고장의 얼 (인물편) 〔비 매 품〕

1984년 11월 25일 인 쇄
1984년 11월 30일 발 행

엮은이 홍 순 석
발행인 김 정 근
인 쇄 株 暎 文 化 社

용 인 군 문 화 원

용인군 문화원 임원

김 학노, 이 학린, 이 대영, 조 광수, 김 명환, 박 용익,
김 익래, 강 명윤, 이 영우, 박 재성, 김 승영, 김 종학,
현옥, 채 준묵, 정 동근